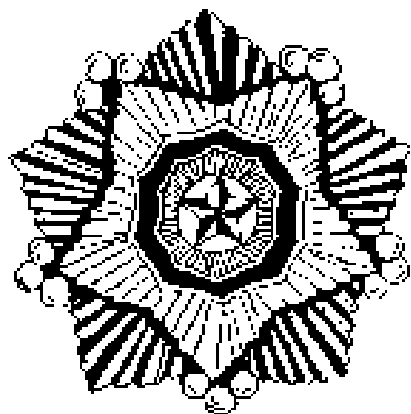




4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4호

(루계 제 690 호)

차 례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영원한 봄	4
사랑과 충성의 집	5
하늘에 날아오른 《동아일보》	10
따스한 바다	12
우리 수령님 이야기	19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주체문학의 위대한 창시자	20
영생축원의 꽃바다	22
철쇄로도 묶지 못한 《 김일성 장군의 노래》	23
선군혁명총진군대회의 선언	26
만경대	27
그리움의 꽃	27
수령님 모습	28
김일성 광장의 종소리	28
태양의 꽃	29

장군님과 김일성 화	30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흠모의 풍만한 서정	31
장군님과 시인	33
수령님께 드리신 경의	34
정원에 대한 생각	35
우리는 조국의 방패	36
샘물터	37
땅크병 자랑	45
철 령	46
금로수	47
철령척촉련가	48
붉은 꽃 붉은 령	48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49
수령님 찾아가는 길	49
《전호숙의 나의 노래》가 창작되기까지	50
금대봉마루	51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61
언제밀에 눈보라가 잔다	69
봄하늘	71
《상봉》의 비극을 더 이상 지속해야 하는가	72
온 세상이 우러르는 꽃	78
창조리	79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세기와 더불어》(I)중에서-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혼란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팔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축도이다.》

영원한 봄

김경기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다함없는 고마움에 목메이며
한송이 두송이
곱고 향기로운 꽃들을 골라
삼가 엮어가는 꽃바구니와 함께
나는 생각한다

봄
수령님 탄생하신 4월의 봄
이 봄이 있어 안아올수 있었던
조국해방의 봄에 대하여
이 봄이 있어 맞이할수 있었던
내 인생의 봄에 대하여

이 봄이 없이야
어찌 인류의 미래를 꽃피운
환희로운 2월의 봄이 왔을것인가
어찌 인간해방의 새시대를 노래하는
자주의 봄이 왔을것인가

봄이여
그 모든 봄세계를 낳은
4월의 봄이여
영생하시는 수령님과 함께
이 봄의 영원함을

나는 심장으로 느끼나니
화창한 4월의 봄은
만경대뜨락에서
지구의 한끝까지
인간해방의 봄빛과 더불어
제국주의광풍을 밀어버리고
동토대를 녹이며 흐르는
자주시대의 봄눈석임과 더불어 영원하거니

자연의 봄은
수억만번 지구에 왔다갔어도
참된 삶의 봄빛은 안고오지 못했건만
4월의 봄은
자주의 봄빛이 되어
주체의 해빛을 안고왔거니

오오 봄이여
태어나고 태어날
후대들의 가슴가슴에
맞이하고 맞이할 세기들의 먼 끝까지
더 붉게 더 아름답게 더 향기롭게 피어
영원무궁할 4월의 봄이여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 존함과 더불어

사랑과 충성의 집

리범수

4월의 추억
전사들의 추억은
어버이수령님 잊지 못하는
그리움 그리움의 추억

가슴에 켜는 그리움에
추억의 붓을 적시면
내 마음 달려가는 바다가 작은 집
어버이수령님 계시던 초소의 작은 집

수수하고 소박하여라
수령님의 사색어린 창문도
수령님의 음성이 비껴흐르던
하얀 벽체도 기와지붕도

평양에서 머나먼 서해기슭
초소의 병실결에 서있는 이 집을
사람들은 정을 담아 정을 담아
《수령님의 저택》이라 불렀거니

오 말하라 집이여
추억을 부르며 그리움 부르며
너의 창가에 비껴흐르는
사랑과 충성의 그 이야기...

1

밀물이면 섬이 되고
썰물이면 물과 이어지는
서해의 전방초소 작은 술섬에
우리 수령님의 천막이 서있었다

벌써 며칠째
천막안에 집무실을 꾸리고
현지지도의 나날을 보내시는
우리 수령님

해안포진지도 돌아보시며
화력복무훈련도 보여주시고
농민들과 농사일도 의논하시며
온종일 들길을 걸으셨더라

별빛을 밝으며 돌아오시면

쌍이신 피로를 풀어야 하시련만
비좁고 습기찬 천막안에서
우리 수령님 그 어이 편히 쉬시랴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천막두리에
밤길도록 모기쑥을 피우며
중대장 명호는 생각했더라
-천막을 대신하여 수령님 모실
숙소를 지으리라...

전사들은 팔소매 걷어붙였다
번듯이 집터를 닦고
기둥감, 서까래감 짚어내리며
툽질, 도끼질에 성수나는데

전사들의 그 마음 헤아리시며
수령님 다정히 하시는 말씀
-내가 천막에서 산다고 그럼니까?
나는 백두산에서 싸울 때부터
천막생활에 습관되어 일없습니다

전사들은 그 몇번 간청했건만
수령님 엄하게 이르시여라
-자재가 있으면 나의 숙소가 아니라
중대의 세목장과 창고도 짓고
군관들의 살림집도 지으시오

어느새 다 아시였을가
중대가 이곳으로 갓 이동하여 아직
세목장과 창고도 없고
군관들이 독신생활을 하고있음을

자신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전사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수령님의 다심한 그 사랑에
전사들은 감격에 목이 메여라

일찌기 10대의 그 시절엔
고유수와 오가자의 농가집 뺑방에서
목침을 베고 덧저고리 입고 지내시면서
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였고

간고한 항일전의 그 나날엔

눈비를 맞으시며
험산준령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을
그 어이 오늘도 천막에 모시라

은혜로운 사랑의 그 손길아래
웅장화려한 거리들을 세우시고
문화농촌 새 마을 꽃피워주신
수령님의 그 은정 하늘같건만

어이하라 수령님의 그 뜻을
그 뜻을 어길수 없어
전사들은 소박한 집을 지었다
1동 2세대 살림집 세채

그 살림집 한채에
수령님을 모시려 청을 드렸다
-수령님 이 집을
숙소로 리용해주십시오

전사들의 그 소원을
더는 막을수 없으신 수령님
전사들의 손길에 이끌리시여
친히 살림집을 돌아보셨다

화려한 대리석기둥도 없고
현란한 무리등 장식도 없다
농가집 다름 없는 한세대 두칸방에
수수한 장판지와 벽지를 바른 집

방안엔 보통책상과 결상들
벽가에 놓여있는 나무침대며
옷걸이 하나에 수원실
부엌엔 가마와 그릇 몇가지

이것이 수령님의 집무실이고
침실이며 서재이며 식당
이것이 전사들과 일군들을 만나시는
수령님의 응접실

너무도 갓춘것 없고
너무도 차린것 없어
명호의 마음은 죄스러운데
그이께선 다정히 말씀하신다

-집을 소박하게 잘 꾸렸소
아직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답게

소박하게 살아야 하오

사랑과 믿음의 첫 자리엔
전사들과 인민들을 세워주시고
자신께선 소박함과 친근함으로
언제나 인민속에 계시는 그이

그이께선 명호에게 이르시여라
-전사들의 마음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1동 2세대 살림집을
어떻게 나 혼자 쓰겠소
중대장이 한 세대 쓰고
나도 한 세대만 쓰겠소

아 이 어인 말씀이신가
살림집 한채를 놓고
전사와 함께 한지붕아래서
비좁은 한 세대를 쓰시겠다니...

이 땅 이 하늘 이 바다를
찾아주신분도 수령님이시고
빛내주신분도 수령님이신데
살림집 한채마저 사양하시여라...

보석진주로 벽을 쌓고
은금으로 지붕을 씌운 고대광실에
수령님을 천만년 모신다 한들
베루신 그 은혜 어이 다 갚으랴만

한 세대를 청하시는 수령님 우러러
전사들은 울먹이며 말이 없는데
그이의 뜨거운 음성
명호를 다정히 달래시여라

-수령과 혁명전사는
사상도 마음도 하나입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언제나 대원들과 한집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수령과 혁명 전사가
한집에서 한식구처럼 사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그 뜻을
명호는 뜨거운 눈물속에 받아안았다
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가 되어

아 이 세상 그 어데 또 있으랴
최고사령관과 전사가
한지붕아래서 함께 살았다는
꿈같은 이야기
꿈같은 전설이여!

2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바다가마을엔 소문이 째-
-저기 저 집이
《수령님의 저택》이라네

학교가던 아이들도
벌로 가던 농장원들도
길가던 병사들도
호기심에 눈길 모았다

지붕이며 벽체도 살펴보고
저마다 속살거렸다
-별로 특별한게 없구만!
-우리 집과 비슷해!

명호는 그 몇번 쉬! 쉬!
조용하라고 일켰다
하지만 그 어이 마음 놓으랴
수령님의 안녕을

기슭에 철썩이는 파도소리도
수령님의 사색을 방해할세라
창가에 스치는 바람소리도
수령님의 새벽잠을 설치게 할세라
가슴 조이던 전사들의 그 마음

그 마음 모으고 합쳐
명호는 아침부터 서둘렀더라
수령님 현지지도 떠나신 사이
집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으려고

똑딱 말뚝을 박고
산에서 찍어내린 장대를 엮으니
어느새 솟아났구나
든든한 나무울타리

이제는 마을사람들이
더는 다가서지 못하리라
호기심 많은 마을의 아이들도
창문을 들여다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전사들의 안심은 한순간
현지지도 마치고 돌아오신 수령님
울타리앞에 차를 세우시고
안색을 흐리시여라

-중대장동무!
이게 어찌된 일ियो
누가 이 집에
울타리를 치라고 했소?

-수령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명호의 대답을 들으시며
호탕히 웃으시던 수령님

-울타리를 없애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간격을 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수령님의 그 말씀에서
전사들은 심장에 새겨안았다
수령과 전사는
하나의 뜻 하나의 지향으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일심의 운명공동체

그 사이는
한줄기 찬바람도 스며들수 없고
한치의 경계선도 있을수 없는
친아버지 친자식사이

수수한 나무울타리를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간격을 두는 장벽
혼연일체를 갈라놓는 장벽으로 보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그 뜻이여

인간이 인간을 배척하고
인간이 인간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압제의 그 세상엔
억압과 구속의 담장이 얼마나 높고
차별의 울타리가 얼마나 많은가

마음과 마음을 가르고
피줄과 피줄에 칼질을 하는
대립과 대결의 울타리들을
이 땅에서 걸어내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마음속엔
온 나라 강토가 정든 트랙으로 펼쳐져있고
온 나라 전사들과 인민들이
한가정 한식술로 살고있어라

하기에 크나큰 그 품을 지켜
조국이 있고 인민이 있는
위대한 아버지의 그 품을 지켜
총잡은 병사들이 있지 않느냐

명호의 눈앞엔 어리어왔다
언젠가 수령님 모시고
초소에 찾아오셨던
경애하는 장군님 모습

집앞에 꾸려놓은 소박한 정원
갓가지 과일꽃이 향기 풍기는
《버드나무담화터》를 돌아보시며
전사들의 충성심이 아주 높다고
만족한 미소를 지으신 우리 장군님

몸소 방안에 들어서시여
온도계의 눈금도 살펴보고
장마철의 습기도 넘려하시며
장군님 뜨겁게 이르신 말씀
-수령님의 안녕을
동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장군님의 그 당부
혁명의 엄숙한 그 요구를
그 어이 순간인들 잊을수 있으랴
그 어이 한치인들 드릴수 있으랴

이곳에 오시면
이 집의 작은 창문으로
수령님 온 나라를 굽어보시고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나니

여기서 우리 수령님
서해지구 기름진 땅을
출렁이는 관개수로 적시고
풍작을 안아올 주재농법 펼치시고

여기서 수령님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가늠하시며
해안선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신

선군령도의 빛발을 뿌리시여라

이 집의 집무탁우에
세계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
까리브해의 위기를 내다보시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울 구상하셨나니

지붕은 높지 않고
창문은 넓지 않아도
하늘처럼 높은 뜻 어려 빛나고
바다처럼 넓은 품이 깃들어있는
초소의 작은 집이여

이 집의 올라리는
비록 허물수 있어도
수령님의 안녕을 지킬
전사들의 마음속 성새만은
나날이 높아갔더라

3

살구꽃 복숭아꽃이
울긋불긋 단장한 《버드나무담화터》로
전사들을 부르신 수령님
웬일인가 열쇠를 손에 드신채
명호의 곁으로 다가서신다

-동무들이 우에서 내려와
이 집을 지켜달라고 했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습니다

명호의 손에
열쇠를 들려주시며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여라
-자 받으시오 이 열쇠를
오늘부터 내 방의 열쇠를
동무들에게 맡기겠소

승업함과 경건함속에
정중히 열쇠를 받아든 명호
가슴은 두근거리고
온몸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정녕 이 세상에
믿음이란 말이 생겨
이처럼 그 의미가 승화되고
이처럼 그 뜻이 부각된적 있었던가

바다가초소의 작은 이 집이
위대한 수령님 모신
이동하는 당중앙의 《집무실》이고
최고사령부의 《야전지휘소》이거니

두손에 받아든 그 열쇠에
얼마나 고귀한 믿음
얼마나 크나큰 사랑
얼마나 높은 뜻 담기였는가

우리 수령님 이 열쇠로
전사들과 인민들이 들어설
크나큰 행복의 대문을 여시고
통성번영할 조국의 미래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가신다

그 어떤 재부로도
결코 대신할수 없고
수천수만대의 포와 땅크도
대신할수 없는 그 열쇠

전사들은 그 열쇠로
수령님의 방문을 열어드리고
이 집의 존엄을 지켜드렸다

하지만 전사들은
울타리도 없고
보초병도 없는 이 집을
열쇠로만 지킨것 아니거니

전사들은 그 열쇠를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는
충성과 의리의 보검으로
천만자루 총대로 틀어잡았다

그 열쇠를 가슴에 품은
전사들의 심장속에서
결사옹위의 무기고가 열리고
신념의 총폭탄이 쏟아져나왔다

그 열쇠로
하늘나라 대문을 열어제끼고
수억만 못별의 성좌를 끌어내린듯

초소마다 전사들의 별빛눈동자
수령님의 안녕 지켜 빛을 뿔었다

전사들은 그 열쇠로
그 어떤 원썩도 열지 못하는
결사옹위철문을 굳게 잠그고
보이지 않는 성새방패로
이 집의 울타리를 높이 쌓았나니

집이여 집이여
세월의 눈비에든 변함이 없이
수령님의 뜨거운 체온
수령님의 숨결과 음성을 안고
오늘도 서있는 력사의 집이여

이 집에
다시는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경애하는 장군님 이 집을 찾으셨나니

이 집의 프락을 조용히 거니시며
숙연한 추억속에 하신 그 말씀
하얀 벽체며 밝은 창가에
해빛처럼 별빛처럼 어려있구나

-이 집은 수령님과 전사들의 관계가
친혈육의 관계라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전사들과 이 집에 함께 계시며
건군위업에 쌓으신 그 업적은
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아 위인의 추억속에
위인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고
위인의 추억속에
위인의 생애는 영원히 빛나리니

오늘도 우리 수령님
장군님 추억속에 솟아 빛나는
초소의 작은 집 한지붕아래
전사들과 한식술로 함께 계신다
그날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

하늘에 날아오른 《동아일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령도하신 항일유격대의 타격은 일제놈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었으며 항일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소식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뢰소리와 같았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크고작은 전투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보천보전투는 그야말로 놈들의 머리에 떨어진 날벼락이었으며 유격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소식은 번개뒤의 우뢰소리처럼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것이였다. 그리하여 하늘에 날아오른 《동아일보》에 대한 전설도 생겨나서 널리 전해졌다.

×

주체26(1937)년 6월 4일이였다.

이 하루도 지구의 자전과 함께 조용히 흘러가는 그저 평범하고 레사로운 날로 스쳐지나가는듯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에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깨지는것과도 같은 《특대사변》이 일어나서 일본 《대본영》과 조선총독부가 발각 뒤집히게 만들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솔하신 항일유격대가 보천보를 들이쳐서 불바다로 만들었던것이다.

항일유격대한테 보천보가 녹아났다는 급보를 받은 총독놈은 불에 덴듯 놀라서 각료들과 군중, 병종사령관들, 경찰두목들을 호출하여 무슨 《긴급회의》요, 《비상조치》요 하는것들을 란발하면서 복닥소동을 피웠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솔하신 항일유격대의 습격을 받고 보천보가 풍지박산이 되였다는 소식! 이것이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생벼락이였다.

이른바 《도문회담》이라는것까지 벌리고 그에 따라 국경경비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악을 써왔는데 겨우 반년이 좀 지나서 보천보에 구멍이 뚫리다니...

총독 미나미는 아직도 《도문회담》때 우에다와 약속한 회담내용이 귀에 쟁쟁하였다.

《조선에 주둔시킨 병력을 원산이북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조선과 간도지방의 군경들과 밀접한 공동작전을 벌려 항일유격대의 국내에로의 진출을 막을 태세를 갖추겠...》

이런 밀약을 하고 수많은 병력과 경찰들을 국

경지대에 밀어넣고 포대를 건설하여 경비진을 쳤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만것이다.

경찰관주재소는 유격대의 기관총사격을 받아 벌등지가 되고 영립창, 농사시험장 등은 불길에 휩싸여 재가루로 날아올랐다.

요행 살아남은 경찰놈들은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다못해 돼지우리애까지 뛰어들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반대로 보천보인민들의 기세는 솟구치는 불길처럼 높아졌다.

헌데 불행은 홀로 오는 법이 없고 쌍으로 온다는 말이 있듯이 불길한 소식은 련이어 날아들었다. 오가와 슈이찌 경비대장이 인솔하는 《토벌대》가 유격대를 추격하다가 구시산에서 괴멸되였다는것이다.

총독 미나미는 이러다가는 유격대가 총독부의 담장을 뚫고 자기 방에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신출귀몰하는 **김일성** 장군이 총독부라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는가.

물에 빠진 놈처럼 헤엄비며 《토벌대》요 국경수비대요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몽땅 풀어서 유격대추격에 내몰고도 무엇인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미흡한 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던 총독놈은 《아차!》하는 비명을 질렀다.

유격대가 보천보를 들이친 소식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는것을 그만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만일 이 소식이 조선 13도에 퍼지는 날에는 큰일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김일성** 장군한테로만 쏠리는게 백성들의 마음인데 거기에 보천보습격소식까지 전해진다면 그것은 실로 불붙는 장작더미에 기름 퍼붓기가 되고말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유격대는 전멸되였다》고 선전하던 총독부의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는 철저한 보도관제를 실시하여 보천보소식이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리롭고 많으면 많을수록 해롭다....

총독놈은 급히 헌병사령관과 경무총감을 전화로 찾아서 신문사들에 경비진을 강화하고 보천보전투소식이 실린 신문이 한장도 새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주었다.

그런데 몇분후에 경무총감한테서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

《각하, 기자놈들이 어느새 냄새를 맡았는지 기사를 써서 신문을 다 찍어놓았습니다. 회수하여 제지공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총독놈은 발끈 성을 냈다.

《바보같은 소리 작작하라구. 제지공장에 날라가느라고 소문이 날것이고 초지기에 넣느라고 보는 놈이 생길것이고 이래저래 다 새어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신문사마당에 쌓아놓고 불태우라.》

총독놈과 경무총감사이에 이런 전화가 있는지 30분도 못되어 《동아일보》사 마당에서는 경찰, 형사들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이미 찍어놓은 신문을 불살랐다. 인쇄잉크가 묻은 종이장들은 손바닥만한것이라도 모조리 압수하여 불더미에 던져넣었다.

세찬 불길의 하늘에 치솟고 검은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사회여론의 대변자인 신문사를 점거하고 찍어놓은 신문마저 압수하여 불태워버리는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잔혹한 유린이라고 항거해나서는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 감옥으로 끌려갔다.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 모든것을 지휘하던 총독놈은 그때야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길길이 타오르는 불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벼락은 이미 쳤는데 어찌 우뢰소리를 막을수 있겠는가.

타래쳐오르는 내굴을 쳐다보던 총독놈은 아연해지고말았다.

숫구치는 내굴과 함께 하늘가득 날아오른 불리들이 하얀 종이조각들로 변하여 햇빛에 반짝이면서 눈송이들처럼 쏟아져내리는것이였다. 그것들은 점점 아래로 날아내렸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모두 웅근 한장의 신문들이였다.

(이제 무슨 조화란 말인가?)

총독놈은 가까이에 날아내리는 신문 한장을 덮치듯 잡아쥐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보천보》

이런 제목을 특호환자로 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여있었다.

《보천보의 주요건물들은 모두 하루밤사이에 제가 되고말았다. 주재소는 가련하게도 벌의 동지같이 되고 면사무소는 아직도 연기가 물물 나고 기둥과 들보가 탄 시꺼먼 숯덩이만 앙상하게 남았으며 문서더미도 모두 타서 바람에 재만 날리고있었다.》

총독놈은 신문을 손에 든채 혼맹이가 빠진듯 하늘가득 날아내리는 신문들을 쳐다보았다.

어떤것들은 바람에 하늘멀리로 끝없이 날려가고 어떤것들은 날아내리다가도 다시 숫구쳐서 구름속으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서울시민들은 하늘에서 함박눈송이처럼 날아내리는 신문들을 받아쥐고는 보천보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유격대한테 얻어맞고 만신창이 되었다고 가슴 후련해하였다.

신문기자들과 인쇄공들은 《우리 장군님에 대한 소문을 막으려는것은 그물로 바람을 막으려는것과 같다.》고 코웃음을 쳤다.

아닌게아니라 보천보에 대한 소문은 곧 온 세상에 퍼지고말았다.

《동아일보》신문사 마당에서 어마어마한 경비와 감시속에 불태운 신문의 불티는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 날려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다.

그리하여 유럽의 도시들에서도 하늘에서 날아내리는 신문을 받아보고 놀라와했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들판에서도 하늘에서 날아내리는 신문을 받아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고 한다.

《보천보의 퇴성》을 막을수 없는것처럼 왜놈들이 제아무리 헤엄쳐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의 전설은 온 세상을 진감하는 퇴성벽력으로 널리퍼졌다.

《벼락은 피할수 없고 우뢰소리는 막을수 없으니 장차 대일본제국은 어찌 될것인가!》

총독놈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장탄식을 하였다.

절망에 빠진 총독놈의 물결이 또 신문에 나서 사람들을 웃기였다고 한다. 어떤 고장에서는 불태우려던 신문이 절대로 타지 않더니 갑자기 하늘로 날아올라서 푸른 하늘을 가리울만큼 커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올려다보고 보천보소식을 한낱한시에 알게 되었다고도 한다.

왜놈들의 엄격한 보도판제속에서도 《동아일보》에 보천보전투소식이 실린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국내인민들에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는 살아있으며 일제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한다, 그러니 조국해방의 날도 앞으로 멀지 않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일제와의 투쟁으로 적극 불려일으키는 고무적힘으로 되었다.

지흥길



조승찬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두번, 세번 거퍼 울렸다. 깊은 사색에 잠겨 집무실에 앉아 집필에 여념이 없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펜을 멈추고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그리고는 아직 글의 세계에서 깨어나지 못하신채 **《김일성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으시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북조선로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책이었다. 인사말이 오간뒤 김책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울렸다.

《장군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일전에 쏘련에 수출한 부선 50척중에서 25척이 인수해가던 도중 원동앞바다에서 가라앉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배가 가라앉다니?)

그이께서는 글의 세계에서 완전히 깨어나시었다.

《김책동무, 좀더 자세히 말하시오. 배가 왜 가라앉았다는겁니까? 원인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습니다. 쏘련측의 말에 의하면 진극제를 대용품으로 쓴데다가 배를 무어 오래동안 선대우에 방치해두다보니 수밀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쏘련측에서는 주둔군사령관이 전문검수일군들을 데리고 장군님을 직접 만나뵙겠다고 합니다.》

(그렇다?)

이것은 심상찮은 일이었다. 주둔군사령관이 전

문검수일군들을 데리고 장군님을 직접 만나뵙겠다는것은 이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이야기나 나누자는것이 아니라는것은 뻔했다. 쏘련측이 배를 이관받아 인수해가던 도중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실지로 배의 수밀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라앉았다면 배를 무은 당사측에서 책임을 면할수 없다. 이것은 두나라간의 무역관계에서 신용을 잃게 되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나아가서는 국가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그때문에 김책은 이렇듯 신중해서 조심스럽게 보고하는것이였다.

《그 배를 책임지고 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용히라고 산업국의 선박관리처 지도원동무가 직접 설계하고 현지에 나가 책임지고 무었다고 합니다. 참, 장군님께서도 아시는 동무입니다. 려객선 <오승호>를 무은 동무입니다.》

《아, 기억나오.》

수령님께서서는 두눈이 역실역실하고 코가 덩실한 순박하고 어저보이는 20대 초반의 애젊은 일군의 얼굴이 떠오르시었다.

그는 지금 남포조선소에서 450톤급의 철선건조를 책임지고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그 배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못고있는 큰 철선이다.

(문용히동무가 어찌다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는가?)

《산업국동무들에게는 알려주었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으시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책동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책은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너무 뜻밖의 엄청난 일이다보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만약 쏘련측이 제기한 사실이 틀림이 없다면 아무래도 대외적관계를 고려하여 우리측에서 가만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시었다.

《쏘련군동무들은 언제 오겠다고 했습니까?》

《장군님께서 수락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곧 떠나오겠다고 합니다.》

《좋소, 만나봅시다. 우리의 책임있는 일군들도 다 부르시오. 그리고 김책동무도 내 방으로 오시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었다.

×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다음에도 수령님께서서는 김책이 하던 말이 그냥 머리속을 맴돌고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수 없으시었다. 수출한 50척의 배중에서 그 절반이나 되는 25척이 허허난반다에 가라앉았다니 억이 막히시었다. 아무리 대용진극제를 썼다 한들 이런 사태가 빚어질수 있을가. 무어낸 배를 오래동안 땅우에 방치해둔데도 그 원인이 있다지. 우리 기술자들은 이것을 몰랐을가. 하긴 갓 해방을 맞은 우리 나라의 선박공업실태는 한심하고 그 기술진영 역시 청소하기 그지 없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산업국에는 조선소담당지도원이 한명밖에 없다. 진해조선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올해 23살의 젊은 동무이다. 이번 부선도 그가 직접 설계하고 총책임을 지고 건조했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문득 조선소담당지도원 문용히를 처음으로 아시게 되던 지난해의 일이 삼삼히 떠오르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하여 수풍발전소에 나가셨다가 의주, 삭주, 창성, 벽동 등 압록강연안일대의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여간 애크 먹고있지 않다는 사실을 료해하고는 평양으로 돌아오시는 길로 해당부분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었다.

이 협의회에는 도합 여섯명이 참가하였다. 교통국장과 해운처장, 산업국장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각각 1명씩의 전문기술자들이었다.

먼저 교통국 사람들이 도착하고 뒤이어 해운처에서, 맨나중으로 산업국장 리동수와 문용히가 그이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산업국장은 키가 후리후리하고 심한 근시여서 도수높은 안경을 끼었는데 그뒤로 들어선 문용히는 보통키에 수수한 검정학생복을 입은 젊은이였다.

먼저 온 동무들과 담화를 나누시던 수령님께서

는 그들이 들어서자 《산업국동무들이 왔구만!》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밝은 미소를 짓고 마주나가지였다. 그 찰나 산업국장이 뒤를 돌아보며 《차렷!》하고는 《장군님, 산업국에서 명령대로 두명이 도착하였습니다.》라고 보고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뒤따르던 청년이 흠칫 놀라 뺨뺨이 굳어지는것이 몹시 당황해하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말씀하시었다.

《내앞에서 <차렷> 구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손이나 한번 잡아봅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우선우선한 기색으로 먼저 산업국장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문용히의 손도 따듯이 잡아주시었다. 그때까지도 문용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채 눈물 곳을 몰라 허둥거리고있었다. 순진하고 어져보이는 청년은 얼굴과는 달리 손이 무척 투박하고 컸다. 제법 손바닥에 장알이 꺾꺾이 박인것이 로동속에서 오래동안 단련된 손이라는것이 알렸다.

《조선소담당지도원(당시)이라지?》

《예.》

《몇살이요?》

《스물한살입니다.》

《좋은 나이로구만. 고향은 어디요?》

《남포입니다.》

《부모님들은 계시요?》

문용히는 대답대신 고개를 숙이였다. 그러자 산업국장이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풍랑에 배가 깨져 널죽 하나를 타고 이틀동안이나 표류하다가 다른 배에 의해 구원되었다는것, 그러나 표류중에 입은 동상의 후파로 석달만에 끝내 사망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림종전에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 풍랑을 이겨내는 배는 못만드느냐고 절규했다는 이야기며 그래서 문용히가 피를 물고 고향으로 진해조선고등전문학교를 나온 사연을 죄다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조선사람기술자라 하여 왜놈 조선소에서는 써주지 않아 여기저기 나다니다가 나중에는 대동군에 와서 철공소의 보이라공으로 일하였습니다. 해방을 맞은 다음에야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삼스러운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시었다.

《고생이 많았겠소. 동무가 우리 나라 동서해의 조선소실태를 조사장악하여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지?》

《예.》

《어린 동무가 수고했소. 그걸 보니 우리 나라 선박공업실태가 환히 안겨오오. 지금 우리 나라 선박공업실태는 한심하오. 령이나 다름없소.》

그렇지만 일없소. 첫술에 배부르겠소. 그건 그렇구. 자, 어서들 자리에 나앉소.》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신 다음 집무 탁앞으로 다가가 앉으시었다. 그리고는 책상우의 수첩을 펼치며 좌중을 향해 말씀하시었다.

《다 온것 같은데 그럼 협의회를 시작합시다.》

그이께서는 서두를 이렇게 떼신 다음 오늘 협의회에서는 압록강연안일대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러 한다고 하시었다.

《워낙 이 고장은 예로부터 교통이 불편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의주, 삭주, 창성, 벽동사람들은 일생 자기 도소재지에도 못가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풍발전소에 나갔다가 그곳 주민들의 교통문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현지를 료해해보았는데 가슴이 아픉니다. 지어 어떤 고장에서는 10분이나 20분이면 건너다닐수 있는 강 하나를 사이 두고 배가 없어 30~40리씩 예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방된 우리 조국은 인민의 나라입니다. 인민의 나라가 인민의 불편을 보면서 외면하고있다면 그게 무슨 인민의 나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것은 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이 고장 사람들의 불편한 교통문제부터 풀어줘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 나는 먼저 려객선을 뒤척 못자는것인데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내가 술렁이였다. 아직은 누구도 엄두를 못낸 생각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동해안의 원산과 청진일대에 몇개의 선박수리공장이 있었고 서해안에는 해방전에 《남포상공회사》라고 부르던 공장이 하나 있었을뿐이였다. 그나마 동해안의 선박수리공장들은 대부분 목선을 수리하는 작은 공장들이였고 서해안의 남포상공회사도 일제의 패망말기에 와서야 선박수리공장 겸 광산기계공장으로 되었는데 일제가 《대동아전쟁》에서 파손된 배들을 끌어다 수리하는것이 기본이였다. 보조적으로 왜놈들이 《계획선》이라고 부르던 80톤급 예선과 150톤급 운반선 제작에 착수하긴 했어도 끝내 배를 완성하지 못한채 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현도, 조립, 배관설치, 기관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체로 해결하여 려객선을 못는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모두들 잘 알고있었다. 교통국장도 해운처장도 시선은 자연히 산업국장에게로 쏠려갔다.

산업국장은 당황한듯 얼굴히 수수땀처럼 벌개지며 얼른 옆에 앉은 문용히를 돌아보았다. 산업국장은 전기전문가여서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때문이였다.

문용히도 얼굴을 붉히며 눈길을 떨구었다. 너무도 엄청난 과업이여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하는듯 싶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이께서는 또 한번 물으며 산업국장과 문용히를 바라보시었다.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신의주비행장에는 일제놈들이 버리고 간 비행기기관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려객선을 못자는거다, 그러되 려객선의 형태는 료선식(량현측 밑부분에 물을 차는 바퀴가 달린 배)이 아니면 프로펠러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압록강은 물살이 빠르기때문에 다른데서 쓰는 배치럼 만들어서는 뒤집힐수 있다고 하시었다.

《어떻소, 이런 배를 빠른 시일내로 만들어낼수 없겠습니까?》

수령님께서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시자 문용히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장군님, 만들수 있습니다. 로동자동무들과 토론해서 꼭 빠른 시일내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까.》

기운차게 대답하는 문용히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의 빛이 어려있었다. 그이께서는 문용히의 대답이 마음에 드시였다. 청년의 웅골한 기개가 대견하시였다.

《만들수 있단 말이지?》

《기관만 있으면 만들수 있습니다.》

《중소. 꼭 만들어줍시다. 그러면 그곳 인민들은 동무네를 업고 다니자고 할거요.》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여 크게 웃으시며 앉아 이야기하자고 하시였다.

문용히는 도로 자리에 앉았다.

《동무들은 이 회의가 끝나면 래일 아침 신의주로 내려가 해운창고에 있는 비행기기관을 료해해보시오. 그 다음 그에 맞게 설계를 하고 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운처장동무는 이 동무들과 함께 현지에 내려가 이 동무들이 기관을 접수해갈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이날 협의회는 려객선문제와 함께 자동차수송과 평양시내의 전차운행문제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토론하고 오후 6시경에야 끝났다.

무려 두시간 반이 걸렸다.

×

그때로부터 두달 지나 5.1절을 맞으며 대동강에서는 30톤급의 철예선인 려객선 시운전이 있었다. 료선식으로 만든 배였다.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수령님께서는 김책과 함께 현지로 나가시었다. 문용히며 산업국장, 배를 몰고 온 조선소로동계급들이 열렬한 박수로써 그이를 환영하였다.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나서 한손을 허리에 얹고 배를 바라보시었다. 배

는 대동강기슭에 정박해있었다. 선형이 미끈하게 뿔쳐지고 조타실이며 객실도 환하고 깨끗한것이 이채로왔다. 만조때여서 대동강물은 한껏 불어나있는데 기슭에 정박한 배는 물결에 실리어 알릴듯말듯 흥떡이고있었다.

《배가 멋있구만! 압록강연안 인민들이 려객선을 무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춤을 추겠소. 어디 좀 올라가봅시다.》

그이께서는 일행과 함께 잔교를 지나 배의 갑판으로 오르시였다. 선체조립은 병접으로 하였고 내부구조물들은 용접을 하였다. 도장도 품을 들여 구색에 맞게 하였고 의장품들도 정성을 들여 만든것이 첫눈에 알리였다. 객실이며 기관실로 오르내리는 층계와 용접부위들이 좀 투박한데가 있긴 하지만 빈터나 다름없는 선대장에서 단 두 달동안에 이런 려객선을 무어냈다는것이 장하게 느껴지시였다.

배를 돌아보고나서 수령님께서서는 뒤따르는 문용히에게 배를 무으면서 애로되는것은 없었느냐고 물으시였다.

《없었습니다.》 문용히는 신이 나서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 자재랑 후방물자랑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셔서 저희들은 힘든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걸리는것이 있었겠지. 문동무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여 무은 배가 이번이 처음이라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로동자동무들이 적극 도와주어 걸린 문제들을 다 자체로 풀어나갔습니다. 로동자동무들속에는 재간있는 동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소?》

《남포조선소의 박아바이는 제관일을 10년나마 했다는데 귀신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배관반장동무도 그렇고 병접공들도 리베트를 치는것이 마치 마술사와 같습니다. 장군님, 이 사람들과 함께 라면 앞으로 더 큰 배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문용히는 배 한척을 무어보더니 담이 대단히 커진듯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수령님을 기쁘시게 한것은 그가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보고 감탄하며 환희에 잠겨있는것이였다. 그런 심장에다 날개만 달아주면 창공높이 훨훨 날아오를것 같으시였다.

《문동무가 아주 귀중한걸 체험하였구만. 앞으로 더 큰 배를 무을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놈들은 저들만이 큰 배를 무을수 있다면서 조선사람들에게는 자그마한 목선이 나 만들게 하고 철선을 무을 때는 도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지만 우리 로동자들은 그속에서도 왜놈들이 하는것을 보며 남몰래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이번에 보니 정

말 눈썰미가 있고 재간들이 많습니다.》

《그렇소. 워낙 우리 조선사람들은 재간이 있는 민족이요. 옛날 봉건통치배들이 수공업자들을 쟁인바치요 뭐요 하며 천대해서 그렇지 우리 사람들의 재능을 내세워주고 장려하며 산업을 발전시켰더라면 우리 나라는 더 크게 부흥했을것이고 왜놈들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수치도 당하지 않았을거요. 문동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배를 무어야 하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소.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조선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오. 그러자면 문동무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오.

그래 배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소?》

수령님께서서는 선수갑판에 나오시여 조타실을 올려다보시였다. 배는 여전히 물결을 따라 가볍게 흥떡이며 춤을 추고있었다.

《아직 이름은 짓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어달라?》

《예, 조선소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문용히는 절절한 빛을 띄우며 말씀드렸다. 그러자 산업국장이 로동계급의 청을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올렸고 김책이도 웃으며 《장군님, 어서 배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였다. 보매 이들끼리는 이미전부터 그런 약속이 있었던듯싶었다.

수령님께서도 그들의 청을 굳이 거절하고싶지는 않으시였다. 이왕이면 뜻이 깊은 이름을 지어 우리 로동계급이 바쳐온 애국의 뜻을 길이 전하도록 하고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물으시였다.

《〈오승호〉 라고 하면 어떻겠소?》

《예?》

모두들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였다.

수령님께서 설명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농업현물세제실시, 이 다섯가지 법령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소. 그후 우리 로동계급의 손으로 무은 첫배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요. 어떻소. 마음에 드오?》

《장군님!》

불시에 문용히가 목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로써 환영하였다.

×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12월 초순의 어느날이였다. 동평양에 자리잡고있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

회 산업국청사의 4층 회의실에서는 수령님의 참석하에 해방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2개년인민경제계획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계획은 방대하였다. 지난날 국권을 잃고 놀리우고 짓밟히며 가난하게 살아온 조선이었기에 하루속히 부강조선을 일떠세우자면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걸어야 했다.

새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기세는 충천하였다. 일군들도 모두 자기 부문앞에 나선 엄청난 계획들을 무조건 기어이 수행할 열망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수령님께서 그 기세가 마음에 드시었다.

사실상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빈터우에서 건국의 첫걸음을 뗀 조선이었다.

모임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청사뒤마당에 꾸러놓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었다. 전시회장에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각종 기계들과 제품들이 수백점 진렬되어 있었다. 파괴된 선반기를 재생하여 진렬해놓은것이 있는가 하면 각종 지구들과 절삭공구들도 있었으며 한창 천생산을 벌리고있는 개량된 직기들과 농기계들도 진렬되어 있었다.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건국의 열망으로 들끓고있는 벅찬 숨결을 한순간에 느끼게 할수 있는 광경이었다.

수령님께서 만족한 기분으로 진렬품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 첫번째 칸을 지나 두번째, 세번째 칸으로 넘어서실 때였다. 진렬장입구의 오른쪽 진렬대에 회백색 뽕끼칠을 한 장독만한 열구기관이 한대 눈에 띄이시여 걸음을 멈추시었다. 비록 결모양은 투박하고 도장색갈도 곱지 않았지만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로 만들어낸 열구기관이라는데 주의가 가시었다.

《이걸 어디서 만들었소?》

수령님께서 물으셨다.

《원산조선소에서 만들었습니다.》

뒤따르던 일행중에서 산업국장이 한걸음 나서며 대답올렸다.

《원산조선소에서?》

《예.》

《설계자는 누구요?》

《문용히동무입니다.》

《문용히?》

그제서야 산업국장뒤에서 문용히가 얼굴을 붉히며 꾸벅 인사를 올렸다.

《동무였구만!》

수령님께서 반가워하시었다.

려객선 《오승호》를 만들었을 때 신심에 넘쳐있던 그의 모습이 불현듯 상기되시었다. 열정있고 재간있는 동무였다.

《어떻게 이런걸 다 만들 생각을 했소? 이 기관이 몇마력이나 나가오?》

《15마력입니다.》

《이런걸 몇개 놓으면 더 큰배도 만들수 있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더 많은 배를 만들자면 아무래도 자체로 기관을 만들어내야겠기에 로동자동무들과 힘을 합쳐 끝내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에 쓸 기관은 저희들이 말아 생산해내겠습니다.》

문용히는 여전히 신심에 넘쳐있었다.

담도 크고 배짱도 마음에 드시었다. 훌륭한 기술에다 담과 배짱까지 지니고있으니 장차 그는 더 큰 직무를 맡긴대도 능히 수행해낼것 같으시었다. 지금은 동서해에 널려있는 조선소들이 자그마한 목선을 만드는것을 위주로 하고있지만 앞으로는 철선도 무어야 하고 대형선박이며 나라를 지킬 함정들도 건조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처럼 산업국에 한두명의 조선소담당지도원이나 두 고서는 전망적인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수 없다. 최소한 적어도 선박관리처쯤은 나와야 한다.

수령님께서 그때가 오면 문용히를 선박관리처장으로 임명해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좋소. 기관만 있으면 배를 얼마든지 만들수 있소. 앞으로는 이 열구기관의 마력을 더 높여 고기배는 물론 려객선들과 짐배들에도 설치해야겠소. 우리가 지금 방대한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사실 이 과제를 수행하자면 험치 않소. 하지만 우리 인민들이 이 동무들처럼 모두가 달라붙어 이악하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다고 보오.》

문동무, 우선 동무에게 감사를 드리오. 그리고 동무와 함께 일한 원산조선소로동계급들에게도 내가 감사를 주었다는걸 전해주오.》

《장군님!》

그랬던 문용히였다.

그때로부터 지난 1년반동안 그는 동서해 조선소들의 생산활동을 맡아보며 많은 배를 무어내고 지금은 남포조선소에서 450톤급의 철선건조전투를 벌려놓고 사흘이 멀다하게 현지로 드나들며 전투를 총지휘하고있었다.

그런데 동해에서 지난달에 수출한 부선들이 바다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되어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고 무역상대국과의 관계를 흐려놓을수 있는 엄중한 결과가 빚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아프신것은 한창 푸른 꿈을 안고 새 조국건설을 위해 보람찬 삶의 첫걸음을 내디디였던 한 젊은 기술자의 가슴에 찬서리를 내리며 기를 꺾어놓게 될 피로움과 우려였다.

(문용히동무가 어찌다가 그런 실책을 저질렀을까?)

×

김책이 도착하였다. 뒤이어 소련군사령관이 자
기들의 검수일군 두명과 통역을 데리고 수령님을
찾아왔다. 수령님께서서는 손님들을 평소나 다름
없이 반갑게 맞아주며 자리를 권하시였다. 손님
들은 그이의 권유에 따라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
았다. 그러긴 했어도 얼굴색은 밝지 못하였다. 국
가간의 무역거래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으
니 그 책임한계를 가르자면 결코 좋은 인상으로
만 마주 앉을수 없을것이였다. 그리고보면 손님
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김책이도 딱한 곤경에 처한듯 공연히
헛기침만 짓으며 송구스레 서있었다.

《이번에 예상치 않았던 불미스런 일이 생겨 참
안되었습니다. 곧 우리의 해당부문 일군들도 도
착하겠는데 그 동무들이 오면 같이 토론해봅시
다.》

수령님께서서는 좌중을 둘러보며 먼저 말꼭지를
떼시였다.

《예.》 하고 소련군사령관이 상반신을 약간 숙
여보이며 응수했다.

《우리도 이런 일로 김일성동지를 찾아뵙게 되
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시다. 하지만 사고가
하도 엄중한것이어서 김일성동지께 사건의 진상
을 통보해드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파묵하고 침착한 이 소련군사령
관을 잘 알고계시였다. 대일작전을 앞두고서도
자주 교제가 있었지만 조국에 개입한 이후 그와
의 접촉은 더욱 잦아졌고 우정도 깊어지였다. 그
는 가식이 없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때로는 수령
님덕에 와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였고 자기 정
부에 좋은 의견을 제기하여 새 조국건설에 일떠
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도록 하는데 큰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은 좋지 않은 문제를 안고
찾아왔으니 그도 이번 걸음이 즐거울수는 없을것
이었다.

부관이 조심스레 들어와 산업국동무들이 도착
하였다고 그에게 보고드렸다.

《들어보내시오.》

좌중에 앉은 사람들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윽고 부관이 나간 출입문으로 산업국장 리동
수와 지도원 문용히가 방안에 들어섰다. 그들은
방안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자 당장 낯빛이 캄
캄하게 질려 눈둘 곳을 몰라 허둥거렸다. 인사도
변변히 못하였다. 뒤에 선 문용히는 다리마저
후들후들 떠는듯싶었다.

사실 이때 문용히는 제 정신이 아니였다. 변명
할길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자기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였다.

《장군님, 산업국에서는...》

산업국장이 보고를 하려 하자 수령님께서서는 손

을 들어 제지하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리 와 앉으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산업국장과 문용히는 두
세번 거듭 권해서야 벽앞의 맨끝 결상에 조심스
레 걸터앉았다. 그때 보니 문용히의 머리칼이 거
푸수수해지고 살쾅도 몹시 깎이였다. 그동안 남
포조선소에 나가 새 철선을 못느라 노상 현장에
불박혀있었다더니 무리한듯싶었다. 그런데다 엄
청난 사고를 내는 큰 죄를 지어서인지 피기라고
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얼굴을 수그리고 두손
을 무릎위에 올려놓았는데 어디서 상했는지 손가
락에는 두군데나 봉대가 처매져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이 가슴아프시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문용히의 잘못으
로 저질러진듯싶었다.

자리가 정돈되자 소련측 검수원 한명이 일어났
다. 통역이 그의 말을 번역하였다.

《이번에 소련측은 원산조선소에서 무은 예선과
부선 50척을 인수받아 호송해가던중 물이 새어
25척이 바다에 가라앉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원인은 배를 인수해가면서 소련의 해당부문
일군들이 세밀하게 접수하지 못한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책임은 수밀을 보장해야 할 진극제
의 질이 좋지 못한데다가 배를 무어놓고 장시간
땅우에 그냥 놔두데 있습니다.》

검수일군은 진극제의 질상태여 배를 무어놓고
방치해둔 날자까지 쏘아가며 그동안 료해한 자료
들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사령관은 두툽한 입술을 꼭 다물고 말도 없이
앉아있었다. 우묵히 패워진 깊은 눈확속의 재빛
눈에도 음울한 빛이 내비치고있었다.

김책의 낯빛도 점점 어두워졌다.

소련측 검수일군의 보고는 어느 하나도 부정하
거나 론박할 여지가 없는 과학적인 자료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신중한 기색으로 그 보고를 들으
시다가 문득 문용히를 건너다보시였다.

《문동무, 왜 그렇게 됐소? 어디 말해보오.》

《잘못했습니다.》

문용히는 간신히 일어나 목안의 소리로 중얼거
렸다. 아무런 변명도 없었다.

《동무는 그렇게 하면 배가 가라앉으리란걸 물
랐소?》

《...》

문용히는 고개를 떨군채 대답을 못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김책이 들고온 자료를 다시금 더
들어보시였다. 사실 진극제를 대용품으로 쓰게
된것은 일체가 망하면서 일본 본토에서 실어오던
원료가 단절된데 있었다. 그런데다 배를 무어놓
은 다음 밖에 그냥 두어 해빛에 진극제가 마르면
서 이음짬에 균열이 생겨 이런 재난을 빚어낸것
이었다. 배무이경험이 어린 문용히로서는 충분히
저지룰수 있는 사고였다. 결국 모르고 저지른

실책이었다. 죄지은 문용히는 자포자기에 빠진듯 절망한 빛으로 오직 처분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산업국장도 낮빛이 흙빛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방안엔 긴장한 분위기가 흐르고있었다.

《앞으시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저지른 파오는 더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으시었다. 부인할수 없는 이 사실앞에서 그이께서는 마음이 무거우시었다. 김책이도 속이 답답해지는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령관만이 더 음울해진 엄한 눈으로 문용히를 묵묵히 지켜보고있었다.

《앞으로는 배를 잘 만들수 있겠소?》

이윽해서야 수령님께서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그 어조에는 지은 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단죄하려는것보다는 무엇인가 아파하고 피로와 하며 너그럽게 용서해주려는 부드러운 마음이 느껴지고있었다. 거기에 힘을 얻은 산업국장이 벌떡 일어나

《장군님, 앞으로는 잘 만들겠습니다.》 라고 목멘 소리로 대답올렸다.

용서를 바라는 간절한 음성이었다.

그러자 수령님과 마주앉았던 사령관이 놀란 표정을 짓고 그이를 바라보았다. 우묵한 눈확속의 재빛눈에는 의혹의 빛이 번뜩였다. 《김일성동지, 원산조선소에서 배를 인수해간 우리 인수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를 쏘련으로 들여보내면서 정부에 엄한 법적처벌을 줄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네 인수원을 처벌하였으니 조선에서도 마땅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종의 권고였다.

순간 수령님의 안광에서 번개불과 같은 푸른빛이 번쩍이시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

《생각해보시오.》

수령님께서는 아연해서 굳어져있는 사령관을 향해 말씀하시었다.

《물론 저지른 사고는 엄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네처럼 처벌을 줄수 없습니다. 당신네는 발전된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기술자가 귀중한 이때 배라는것을 만들어 보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기술자들이 처음 무어 수출한 배인데 일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처벌부터 준다면 그들이 기가 꺾여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것은 우리가 무엇때문에 20여년간 산에서 총을 잡고 조국해방을 위해 싸워왔는가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왜놈들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내 겨레, 내 인민들을 식민지 노예의 멍에에서 해방하여 그들모두를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벌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깨우쳐주어 이 동무들이 새 조국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떠밀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을 울리는듯 한 인간옹호의 위대한 선언이시었다. 바다같은 포용력, 마디마디 넘쳐나는 뜨거운 인간애가 어린 수령님의 말씀에 자못 근엄한 표정을 짓고있던 사령관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물결쳐갔다. 그는 공민전쟁과 쏘도전쟁의 수만리 포화속을 헤쳐온 명장이었다. 거기서 흘린 피와 죽음, 넘어온 사선의 고비의 의미가 이 순간 수령님의 몇마디 말씀속에 집약적으로 응축되어있는듯싶어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그는 감심하여 성급히 《다다(예, 예)》 하더니 《웁습니다. 김일성동지! 저는 미처 조선의 현실정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일성동지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쏘련군검수일군들의 얼굴에도 감동의 빛이 흐르고있었다. 김책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이를 뜨겁게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웨치고있었다.

(내 장군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모셔오면서도 나는 몰랐구나!)

그는 아까 수령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똑똑한 대답을 드리지 못한것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어찌하여 자기는 사나운 비바람속에 서있는 애 어린 짝을 보호하고 키워줄 생각은 못하고 대외적관계만을 우선시하려 했던것인가.

산업국장의 눈귀에도 물기가 펴고여올랐다.

당당하고도 단호한 수령님의 주장에 눈물이 콧속은 벽찬 희열에 휩싸였다. 그것은 문용히도 뜨겁게 받아안은 감동이였다. 땀땀히 긴장되였던 분위기가 삼시에 가셔지며 화기애애한 공기로 바뀌는것을 보고 그는 자기의 운명에 절망이 아니라 재생의 광휘로운 해발이 비쳐오고있음을 느끼고있었다.

그때 수령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다가오시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거요. 그렇지만 두번다시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되겠소.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잘사는 나라를 건설할수 없소. 그렇다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되요. 앞으로 채심해서 일을 더 잘해야겠소. 가서 일을 잘하시오.》

그이께서는 산업국장과 문용히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장군님!》

분명 자기들을 용서해준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문용히는 그이의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였다. 걱정으로 하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언

제인이 산업국장이 차렷하고 소리치자 곳곳이 굳어져 몸둘바를 몰라하던 문용히였다. 그랬던 문용히가 압록강연안일대의 인민들에게 보내줄 러객선을 무어가지고 와서는 배의 이름을 지어달라며 앞으로 더 큰 배도 무을수 있다고 신심넘쳐 장담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배무이에 없어서는 안될 15마력 열구기관을 자체로 생산하여 전국공업전시회장에 진렬시켜놓았다. 참으로 재간있고 열정적인 일군이였다.

이제 문용히는 날개돋힌 날새마냥 신심넘쳐 창공높이 훨훨 날아오를것이다.

《됐소. 그만하오!》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달래이자 사령관이 일어나 그들앞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였다.

《동무들은 행복한 기술자들이요! 나도 오늘 혁명하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가싶소. 김일성 동지의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마오.》

그걸 보며 김책이도 처음으로 빙긋이 웃고있었다.

산업국장과 문용히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게 개여있었다. 아직 2월이지만 파란

하늘에는 봄서기가 비껴있는듯 하였다. 23살, 이날 이때까지 문용히는 저 푸른 하늘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그것이 이렇게도 푸르고 정다운것인지 일찌기 알지 못하였다. 아! 하고 그는 소리라도 지르고싶었다.

《국장동지, 저 하늘이 왜 저렇게도 푸를가요?》

《우리 장군님 같은신분은 세상에 없소.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소. 난 이제야 내 인생의 새봄을 맞는것 같소!》

문용히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전혀 동당지 않은 말이였지만 그는 국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문용히는 끝내 450톤급의 철선을 무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렸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몸소 남포조선소에 나오시여 배의 이름을 《신흥호》라 지어주시고 그들의 로력적 성과도 열렬히 축하해주시였다. 백두산3대장군을 한자리에 모시고 성대한 진수식을 거행하였던 력사적인 이날을 문용히는 일생 잊지 못한다. 그날은 1948년 6월 23일. 우리 나라 선박공업의 새 력사가 펼쳐진 뜻깊은 날이였다.

우리 수령님 이야기

박경심

그 어디를 가나
조국땅 그 어디를 가나
내 듣게 되더라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우신분
우리 아버지, 우리 수령님 이야기

저 멀리 두만강기술
철산봉마루에 올라도
수천석 지하막장 한끝에 가도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는
수령님 은정의 이야기

그래서 처음 가보는 낯선 고장도
수령님 이야기로 정이 들더라
처음 만나보는 낯선 사람들도
수령님 이야기를 나누며
형제처럼 가까워지더라
혈육처럼 화목해지더라

이 땅이 넓고 넓도록
인민이 사는 곳이면
천리길도 지척인듯 찾아가신분
인민이 사는 곳이면 다 찾아가시여
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분

때로는 아이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때로는 병사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락아소라 학교라 하늘과 땅 바다초소라
길이 험해 우리 수령님 아니 가신 곳 있던가
눈비 온다 우리 아버지 쉬여가신적 있던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이야기
가장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가장 시련에 찬 투쟁과 창조의 이야기
가장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이야기
우리는
수령님의 력사에서 듣고 새기나니

아버지의 그 한생
20세기 추억만이 아니여라
21세기에도 천만년후에도
그 생애의 빛나는 자욱자욱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조선을 떠받들어주려니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노래의 보물고, 우리 노래의 시작이여라
김일성민족의 정신에
불멸의 아름다움을 주고
불굴의 억세임을 주고
불변의 위대함을 주는
후손만대의 영원한 유산이여라
아 우리 아버지, 아 우리 수령님 이야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주체문학의 위대한 창시자

김선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창건60돐과 조국해방6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93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 우리 작가들의 가슴속에는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열의가 끓어치고있다.

새기면 새길수록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면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15성상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우리 수령님.

해방후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

참으로 우리 수령님 쌓아올리신 그 업적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이 위대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주체의 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업적은 인류문화사에 특기할 문화적재부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문학예술의 사명과 역할, 창작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을 창시하시였으며 친히 혁명연극과 혁명가극, 혁명가요들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주체적인 혁명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령도를 받으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혁명적문학을 창조하는 과정에 마련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창조의 합법칙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주체문학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시대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필하시여 주체문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

상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활을 그린 참다운 문학예술, 주체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각이한 형태, 각이한 양상으로 수많은 친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작품들로서는 첫째로, 사람들이 준엄한 생활을 통하여 혁명을 인식하고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린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같은 정극적인 작품들이 있으며 둘째로, 혁명의 원수들과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을 신랄하게 조소하고 풍자하면서 그들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심오하게 밝히고 혁명투쟁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힘있게 형상한 《성황당》, 《경축대회》, 민족주의자들의 파벌싸움을 풍자한 《3인1당》 등 희극적인 작품들이 있으며 셋째로, 《팔에게서 온 편지》를 비롯하여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이 결합된 작품들도 있다.

그리고 《단심줄》과 같은 가무형식의 작품들과 《반일전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토벌가>》, 《피바다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시가들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사회발전과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높은 경지에서 그려냄으로써 자기 운명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대중자신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을 떠미는 힘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활동에 있다는 진리를 밝히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는 문학뿐만아니하여 연극과 가극, 음악과 무용 등 문학예술의 거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이 포괄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고밀림의 깊은 밤 천지를 삼킬듯 한 눈보라속에서도 우동불가에서도 혈전의 수만리길을 헤쳐나가는 행군길에서도 항일의 혁명문학예술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친필활동에 의하여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을 가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창작됨으로써 실로 우리 나라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었고 인류문예사상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적문학예술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다음으로 사실주의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우리 식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창작방법,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창조하시여 주체문학의 찬란한 력사를 펼쳐놓으시였다.

시대의 산물이며 세계관에 의하여 규제되는 창작방법은 문학예술의 성격과 사상에술적특성을 규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시기는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였으며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투쟁을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게 원만히 형상할수 있는 창작방법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 시기에 벌써 자주시대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력사의 새시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세계관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실주의는 지난날의 모든 사실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성격과 체모를 갖추고있는 사실주의이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는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창작된 본보기작품이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명작이 취급하고있는 반일렬사 리준의 애국적장거는 실재한 력사적사실이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는 주체사실주의에 의거하여 창작하였기때문에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사상적내용을 작품의 중심에 제기고 리준의 애국적장거를 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다 깊이있고 심오하게 형상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의 작품창작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였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새롭게 창조발전시키므로써 주체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신것은 세계혁명적문학예술에 불멸의 본보기를 마련한 참으로 만대에 길이 빛날 인류문예사적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한 새형의 혁명적문학창조의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므로써 주체문학의 광활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주체적립장에서 개척하여나가는 길에서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예학설로서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대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예학설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구현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의 성격과 특성, 사명과 임무를 심오하게 밝히고 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방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해명해주고있다.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는 주체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 민

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문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문제 등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외에도 인간형상과 생활묘사에 대한 리론, 예술적갈등에 관한 리론을 비롯한 창작원리들과 혁명연극, 혁명가극, 혁명소설, 혁명가요, 혁명음악 등 다양한 문학예술종류와 형태에 관한 리론, 대개 문학예술형태의 묘사방식에서의 특성과 요구, 형상수단과 수법 등에 대한 리론 등 실천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과 역할, 창작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을 비롯하여 창작원리와 형상방법, 그리고 형태별리론 등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참으로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은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함으로써 인류문예사상의 최고봉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새롭게 창시하신 주체문학은 력사의 년대와 년대를 넘어오면서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문학은 해방후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삶의 보람, 제반민주개혁으로 들끓는 벽한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세계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영웅적투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투적인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문학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조국의 부강번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비롯하여 시대가 제기하고 현실이 요구하는 다양한 주체의 작품들을 수많은 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시대가 낳은 새형의 인간전형들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문학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볼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철저히 계승하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더욱 완성하시였으며 우리 문학을 주체의 문학으로 힘있게 발전시키시였다.

이 과정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심오하게 형상한 총서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령형상문학과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 위대한 현실을 깊이있게 반영한 시대의 명작들이 훌륭하게 창작되였다.

오늘 우리 문학은 위대한 선군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가는

격동적인 현실을 반영하면서 선군혁명문학으로 더욱 줄기차게 발전하고있다.

선군령장의 불멸의 업적과 그 위대한 품모를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하면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는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과 선군령장의 위대성을 노래한 시가작품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선군시대인간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는 소설문학과 극문학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달성한 사상예술적성과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주체문학의 역사적 뿌리와 잇닿아있다.

참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혁명문학의 새 역사를 마련해주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중의 하나이다.

주체문학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선군혁명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문학예술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때 우리 문학은 변함없이 주체문학으로 빛을 뿌리게 될것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선군혁명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문학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어나가는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들이 창작하는 모든 작품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정서, 미학관이 철저히 구현되게 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 문학에서 기본의 기본으로 되는 수령형상창조에 계속 큰힘을 넣어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수령 형상문학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위력,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벌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창작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선군혁명문학을 더욱 훌륭히 꽃피워나감으로써 주체문학의 위대한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영생축원의 꽃바다

문동식

4월은

인류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
이 세상에 화창한 봄을 주신 4월은
산에도 들에도 언덕과 거리에도
온갖 꽃들이 활짝 피는 꽃계절

이른새벽 별방의 농장마을
파릇파릇 움터나는 령상모를 보시려
우리 수령님 조용히 떠나가시던
수도의 금수산 언덕길에도
꽃구름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봄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수령님 찾아가신 새 공장 구내길
그 굽이굽이에도
이 봄날 꽃들이 곱게 피어나
향기를 한껏 풍겨줍니다

황금산 보물산을 꾸려주시려
찬이슬에 옷자락 적시시며
수령님 헤치시던 그 오솔길에도
울긋불긋 꽃들이 만발한 이 4월

우리 수령님의 사랑의 발자욱
새겨진 곳이면 그 어디에나
꽃들이 피고피여 꽃물결 설레이니
진정 말못하는 산천도
쌓이고쌓인 그리움을 내뿜어

이 봄에도 꽃바다를 펼쳤습니다

후더운 흙을 손에 쥐어보면
인민에게 주시는 수령님의 은덕이
천층만층 고이고 쌓여
뜨겁고 순결한 그 정에 뿌리내려
피어나는 꽃송이 억만 꽃송이

4월의 태양절 이 날이 오면
조선은 어데가나 꽃바다입니다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에나
찾고 찾으시던 어버이수령님
그이 품에 해해년년 꽃피나는
인민의 행복한 얼굴입니다

4월의 꽃바다속에 우리 수령님
해와 달이 다하도록 계시웁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소망
이 나라 강산에 가득 덮이여
꽃바다 꽃물결로 끝없이 설레나니

오, 주체의 태양이 되시여
길이길이 봄빛만을 주시는 수령님
수령님 해빛속에 조선은 영원히
영생축원의 꽃바다입니다
그 흙모와 충성의 대하속에
어버이수령님은
영원무궁토록 영생하십니다

철새로도 묵지 못한 《김일성장군의 노래》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태양의 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뵈을 때면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보곤 한다.

그러느라면 나의 눈앞에는 감옥에서 처음 만났던 남녘의 한 노동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그의 이름도 모른다. 하지만 숯불마냥 타오르던 그의 눈빛과 피로하며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에 넘쳐, 궁지에 넘쳐 목청껏 부르던 그 노래소리를 나는 영원히 잊을수가 없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위대한 수령님 앞에 함께 서있다.

《위대한 수령님! 저의 인사와 함께 먼저 간 그 노동자의 인사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행복에 넘쳐 두볼을 타고 흐르는 저의 눈물속에는 그의 눈물도 함께 흐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만민을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따르고 우러르는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녕 우리 수령님은 태양에만 비길수 있는 만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고 은인이시다.

나에게는 그 진리를 생활적으로 확인한 감동깊은 체험이 있다.

주체63(1974)년이였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자의 《지령》에 따라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전향공작이 미친듯이 감행되고있었다.

어느날 나는 또다시 놈들에게 끌려워나갔다.

전향공작전담반 상담실(그 방은 고문실이었다.)에 들어서니 군인출신이라는 교회사(전향공작을 담당한 사복직원)가 낯모를 한 수감자를 심문하고있었다.

나는 더부룩한 머리에 푸른 옷을 입은 수감자의 모습을 유심히 눈여겨보았다. 감옥에서 머리를 기를수 있는 수감자는 오직 미결수(재판중에 있는 수감자)뿐이다.

그가 짝이 맞지 않는 검은 고무신을 신고있는 것을 보니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는것이 대뜸 알렸다. 돈있는 미결수인 경우에는 제 돈으로 조선옷도 구입하여 입을수 있었고 흰 고무신도 사신올수 있었다.

남조선의 감옥들은 돈에 의하여 모든것이 지배되는 자본주의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다.

아무리 죄가 가볍다 하더라도 돈없는 사람이라면 옥설과 매질, 모욕이 그칠새 없이 뒤따르지만 눈부시게 흰 조선옷을 입고 일류급의 고급내의를 걸친 사람이라면 설사 그가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간수들이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며 굽신거린다.

그래야 감옥밖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사례금이라도 받아칠수 있기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수감자들은 집과 땅을 팔아 돈있는 부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것은 그 수감자의 태도였다.

비록 외형은 초라해보였지만 교회사에게 거침없이 반발해나섰다.

교회사를 겨누고있는 그 눈빛만 보아도 여간내가 아닌 청년임이 분명했다.

교회사놈은 옆에서 지켜보는 나에게 본래라도 보여줄 심산이었던지 《이 자식, 노동자인 주제에 건방져.》하며 청년의 뺨을 부리나케 후려갈겼다. 그러자 청년도 맞받아 일어서며 소리치는것이였다.

《무엇때문에 때려.》

청년의 톡톡치 않은 기상에 기가 질린 교회사놈은 주먹깨나 쓰는 전담반 고문기술자들인 폭력배수감자 두놈을 불러들였다. 분위기는 험악하게 번져갔다.

얼마후 교회사놈은 책상서랍에서 사진 몇장을 꺼내놓았다. 맑스와 레닌, 스탈린과 모택동 그리고 위싱턴이며 처칠, 리승만, 박정희의 사진들이였다. 놈은 청년에게 사진들을 가리키며 누구들인지 아는가고 능청스럽게 물었다.

청년은 덤덤히 사진들을 내려다볼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교회사놈은 좀 부드러워진 어조로 다시금 물었다.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도 청년은 여전히 입을 다문채 응답이 없었다. 청년의 침묵앞에서 놈은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 너는 북쪽에도 가본 일이 없는데 왜 북을 찬양해서 《반공법》 위반자로 구속되었는가고 질문을 던지였다.

나는 그제서야 그 청년이 이른바 《반공법》 위반자로 불려왔다는것을 알았다.

법률상 감옥에서 판결받지 않은 미결수감자는 무죄가 원칙이다.

그런데 전향공작전담반 교회사놈들은 전향실적을 올려 승진하거나 상금을 타려고 우리같은 비전향장기수는 물론이고 《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는 미결수감자에게도 전향을 강요하고있었다.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청년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겪을 고초보다도 그 청년이 당할 곤욕과 악행에 더 마음이 씩여졌던것이다.

그런데 다음 순간 청년은 교회사놈을 향해 버쩍 머리를 치켜들며 당당하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내가 8살때 직접 본 사실을 말했을뿐인데 북조선을 찬양했다면서 <반공법> 위반자로 몰아붙이니 이게 과연 량심있는 처사인가?》

너무나도 드세게 들이대는 청년의 항변에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던 교회사놈은 이윽고 다소 주눅이 든 어조로 직접 보았다는 사실이라는게 대체 어떤건가고 청년에게 되물었다. 하지만 청년은 당신같은 작자와는 말하기도 싫다며 머리를 돌려버렸다. 아무리 캐물어도 묵묵부답으로 항거하는 청년앞에 교회사놈은 안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자기는 정복입은 사람이 아니니 경찰관과는 다르다며 제법 자세를 낮추고 기여들었다.

그러는 놈을 묵묵히 노려보던 청년은 《그러면 내말을 듣고 사나이답게 량심적으로 판단하라.》하고 오금을 박더니 어렸을 때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주체39(1950)년 7월 중순경 인민군대의 진격에 밀리워 패주하던 놈들이 그가 살고있던 부락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때 시골에서는 봄에 타작한 보리를 길에 널어서 말리고있었는데 퇴각하던 놈들은 한창 말리우는 보리를 그대로 짓밟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무지막지한 군화발들에 사정없이 짓밟히우는 보리를 보다못해 부락사람들이 항의해나서자 놈들은 《전시에 길에다 보리를 말리면서 군사작전을 방해하는가? 다 총살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총을 휘둘러대었다는 것이다.

놈들이 공포까지 쏘아대며 날뛰는 바람에 마을은 수라장이 되고 부락사람들은 황급히 산으로 도망가고말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큰길쪽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소리에 밖을 내다보던 마을사람들은 뜻밖의 광경앞에 그만 굳어지고말았다.

난생처음 보는 군인들이 마을을 지나가고있었는데 그들은 보리를 널어놓은 평탄한 큰길을 에돌아 미끈거리는 눈독질을 따라 행군하였다.

부락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제 보리를 마구 짓밟으며 패주하던 놈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무자비한 싸움판에 뛰여든 군인들이 경각을 다루는 정황속에서도 시골농민들의 농량걱정을 앞세우다니 세상에 이런 군대도 있던 말인가.

고마운 그 군대가 다름아닌 북에서 온 인민군대라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을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 《인민군대 만세!》의 환호성을 터뜨리며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날의 광경은 8살 소년의 자그마한 가슴속에 소중한 자리잡았다. 한니 《시골무지렁이》로 버림받던 고향사람들에게 평생 처음 사람대접을 해준 그 고마움을 잊을수 없어, 인민군인들의 진실한 그 마음을 잊을수가 없어 청년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릴적에 자기가 본 인민군대의 모습을 조용조용 들려주곤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말이 경찰의 귀에 들어가 이렇듯 《반공법》 위반자로 몰려 끌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청년의 말을 듣고난 교회사님은 입가에 알미운 미소를 띠우며 빈정거렸다.

그러자 청년은 백성을 우선 생각하는 량심적인 사람이 《빨갱이》라면 《빨갱이》 아닌 사람은 량심도 없는 나쁜 사람 아닌가, 8살때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뿐이라고 하였다.

교회사님은 독사같은 눈초리를 번쩍이며 고함쳤다.

《세계명인들도 가려 못보는 무식쟁이가 뭘 안다구 함부로 지껄여.》

교회사님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청년에게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다.

《그래 네놈은 아버지를 존경하는가?》

얼핏 보기에는 소경 막대기를 휘두르듯 항방없이 던져보는 질문같았으나 사실 그 리면에는 어떻게 하나 미결수감자의 본심을 떠보고 《전향》으로 유도하려는 교활한 계교가 깔려있다는것을 나는 어렵지 않게 간파했다.

하지만 청년은 교회사님의 그런 속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이없어하는 눈길로 놈을 바라보다가 통명스럽게 반문하였다.

《그럼 넌 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느냐?》

그러자 놈은 기다렸다는듯 대뜸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하더니 조상에게서 많은 땅을 물려받은 덕분에 왜정때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검사장을 해먹는다는 애비의 공덕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교회사님의 애비자랑은 청년에게 신통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것 같았다. 렬등감으로 하여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개나 돼지를 대하는듯 한 덩덤한 표정이 청년의 얼굴에 렬력히 떠돌고있었다.

한참동안 지껄이는 놈의 소리를 마지막까지 듣고난 청년은 랑소를 머금으며 천천히 화제를 넘겨받았다.

《듣고보니 과연 아들이 <존경> 할만한 아버지군. 벼슬이 높아 존경하고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존경하고... 그런데 난 아버지에게서 땅 한뼉기 물려받은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청년의 아버지는 평생 지주의 땅에서 소작을 부쳐온 가난한 농군이였다고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날이 새기 전부터 어둠이 깃들 때까지 아버지는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였다.

아버지가 흘린 땀만큼 곡식은 자라고 열매는 무르익었지만 소작료와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나면 봄에 보리고개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남을 속이고 등쳐먹으며 치부하는자들을 언제 한번 부러워한적이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땅과 같이 진실하고 거짓을 몰라야 한다는것이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외운 말이었다는 것이다.

집살림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문턱도 넘여보지 못한 청년은 건설장에서 일하면서 교생이란 고생, 수모란 수모는 다 받아왔다. 어느덧 나이가 서른이 지났건만 가난한 청년에게 시집오겠다는 처녀도 없었다. 아니, 설사 그런 처녀가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한몸에 들썩워진 수난을 저 혼자 감당하려는 청년의 대같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청년은 언젠가 한번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님들을 원망한적이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자식에게 인간의 참된 량심을 심어준 부모님들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청년은 굳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대학졸업생이라고 자처하는 교회사의 빈껍데기 《인생철학》에 비해볼 때 비록 대학은 졸업 못했어도 인간의 참된 면모를 간직하고있는 청년의 꾸밈없는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인간의 높이는 재부나 권력의 높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때 다시금 절절히 느꼈다.

건방진 조소를 머금고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난 교회사님은 별수 없는 놈이라는듯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금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었다.

《그래 아버지외에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놈이 청년에게 두번째로 하는 질문이었다. 정말 끈덕진 놈이었다. 어떻게 해서나 청년의 본심을 드러내보자는 심산같았다.

청년이 입을 다물고 아무 대꾸도 않자 놈은 자기쪽에서 먼저 소견을 내놓았다.

《이봐, 난 말이야. 조지 워싱턴대통령을 제일로 존경해. 너 그가 누군지 알아? 미국건국의 아버지란 말이야.》

이렇게 떠벌이는 교회사님의 얼굴에는 제법 희떠운 빛이 떠돌고있었다.

그런데 다음순간 청년이 터뜨리는 폭소가 온 방안을 들끓게놓았다.

《하하하... 제 나라에 그렇게도 인물이 없어 하필 미국사람을 떠받든단 말이나?》

《뭣이?...》

교회사님의 낯빛은 금시 수수땀이 되어버렸다. 놈은 성급하게 청년에게 다우쳐물었다.

《그러니 너는 우리 나라 사람인 리승만박사를 존경한다는건가?》

순간 청년의 두눈에서 시퍼런 섬광이 번뜩이는 듯싶었다. 분명 그것은 분노와 조소, 경멸의 섬광이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거센 숨만 몰아쉬던 청년은 이윽고 교회사들을 향해 마디마디 그루를 박아 대답하였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분은 **김일성** 장군님이시다!》

청년의 목소리는 나직하나 힘있고 태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하늘을 구르는 천둥소리마냥 온방안을 뒤흔드는듯싶었다.

《누... 누구라구?》

벼락이라도 맞은듯 어리벙벙해서 청년에게 되묻는 교회사들의 목소리.

그들은 높에게 더 크게, 더 당당하게 대답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나의 고막을 세차게 두드렸다.

《**김일성** 장군님이시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놀란것은 비단 놈들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와는 달리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졌다.

인생의 막바지에서 버려지처럼 천대받아온 청년, 통치자들에게 마구 부리우다 도살당해도 무방한 마소와도 같은 대접을 받아온 저 청년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터져나오다니.

그것은 그대로 폭탄이었다. 민족을 우롱하고 백성들을 도탄속에 빠뜨린 남조선통치배들의 머리에 내린 벼락이었고 철추였다.

(장하다, 청년이여! 너는 과시 민족의 참된 아들이로구나.)

나는 청년에게 뜨거운 격려의 눈길을 보냈다. 사색이 되어 얼빠진 놈마냥 멍청해있던 교회사들은 한참만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온듯 입에 게거품을 물고 씨벌어댔다.

《너 이 새끼, 그저 <용공분자>인줄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보니 악질<빨갱이>로구나!》

뒤이어 지켜서있던 폭력배들이 굶주린 이리마냥 달려들었다. 놈들은 청년을 사정없이 매질하더니 쓰러진 청년을 결박하여 콩크리트바닥에 앉혔다.

교회사들이 피발이 선 눈길로 청년을 노려보며 씹어 빨듯 뇌까렸다.

《그렇다면 네가 존경하는 이유를 한번 말해봐.》

청년은 피호르는 이마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자부심에 불타는 초연한 모습이였다.

《그래, 그럼 똑똑히 들어두어라.》

청년은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더니 뜻밖에도 큰소리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아, 그것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노래,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였다. 가슴이 달아왔다. 뜨거운것이 억누를수 없는 격정으로 눈곱에 그들먹이 교여왔다.

1절을 다 부르고난 청년은 놈들을 향해 궁지높이 선언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김일성** 장군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유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원썬놈들은 피를 물고 청년에게 달려들었다.

《이 새끼, 빨갱이중에서도 상악질빨갱이로구나!》

무자비한 발길질과 주먹질, 그리고 몽둥이질이 청년의 온몸에 우박처럼 날아들었다. 청년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다. 놈들은 쓰러진 청년을 또다시 일으켜앉혔다.

《다시 묻는다,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 장군님이시다!》

《그 이유는?》

놈들은 다시금 몽둥이질을 하며 악청을 뽑았다.

청년은 피범벅이 된 얼굴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그러더니 혼신의 힘을 다 모아 또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

그칠새없는 매질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부르던 청년의 노래소리는 그만 여기서 푹 끊어지고 말았다. 무지막지한 놈들의 몽둥이질이 마침내 청년을 쓰러뜨리고만것이다. 하지만 노래소리는 그대로 이어져 방안에 울려 퍼졌다.

...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그것은 청년의 뒤를 이어 내가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놈들의 매질은 나에게도 날아들었지만 나는 노래를 마지막까지 다 부르고서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후 정신을 차리고보니 청년은 그 자리에 없었다. 놈들은 끝끝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던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소멸할수 있어도 노래는 소멸할수 없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태양찬가를, 가장 열렬한 신념의 찬가를 과연 그 무엇으로 막을수 있단 말인가.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름 없는 한 청년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대구감옥에서 전설처럼 전해오고있다.

나 역시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원썬들의 악형과 회유에 시달릴 때면 마음속으로 그 청년과 함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신념을 가다듬곤 하였다. 지금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국가행사나 또는 비전향장기수예술소품공연에서 영생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를 때면 더벅더벅 그 청년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그리고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목청을 다해 부르던 청년의 그 노래소리가 귀전에 들려온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혁명전사는 자기수령을 지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절절히 깨우쳐주며 뜨겁게 메아리쳐온다.

선군혁명총진군대회의 선언

-선군혁명총진군 대회장에서-

김만영

이 행성의 그 어느곳에서도 볼수 없는
가장 뜨거운 숨결이 여기에 흐르고있다
이 지구의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숭엄한 공기가 여기에 흐르고있다

문노니
어찌하여 여기 대회장이
일찌기 본적없는 걱정의 열기로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는것인가
어찌하여 우리의 가슴가슴이
대양의 파도마냥 세차게 설레이는것인가

우리가 보다 편안한 길을 걸어
쉽게 여기에 왔다면
이 대회장이
이처럼 뜨겁게 설레이지 못하리
우리 얼마나 간고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서 왔던가

너무도 애석하게 수령님을 잃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목놓아울던 그 가슴들이 여기에 있다
쏟아지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난을 뚫고 시련을 헤치며
20세기와 새세기의 언덕을 넘어오던
그 뼈저리는 낮과 밤들이 여기에 있다

남들같으면 열번 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그 세월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존엄높아진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들에게 없는
위대한 손길이 있었기때문이지니

아, 우리의 손에
선군의 총대를 쥐여주시고
선군의 마치고 낮
선군의 붓을 쥐여주시며
우리를 용약 승리자로 되게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손길이어!

그 손길을 잡고
선군의 한길을 왔기에
우리는 천리방선초소에서

공장과 농촌에서
과학과 문화와 체육의 전선에서
기적과 비약의 창조자가 되었고
새시대의 영웅이 되었고
사회주의수호자가 되어
승리자의 존엄을 세상에 떨쳤어라

시대만능의 보검
선군을 운명으로 간직한 우리는
우리 장군님의 영광스런
선군혁명동지
그 가슴가슴들이
결사옹위의 철진을 치고
결사관철의 불길로 타오르는
일심단결의 성새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핵무기나 미싸일로도
깨뜨릴수도 무너뜨릴수도 없거늘

그때문에 우리의 대회
선군혁명총진군대회는
무적의 대회
불패의 대회
백전백승의 대회

대회여
너의 그 뜨거운 숨결이
천만군민의 가슴에 높뛰게 하라
너의 그 거세찬 기상이
온 나라 초소와 공장과 농촌에
차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어머니 내 조국에
선군혁명대고조의 불을 지피라
총진군비약의 바람을 일으키라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세계를 따라 앞서나가는 번개를 일으키라

아 그리하여
희세의 령장
승리의 기치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력사에 빛나는 선군혁명총진군대회
영광넘친 그 이름이
하늘땅에 울려퍼지게 하라
만천하를 진감케 하라

만경대

집제작

아. 만경대 만경대
민족의 영웅, 탁월한 사상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조선혁명의 요람이여!
희망의 고향이여!

그대는 맑은 아침의 기상
머리우엔 가없이 푸른 하늘
새들도 노래하는 아름다운 마음
한줄기 바람결도 뜨거운 숨결 안겨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새힘을 안겨주는 곳이여!
푸른 소나무 설레이는 만경봉의
아름다움과 슬기로움 비껴담고 흐르는
대동강이여!

미제의 더러운 침략선
《서면》호를 강물속에 처박은
그날의 승리를 노래하는 곳
미제와는 끝까지 싸워야 하고

싸우면 이길수 있다는것을 말해주며
인민들에게 힘을 주는 곳이여!

오, 사람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만경대여!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린 시절 혁명의 큰뜻
키우신
만경대, 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
수룩만리 찾아온 우리들에게
혁명의 신념을 안겨주는 곳
조선인민을 조국통일로 부르는 곳

일찌기 들어본적 없고 본적도 없는
그처럼 아름답고
그처럼 기백에 넘치는
혁명의 노래가 울려오는
만경대여, 그대에게 만세를 보낸다!

(스웨리에 읊살라종합대학대표단)

그리움의 꽃

리명옥

아침이슬 함뿔 머금고
활짝 피어난 **김일성**화
너는 아름다운 꽃만이 아니구나
수령님 생각을 못건디게 불러주는
너는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

파스한 송이송이 보면 볼수록
행복한 내 삶의 의미가 되새겨지나니
대동강기슭 아담한 나의 집 창문가에
기쁨의 웃음소리 높아갈수록
더더욱 젖어드는 수령님 생각

우리 행복 마련하시려
수령님 한생 헤쳐가신 이슬찬 새벽길
불노을 흐르는 철의 구내길이
너의 그 송이송이에 다 어려와...

활짝 핀 너의 꽃잎을 쓰다듬으면
수령님 한생토록 가꾸어주신
행복한 우리 삶의 웃음꽃만 같아
싱싱한 너의 줄기는
억센 내 신념만 같아
더더욱 사무치는 수령님 생각

이 가슴에 가득차오르는 뜨거운 생각이여
짓밟힌 들꽃처럼 버림받던 인생들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주시고
온 나라 가정에
그칠줄 모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높여주신
아, 고마운 우리 수령님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
이 가슴에 너를 그리안으니
김일성화여
너는 정녕
우리 인생에 참된 삶의 꽃을 피워주신
수령님 한평생이 다 어려있는 꽃

인민위한 그 헌신의 한평생에
우리 수령님
단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신적 있었다면
너를 보는 이 마음이
이다지 젖어들지 않을것을...

피였다 지는것이 꽃이라지만
수령님 못잇는
이 나라 인민의 심장에 뿌리를 내려
그 심장이 피워올리는
너는 그리움의 꽃
수령님 주신 우리 삶의 무궁한 만복처럼
영원히 붉게붉게 피여날 불멸의 꽃!

수령님 모습

김윤걸

그날에 우리 수령님은 젊으시였다
날아에는 수리개에조차
꿈을 실어보는 흥안의 시절...
조국이여 그이께 네가 드린것은
빼앗긴 들에 사무치는 종다리의 피울음이였고
혈전의 언덕을 넘지 않고선 가서줄수 없는
겨레의 피타는 비분이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은
그 젊음에 장군이 되시였다
백전로장이 넘어야 할 사선의 고비고비를
10대에 넘으시며
안도의 언덕에 거연히 서시였다

어머님 지어주신 풀물들인 군복속에
탄우도 뿜지 못할
해방의 열망을 간직하시고
천만산악을 떠올리시듯
수령님 총을 높이 드셨거니

오, 총!
우리 수령님 가슴속에 응얼지신
망국의 울분이 그 총신에 번뜩이었다
5천년 민족사가
바라고 바라던 갈망이

그 탄창에 만장탄되었다

그날에 대오는 떠났다
칠성관에 오른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기전에는
식을수 없는
20대 청년장군의 사랑을
조국의 봄빛으로 안고
일제백만대적을 맞받아 대오는 떠났다
총대로 승리해갈 위대한 력사의 첫 기슭을

우리 혁명무력이 닳을 올린
그날로부터 장장 70여년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류다른 추억을 불러주는
따스한 그 봄날에 서면
인민의 마음속에
청년장군의 모습으로
우리 수령님 기쁘게 오시거니

아,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용속에
어려오는 수령님 모습
대대손손 칭송할 위대한 그 모습
우리 장군님 이끄시는 선군대오의 최선두에
승리를 불러 영원히 빛나리라

김일성광장의 종소리

문용철

아직은 새벽잠에 들어있는
수도의 이 거리
인민대학습당의 푸른 지붕우에 새벽별 빛나는
김일성광장을 나는 걷는다

안개발 흐느적이는
청신한 새벽하늘을 흔들며 흔들며
광장 가득 울려퍼지는 새날의 종소리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이여-

그 어떤 숭엄하고 크나큰 물결이
이 몸을 후더이 감싸며
이 땅, 이 거리에 굽이쳐 흐르는듯

그 종소리와 더불어 잠을 깬

생활의 들끓는 음향이여
솟는 태양을 우러러
깃을 차고 날으는 새들의 나래저음소리
금빛해살 눈부신 창문들이 열리는 소리
우리의 새날이 시작된것이다

벌써 물목을 터친듯 한 출근길
줄지어 달리는 빠스며 전차들
처너들의 경쾌한 발걸음들
필갑소리 딸깍거리는
아이들의 쟁 걸음발들

마음껏 달리라
굽이쳐 흐리라
행복의 물결, 생활의 격류여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서신 우리 수령님
그 천만의 물결우에 축복의 미소를 뿌리시며
손길높이 바래워주시는 이 거리

그 바래움속에 일터로 떠났던이들
별뜨는 저녁이면
또 하루 수령님의 이 나라를 빛내인
기쁨을 안고 노래를 안고
불밝은 락원의 지붕아래 들어서려니

언제나 어느때나 수령님과 함께 살고
즐거움과 괴로움도 수령님과 함께 나누며
수령님노래로 새날을 맞는 이 땅, 이 세월은
영원한 수령님나라, 수령님세월

아, 종소리
이 마음을 흔드는
김일성광장의 종소리!
이 나라의 무궁할 날과 달 세월을 이어주며
조국의 크나큰 가슴속에 뛰고뛰는
수령님의 거룩한 심장의 박동소리런가

그 박동소리
이 땅우에 무궁할 삶의 노래되어
행복의 메아리를 안고
우리의 세월이 흐른다
우리 장군님 선군의 총대로 올라가시는
불멸의 종소리와 더불어
내 조국의 아침이 열린다, 열린다-

태양의 꽃

한광춘

강산의 온갖 꽃처럼
산에 들에 그 뿌리 내리었던가
운명의 해님없인 순간도 뛰지 못하는
만민의 심장에서 태어난 꽃

아, **김일성**화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이의 모습을 뵈게 하고
자나깨나 듣고싶은
자애론 그 음성 들려주는 꽃이여

위대하신 그이 존함 누구나 알듯이
세상이 다 아는 꽃
태양의 그 빛발 어디에나 다 가듯이
산너머 멀리 바다건너 끝없이
그 향기 풍기는 꽃

어찌 자연이 피웠다 하랴
진리를 찾아 수수천년
찬바람 눈비를 헤쳐온 인류가
비로소 맞이한 자주의 세기우에
망울을 터쳐 올린
불멸의 꽃 **김일성**화여

꽃이여도 삼가
이 꽃을 우러르면
자주화의 붉노을 붉은 하늘이

금시 보여오고
이 꽃을 가슴에 안으면
존엄높은 삶의 길
그 한끝까지 갈수 있다는 궁지

이 꽃이 피는 곳엔
어둠이 없어라
봄물이 오른 푸르른 대지
누리는 그리도 밝고밝아
꽃잎은 꽃잎마다
줄기찬 생의 환희와 열정을 불붙여주나니

이 세상 아름다움이
여기에 다 모였다
가장 열렬한 사랑과 념원이
여기서 불탄다
그렇듯 뜨거웁고 절절한
흙모의 마음들이
심장처럼 받들어올리었다
태양의 이 꽃!

아 무궁토록 만발하라
아름다움의 절정
흙모의 절정우에 피고 피어서
김일성화는
불멸의 꽃으로 영원하리라

장군님과 김일성화

리현석

내 지금
태양의 꽃, **김일성** 화앞에
오래도록 발걸음 못뒀고 서있노라

저 멀리 세월속에
어느덧 자랑스런 마흔뎡을 맞는
태양의 꽃을 우러르며
서있노라면

아, 못잊을 뜨거운 사연
잊을수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
안겨와 이 가슴 흔들여
발걸음 선뜻 뗄수 없구나

지금으로부터 마흔해전
력사에 빛나는 자욱을 남긴
1965년 4월 화창한 봄날
세월보다 먼저 오는 이 봄날!

바로 이 봄날에
인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칭송하여
새로 연구한 아름다운 꽃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셔
《**김일성화**》로 부르며
수령님을 흠모의 최절정에 모시였어라

허나 태양의 꽃이
만단사연을 안고있는줄 우리 알았던가
그때로부터 10년
그날의 장군님의
확신과 의지에 넘치신 말씀
지금도 이 가슴에 뜨거웁구나

-우리는 **김일성** 화를 꼭 찾아야 합니다
김일성 화는 20세기 후반기에 태어난
식물의 꽃이기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꽃이기때문에
스러지지 않고 그 어디서든지
피고있을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 걱정을 터치며

황황 강산을 울리는 말씀이여
인류의 념원을 기어이 꽃피주시려는
장군님의 한없이 뜨겁고 열렬한 충정이여!

그 뜨겁고도 열렬한 말씀
해빛을 타고 온 우주에 메아리치며
만민의 가슴속에 안겨졌고
태양의 꽃을 찾는 성스런 일은
낮과 밤을 이어
날과 날을 딛고 넘으며 벌어졌거늘

세월과 시대를 굽어보시고
만민의 마음속을 꿰뚫어보신
그 빛나는 예지
인류를 위한 장군님의 그 헌신은
마침내 끝없는 환희의 세계를 안아왔거니

김일성 화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의 기쁨에 젖고
반가움에 젖은 말씀
또다시 이 가슴을 울리누나!

-그것 보시오

김일성 화는 피고있지 않았습니까
꼭 10년만에 **김일성** 화를 다시 찾았습니까
수령님께서도 그 꽃을 다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빨리 **김일성** 화를 조국에 가져다
꽃피워야 하겠습니까

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피고있었기에
그 모진 광풍속에서도
스러지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
오늘은 온 조국땅에
온 세상에 만발하며
꽃숲을 이룬 **김일성** 화!

아아,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피여있어
인류의 가슴속에 피여있어
태양의 꽃 **김일성** 화는
영원무궁하리라
영원불멸하리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흠모의 풍부한 서정

김순림

가요 《장군님이 그리워》와 《전사의 녀원》은 오래전에 나온 시대의 명곡이다. 가요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게 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가리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도록 고무해주고있다.

가요를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간직한 혁명의 수령에 대한 순결무구한 흠모심과 충성심을 정서적으로 뜨겁게 받아안게 되며 수령의 전사가 지녀야 할 참된 삶의 진리를 심장에 간직하게 된다.

가요의 이러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은 이 노래들이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음악작품에서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가사를 시적으로 잘 쓰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체적인 생동한 정서를 통하여 깊은 사상을 노래한 이런 가사라야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된 참다운 가사라고 말할수 있다.》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서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풍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가사는 노래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담는 기본수단으로서 선률의 정서와 표현형식을 규정한다.

가요 《장군님이 그리워》와 《전사의 녀원》의 가사는 다같이 가사형상의 사상미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이 노래들이 정서깊은 명곡으로 될수 있게 한 근본기초를 마련하였다.

가요 《장군님이 그리워》는 1960년대에 창작된 명곡이다.

이 노래는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행제》의 숙영지장면에서 남성중음독창으로 정서깊게 울리고있다.

고요한 밤하늘에 못별만이 반짝이는 밀림속의 숙영지에서 우등불을 피우고 모여선 유격대원들이 꿈결에도 그리운 어버이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을 생각하는 심정을 대변하여 노래가 울린다.

밀림의 밤은 깊어 달은 밝은데
어버이사랑이 그림습니다
어디에 계시는가 장군님이 그리워
이 밤도 그리워 잠 못 듭니다

태고의 밀림은 고이 잠들고
하늘에 못별이 반짝입니다
장군님 계시는 곳 저 하늘가에
찬란한 서광이 비쳤습니다

혁명의 수만리길 저 언덕너머
해방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장군님 모시고 천만년 살리라
충성의 한마음 바치렵니다

가사 《장군님이 그리워》는 첫절부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가사의 섬세한 심리분석, 그리움의 절절한 감정, 소박하고 정서적인 언어형상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위대한 장군님을 못견디게 그리는 유격대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상심리세계에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며 못견디게 그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절절한 사상정서세계는 가사전반을 뜨거운 서정으로 진하게 물들이고있다.

가사 1절에서는 밀림의 밤은 깊어 달은 밝은데 어버이사랑이 그처럼 그림고 위대한 장군님이 그리워 이 밤도 잠 못 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태고의 밀림은 밝은 달빛을 받아 수려한 자태를 드러내보이는데 서로서로 의지하고 기대어 서있는 유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이 못내 그리워 밀림속의 깊은 밤에도 잠들줄 모르는 항일유격대원들.

가사에서는 《어버이사랑이 그림습니다》, 《이 밤도 그리워 잠 못 듭니다》의 시구들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유격대원들의 고결한 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하였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혁명전사들의 심리세계에 대한 정서깊은 개방이다.

그러하여 가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수 없는, 어버이장군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목숨을 바칠 한마음으로만 숨쉬는 그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높은 시적형상으로 보여주었다.

가사 2절에서는 태고의 밀림은 고이 잠들고 고요한 밤하늘에 못별만이 반짝이는 밀림속의 숙영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저 하늘가를 바라보며 찬란한 서광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있는 유격대원들의 내면세계를 서정적화곡으로 보여주었다.

가사에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를 더욱 승화시켜 《장군님 계시는 곳 저 하늘가에》, 《찬란한 서광이 비쳤습다》의 시구들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신념으로 지니고 조국해방의 찬란한 래일을 확신하는 유격

대원들의 신심과 락관을 량만적인 정서로 부각하고있다.

가사 3절에서는 그리움과 량만의 정서를 고조시켜 해방된 조국땅에서 어버이장군님께 충성의 한마음을 바치며 천만년 무궁토록 살아가려는 혁명전사들의 충정의 세계를 한껏 터치며 그들이 지닌 삶의 철학을 서정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처럼 가요 《장군님이 그리워》의 가사형상은 사상주제적내용을 풍부한 정서속에 담고있을뿐만 아니라 짧은 시행속에 의의있는 사상을 심어놓음으로써 노래를 전제로 한 시문학형식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게 되었다.

가요 《장군님이 그리워》의 가사형상은 뜻이 깊은 사상정서적내용을 풍부한 정서속에 담아야 한다는 가사창작의 미학적요구를 구현하여 명가사를 창작하도록 하는데서 실천적으로 많은 시사를 주고있다.

가사에 의의있는 사상이 심어져야 한다고 하여 직선적인 개념을 라컬하면 형상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만 치우치면 의의있는 사상을 심을수 없다.

가요 《장군님이 그리워》의 가사에는 항일혁명전사들의 수령에 대한 흠모와 신념, 충성의 세계를 노래하고있지만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표현은 없다. 가사에는 하나하나의 표현이 사상주제적내용을 풍만한 정서와 가장 본질적인 생활에 대한 깊은 뜻을 담고있다.

가사는 이처럼 주제사상이 높은 경지에서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져야 사람들이 시대와 생활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할수 있게 여운을 줄수 있다.

가요 《전사의 념원》은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을 담은 노래이다.

가요 《전사의 념원》의 가사형상도 뜻이 깊은 사상정서적내용을 풍만한 정서속에 담고있는 명가사이다.

가사 《전사의 념원》은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며 간고한 혈전의 수습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과 불타는 충성심을 노래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길에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풍만한 정서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그리운 장군님 품을 떠나
갈 길은 아득히 멀어라
사나운 눈보라 헤쳐가며
전사의 념원은 하나뿐
장군님 안녕하시라
조국의 운명 위하여
걸음마다 간절히
전사는 안녕을 바라네

가사에는 어버이장군님을 흠모하며 따르는 혁명전사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가 반영되어있다. 그리운 장군님품을 떠나 전사가 갈 길은 아득도 아득히 먼데 사나운 눈보라는 기승을 부리며 세차게 몰아친다. 하지만 전사는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가며 오직 하나의 념원만을 간직하고있으니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이었다. 이 걱정적인 시적화폭속에서 우리는 걸음마다 간절히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뜨겁게 감수하는것이다.

이처럼 가사 《전사의 념원》은 사령부에서 멀리 떠나 적후에서 공작하면서도 그 어느 한순간도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잊어본적이 없는 혁명전사의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 그리고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진 혁명적의리와 땀과 젖은 혈연적인 련계를 짙은 정서속에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서정적주인공의 이 뜨거운 심정을 가장 효과적인 서정적인 계기를 통하여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전사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멀리 떠나는 순간과 적후 멀리에 들어가서 시련의 폭풍우를 헤쳐가는 계기속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서정화하여 노래함으로써 전사의 간절한 소원을 생동하고 구체적인 화폭속에서 훌륭하게 형상하고있다.

가사 《전사의 념원》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과 행복, 크나큰 민족적자부심을 훌륭히 표현하고있으며 장군님께서 안녕하시고 건강하셔야 조선이 있고 조국해방이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가요 《전사의 념원》의 가사형상은 이처럼 깊은 사상이 풍만한 정서로 흘러나오고있는것으로 하여 시대의 명곡을 낳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선군시대의 지향과 사상미학적 요구를 반영한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노래를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가요 《장군님이 그리워》와 《전사의 념원》의 높은 형상세계는 선군시대 명작을 창작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으로 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된 작품들의 성과를 일반화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국해방의 성전에 떨쳐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흠모심이 오늘 선군시대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심으로 더욱 승화되어 뜨겁게 울리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가장 숭고한 시대적의무이며 본분이다.

장군님과 시인

주체35(1946)년 봄,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봄을 맞이하였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민주조선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서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심을 받들고 각계층 애국적인민들이 더욱 기세충천하여 건국사업에 일떠섰다.

그런데 당시 혁명대렬에 기여들었던 나쁜 놈들은 애국적인민들과 지식인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면서 새조국건설에 떨쳐나서지 못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해산군(당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사업을 하던 한 시인의 《과거경력》을 운운하면서 그를 해임시키고 신문기자로 옮겨앉히고도 집요하게 뒤를 캐고 랭대하였다.

시인의 번민은 컸다. 붓을 들어도 자기를 까닭없이 경원시하는자들에 대한 울분이 앞설뿐 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하던 그해 4월 어느날, 이날도 번민속에서 하루해를 보내고있던 시인은 뜻밖에도 그 지방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연회에 참가하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초청장을 받아친 시인은 꿈만같은 사실에 눈물로 불을 적시며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였다.

시인이 연회장에 이르니 거기에는 도안의 각 정당, 사회단체일꾼들과 기업가, 상인, 종교인, 지식인들이 빼곡이 차있었다.

이윽고 만장의 환호속에 연회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애에 넘치신 눈길로 연회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순간 시인은 어버이수령님께서로 달려가 안기고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렀다.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인민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새생활의 참된 길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모두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믿음과 사랑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토록 넓은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시인은 만민의 태양, 만민의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품도앞에 깊이 머리숙어지였다.

시인은 이때 생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문도 기별도 없이 오시였지만 그리운 장군님께서 오신것을 인민이 어찌 모르랴.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은 이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서리였던 지난날에도 새 조국건설의 오늘에도 찬란한 태양으로 삼천리 온 강토를 밝게 비쳐주

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아,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다!

그의 생각은 곧 시상으로 되어 심장 가득히 차올라 더는 혼자서 가슴속에 묻어둘수 없게 되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성큼 일어났다. 만장의 시선이 일시에 자기에게 쏠리고있으나 시인은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깊이 머리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올릴뿐이었다. 그리고는 심장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웨침 그대로 즉흥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

온 장내가 즉흥시의 세계에로 끌려들어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로 번져갔다. 사람들은 시인의 웨침에 깊이 공감하고있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외람되다고 돌이켜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가지만은 굳게 믿고있었으니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읊고있는 즉흥시가 저 혼자만의 심장속에서만 울려나오는것이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진정 하나로 고동치는 온 겨레의 심장의 웨침이며 시대의 념원을 담아 부르는 충성의 송가였다.

그는 양양된 시의 세계를 심장으로 펼쳐보이며 격조높이 읊었다.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즉흥시랑송은 끝났다. 시의 세계를 따라 사색의 바다를 이루었던 장내에서는 일시에 《**김일성** 장군 만세!》의 환호성과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

시여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시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더없는 영광이 넘치는 이 순간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오면 아뵈고싶던 그 많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리었다

그 얼마나 그리고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이신가.

조국땅에 암운이 드리웠던 그 세월, 일제의 철창속에서도 목매어 불러보던 그리운 우리 장군님, 해방후 나쁜 놈들의 모해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직 장군님만 그리며 울분을 묵새겨온 시인이었

다.

그러던 시인을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곁에 불러주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이 땅에 태어난 시인으로서 이제 그 무엇을 더 바라랴.

오직 위대한 장군님따라 한생을 바쳐가리라. 영원히 충성의 필봉을 높이 들고 만민의 태양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론 사랑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리라. 시인은 이렇게 심장깊이 충성의 맹세를 다졌을뿐이다.

☆혁명일화☆

수령님께 드리신 경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4월 15일에 진행하신 전선동부 1211고지에 대한 력사적인 시찰소식은 온 나라를 끝없는 감격과 흥분속에 잠기게 하였다.

4월 15일 오후 1211고지를 떠나 지혜산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찍으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가파로운 벼랑길을 뚫으시며 고지의 정점에 오르시었다.

력사의 증견자인양 잊을수 없는 그날의 사연을 고이 간직하고 거언히 솟아있는 고지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회억의 숙연한 빛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작전도를 펼쳐놓으시였던 너럭바위며 피어린 격전을 말해주는 폭탄구덩이들과 포연에 불타고 파편에 찢겨진 나무들을 돌아보시면서 가렬한 전화의 나날들을 되새겨보시였고 수령님의 로고를 헤아리시었다.

하나의 바위, 한그루의 나무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자취가 깃든 사적지주위를 천천히 돌고 또 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걸음에서는 천만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 전화의 그날처럼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지 않으셨는가.

그러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잊을수 없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리우시여 뜻깊은 4월 15일에 지혜산의 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소중한 추억을 불러주는 사적지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고난과 시련의 한생이었다고, 빨찌산시절에는 빼앗긴 조국을 찾으시기 위해 수천만리 혈로를 헤치시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침식을 잊으시며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에서 전사들과 함께 계시었다고, 참으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한생을 바치시었다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지혜산마루를 거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뜻깊은 사적비앞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시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우리는 오늘 4월 15일을 전선길에서 맞다보니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수령님께 경의도 드리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뜨거운것을 삼키는 일군들과 함께 사적비앞에 정중히 서시었다.

이어 차렷! 하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엄숙히 구령을 내리시었다.

순간 산천초목도 숨을 죽이고 흐르던 구름도 멈추어선듯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중하신 음성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드립시다!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고는 손을 들어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탄생 85돐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경의를 드리시었다.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선길에서 삼가 드리신 최대의 경의!

그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 절절한 그리움과 소중한 추억의 표시였고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고야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령도자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표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경의에서 수령님의 위업의 불패성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보았으며 장군님께서 지켜주시고 꽃피워주시기에 조국의 운명, 인민의 미래는 락관적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정원에 대한 생각

염성영

정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건물의 울타리안이나 돌레에 있는 뜰과 아름다운 꽃밭이나 푸른 잔디밭, 관상용정원수를 그려보기가 십상이다.

정원에 대한 나의 표상 역시 다를바 없다. 굳이 덧붙인다면 건물을 리용하는 사람의 휴식이나 건강, 편리를 보장하는것이 그 사명이라고 할까.

정원이 공원이나 유원지와 구별되는 점은 규모가 작고 리용자가 건물을 쓰고사는 사람들로 제한되어있는것이다. 상쾌한 아침체조, 가벼운 산책, 즐거운 담소를 나눌수 있도록 조성되는것이 정원이다. 그런 까닭에 리용자의 성격과 취미, 기호에 맞게 길을 내고 록지를 조성하며 나무를 심어서 정원의 운치를 돋구는것이다.

헌데 정원에 대한 나의 이러한 표상을 다시금 더듬어보지 않을수 없는 일이 생겼다.

태양절을 앞둔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시내 중심에 자리잡은 한 고층살림집에서 살고있는 김동무네 집을 찾아갔다. 오래동안 농업부문에서 일해오고있는 그를 만나 몇가지 의논할 문제가 있었던것이다.

가볍게 문기척을 하니 얼굴이 사과알처럼 빨갛게 익은 손주녀석이 먼저 달려와 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오게.》

김동무가 반색을 했다. 그는 해빛이 잘드는 자기 방에서 **김일성** 화분을 가꾸고있던 중이었다. 원탁위에 나란히 놓인 화분에서는 **김일성** 화가 활짝 피어있었다. 그때문인지 방안이 한결 밝고 정갈한 감을 주었다.

《축전에 내놓으려나?》

나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김일성** 화축전이 곧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알고서 물었다. 그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손에 분무기를 잡았다. 금시 젖빛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활짝 핀 **김일성** 화를 감돈다. 어느새 꽃잎에 작은 물방울이 돋는다.

《한다하는 원예사도 와보면 놀랄걸세.》

나는 그의 화분가꾸는 솜씨에 감복했다.

《허허, 지나친 말일세. 난 이 꽃에 아버지수령님을 그리는 내 마음을 담고있을뿐이네.》

《그럴테지. 얼마나 자연뜨거운 꽃인가?》

나는 그의 마음이 헤아려졌다.

《**김일성** 화뿐이 아니야.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과 덕망에 매혹된 외국의 벗들이 우리 수령님께 올린 선물식물과 진귀한 꽃들이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건강과 휴식을 바라며 그들이 보내온 그 모든 선물식물과 진귀한 꽃들을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과 휴식을 위한데다 바치시였지...》

나는 김동무를 향해 머리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했다. 인민을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으시였다.

김동무가 생각깊은 어조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차례진 선물식물들을 모두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대신 금수산의사당 정원에는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농작물시험포전을 꾸리시고 휴식시간마저 그것을 가꾸시였네.》

나도 그에 대해서는 알고있었지만 그 깊은 사연에 대하여서는 농업부문에서 오래동안 책임적인 사업을 하여온 김동무만큼은 잘알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그의 다음말을 귀담아들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금수산의사당(당시)정원에는 여러가지 알곡시험포전과 함께 강녕이시험포전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우리 수령님께서 그 시험포전들을 가꾸시는데 잠시의 휴식시간까지 바쳐오셨다고 말하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 지방을 현지지도하고계실 때의 일이었다. 김동무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한밤중에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평양에 올라가자고 하는데 갑자기 비꽃이 떨어지고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평양의 날씨를 물으시는것이였다. 김동무는 평양하늘은 별이 총총할 정도로 맑다고 보고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험포전의 강녕이가 비바람피해를 받을가봐 념려되어 전화를 걸었다고 하시면서 수화기를 놓으시였다.

김동무는 한밤중의 일기변화를 놓고도 정원의 시험포전을 념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강녕이시험포전을 돌아보았다.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평당포기수를 늘였는데도 강녕이가 총하없이 잘 자라고있었다. 김동무가 포전을 뜨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먹장구름이 밀려오고 번개가 일면서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곧 비바람막이대책이 취해졌다.

《이날 평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저택이 아니라 곧바로 정원의 강녕이시험포전을 찾으시였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비방울에 옷자락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포전을 다 돌아보시고나서 오늘의 세찬 바람에 강녕이대가 견디어냈으면 우리가 생각한 평당포기수가 가능한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네.》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안녕보다도 우리 인민들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아버지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이런 심혈과 로고속에서 주체농법도 세상에 태어난것 아니겠는가!

《금수산의사당 정원에는 알곡작물시험포전뿐 아니라 남새작물시험포전도 있었네.》

김동무는 감동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미나리시험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주제 68(1979)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른아침 풀밭의 찬이슬에 옷자락을 적시시면서 정원의 한끝에 있는 물웅덩이로 향하시였다.

전날밤 해당 일군들로부터 그 물웅덩이를 런못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각이 다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약효가 있는 미나리를 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일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 미나리를 많이 심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는데 어디서나 수확량이 시원치 못했던것이다.

물웅덩이근처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런못은 후에 조성하고 당장은 인민들이 좋아하는 미나리시험포를 만들어 그 생산을 늘일 방도를 연구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리하여 금수산의사당 정원에는 잔디밭과 꽃밭, 정원수로 풍치를 돋구는것보다 미나리, 배추를 비롯한 남새작물시험포전이 더 늘어나게 되였네.》

김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동서고금 그 어데를 둘러보라 그 어느 나라 령도자의 정원에 농작물시험포전을 둔 례가 있는가.

그 어느령도자가 휴식시간마저 바쳐가며 그것을 가꾼 례가 있는가. 나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오직 금수산의사당정원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이었다.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위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꾸리실수 있는 정원이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가꾸실수 있는 시험포전이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정원! 생각할수록 한없이 소박

하고 겸허하신 우리 수령님의 인민적품모에 머리가 숙어지며 나는 정원에 대한 종래의 표상이 너무도 단순하고 왜소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정원이란 개념의 폭을 더 넓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뿐만이 아니였다. 금수산의사당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알고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그 현신, 그 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 내 조국이 일떠섰고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사상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오늘 우리 인민의 행복이 고수되고 내 조국의 모습도 몰라보게 변모되어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종자혁명의 불길 속에 다수확품종의 우량한 새 종자들이 생겨나고 토지정리의 첫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울망줄망한 빼기논과 밭들이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고있다.

우리 식의 독특한 자연흐름식물길이 뻗어간다.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를 잘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 올해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전선으로 내세우지 않았는가!

나는 가슴이 그들먹해졌다. 어느새 눈앞에는 우리 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게 될 래일이 그려졌다. 나는 김동무와 함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오늘의 선군혁명총진군에서 앞장서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가사>

우리는 조국의 방패

박두천

사나운 파도가 배전을 쳐도
해병의 심장은 흔들림 없다
피끓는 가슴에 바다를 안고
조국의 관문을 굳게 지킨다
아 우리는 바다의 방패
김정일장군님의 해병들이다

안개낀 밤에도 불빛이 되어
해병의 눈동자 밝게 빛난다
우리가 있는 한 어떤 적함도

조국의 바다에 닿지 못하리
아 우리는 바다의 방패
김정일장군님의 해병들이다

결전의 그날엔 첫 어뢰되어
적함을 향하여 육박하리라
군함기 날리며 달리는 길에
승리의 향로만 열려져있다
아 우리는 바다의 방패
김정일장군님의 해병들이다



김영선

1

깊은 생각에 잠기시어 문건을 한장한장 번져보 시던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못내 만족한 기색 을 지으시었다.

강원도로부터 시작하여 몇년째 토지정리전투를 책임지고 나가있는 한응진이 황해남도에서도 통 이 크게 일판을 벌리더니 드디어 2단계공사를 기 본적으로 끝냈다는것이였다. 문건의 마지막장에는 다년간 농업부문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과제들을 드팀없이 해낸 한응진에게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첨부되어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어서시어 창문가로 다가가 시였다.

한응진을 만나보신지도 퍼그나 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청산하고 이 땅을 사회주의조건의 땅답게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한응진이 얼마나 큰 몫을 맡고있는가.

강원도와 평안북도를 거쳐 황해남도에 이르기 까지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수많은 논란과 발두령을 메주밧듯 하였을것이다.

수년세월 집을 떠나 벌바람, 바다바람을 다 맞으며 그가 걸은 길은 얼마이고 그 길에 뿌려진 땀은 또 얼마이겠는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인데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기어이 해내군 하였다

한응진, 그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제가 먼저 발이랑을 땀고 토지정리를 책임지고 나가서도 어깨에서 질통을 벗을줄 몰랐다.

아래사람들에 대한 요구성도 높았다. 일단 계획했던 일을 미진하면 화불을 켜들고서라도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 말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평범한 농장원으로부터 나라의 중견간부로 자라난 한응진의 모습을 그려보시

며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시었다.

정원에 만발한 진달래꽃에서 진한 향기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들었다. 폐부를 자극하는 그 향기를 맡으시니 문득 눈앞에는 북방의 험한 령길이 떠오르시었다.

20여년전의 어느해 봄, 동해안의 공업지구들을 현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보시던 문건에서 고개를 드시었다. 기차방통같이 큰 대형화물차가 앞에서 좁은 령길을 막고 서있었다.

부관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운전사의 일손을 거들어주던 짐입자인듯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모자를 벗어들며 사정하였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주저앉아있습니다.》

부관이 딱한 표정을 짓자 청년은 속이 상하여 손에는 모자만 비틀어짚다

《농사절기는 바둑바둑 다가오는데 비료를 실은 차가 이렇게 세월없이 서있으니... 너무 속이 타서 그러합니다.》

말을 더듬는 청년의 얼굴에 어찌나 실망이 어리였는지 보기 딱할 정도였다. 하긴 농사란 절기를 놓치면 안되니 그럴만도 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부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운전사에게 도와주자고 하시며 차에서 내리시었다.

새날이 밝아오는 이른 새벽 대기속에서 진달래꽃향기가 진하게 풍기여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 대형화물차 앞으로 다가가시자 무심히 돌아보던 청년은 눈이 한껏 커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청년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더니 곧 자체를 바로하고 격동적인 어조로 보고하였다.

《작업반장 한응진입니다. 비료수송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대동작이 몸에 배인 체대

군인인듯 한 청년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며 방수포로 꼭꼭 여민 적재함을 바라보시었다.

《이렇게 많은 비료를 어디에서 실어올리니까?》

《홍남에서 구해오던 중입니다.》

《동무네 농장은 어디요?》

《황해남도... 양명농장입니다.》

《양명이라...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도하신 농장이구만.》

《그렇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농장을 두차례나 찾아주시고 전국적으로 강녕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실리였으나 처너처럼 곱살하게 생긴 제대군인 청년의 목소리는 여간 여무지지 않았다.

양명농장은 **김정일** 동지께서도 잘 아시는 곳이었다.

일찌기 양명농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돼지를 많이 길러 고기생산도 늘이고 두업으로는 강녕이농사를 지어야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이 농장에서는 작업반마다 축산분조를 조직하고 돼지를 대대적으로 길러냈으며 우랑종자새끼들을 집집에 나누어주어 돼지마리수가 수십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결과 해마다 질 좋은 거름을 헥타르당 수십톤씩 내게 되었으며 강녕이수확고는 전국적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게 되었다. 지난날 지지도 못하던 이곳 농장원들의 생활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농촌문화주택들이 그뿐히 일어서고 농장원들은 생활의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아왔다.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하겠는가를 구상하시며 포전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누구보다 먼저 실현한 이 농장 관리위원장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고 그의 모범이 전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때 양명농장을 소개하는 텔레비전화면에서 마을앞에 산처럼 높이 쌓여있던 거름더미가 매우 인상깊으시었다.

그런데 말을 나누어보니 한웅진은 그 영웅관리위원장의 아들이었다. 제대되자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으며 분조장을 거쳐 지금은 작업반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너무도 대견하시여 한웅진의 손목을 이끌고 진달래가 만발한 길섶에 나란히 앉으시었다.

《그러나 비료를 구하러 구월산밑에서 동해안기슭까지 갔었던 말이지. 대단해. 그런 용단이 없어야 두벌농사를 잘할수 없지.》

《지난해에 강녕이앞구루로 감자를 심어보았는데 재래종치고는 소출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감자도 우랑종자를 구해다 심을 결심했습니다.》

《잘 생각했소. 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이요. 그

런데 감자를 동무네 작업반에서만 심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비해 어별이 큰 청년을 놀라우신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예, 아직까지는 작업반과 개인터밭에만 심었습니다.》

《할바에는 통이 크게 온 농장에 다 심는것이 좋지 않겠소?》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웅진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한웅진은 얼굴이 진달래꽃잎처럼 붉어졌다.

남자치고는 얼굴이 희얌기도 하지만 칠흑같이 까만 머리칼이 인상적이었다.

《웅진 동무. 동무네는 강녕이농사에서 으뜸인데 감자를 심어 두벌농사에서 한번 장훈을 부르시오. 그러자면 비료와 퇴비를 많이 주고 로력을 집중해서 제철에 와닥닥 끝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때 한웅진은 **김정일** 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자종자를 구해다가 자기 작업반만이 아니라 온 농장에 나누어주어 두벌농사도 짓게 하였다.

그후 언제인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지도의 길에서 양명농장에 들리시었다.

세월의 흐름속에 양명농장도 많이 달라졌다. 드넓은 강녕이밭은 최북하나 없이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었고 팔뚝같은 이삭을 엮은 강녕이대들은 밀림처럼 설레이었다. 100헥타르가 넘는 모든 밭고랑에는 어디에도 풀한대 없었다. 여기 아이들이 토끼풀을 하려면 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작업반 축산분조-돼지우리들은 깨끗하고 알뜰하였으며 다음해 농사에 쓸 퇴비더미는 변함없이 높이 쌓여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농장들이 양명처럼 토지를 정리하고 거름도 듬뿍 내어 두벌농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시었다.

한웅진에 대한 농장원들의 반영도 좋았다. 나이지숙한 한 녀인은 《우리 반장》, 《우리 반장》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반장의 인정미에는 꿈쩍 할수 없습니다. 강녕이밭 애벌김을 매느라 사래긴 밭이랑을 타고나가면 어느새 자기 줄을 끝낸 우리 반장이 큰직한 대야에다 딸기를 가득 담아 최북에 놓았는데 그 맛이란 기가 딱 막히답니다. 복팔에 네벌김을 매고 나오면 얼음덩이가 둥둥 떠도는 오이랭국이 차레지고 탈곡할 때에는 사과, 배가 어김없이 기다립니다. 정말 우리 반장처럼 진국인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농장에 갓 진출해왔다는 녀인은 자기네 반장의 그 인정미에 농촌에 정이 들었다고 하였던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 아들이 또한 알뜰한 호주로 일해가는것이 **김정일** 동지를 무척 기쁘게 해주었다

그후 한응진은 관리위원장과 군협동농장 경영 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 지도일군으로 자라났다.

한응진이 전국 토지를 사회주의땅답게 대규모구역포전으로 만드는 중책을 지니게 된것은 그이께서 100헥타르 강녕이포전에서 받은 류다론 인상때문이기도 하였다.

한응진에 대한 김정일 동지의 믿음은 어긋나지 않았다. 한응진은 그 믿음에 실적으로 보답해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멀리 남쪽하늘을 바라보시었다. 이 밤도 돌격대원들과 함께 마지막전투를 벌리고있을 한응진을 생각하시었다.

2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창유리를 내리우시고 일매지게 펼쳐진 벌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지난해 가을 1단계로 토지정리를 끝낸 벌은 보기에 시원하고 장쾌하였다. 거대한 장기판처럼 규모있게 다스려진 논판들은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며 모를 낼 날을 묵묵히 기다리고있었다. 하늘도 땅도 눈썹리 모자라게 아득하게 펼쳐진것이 가도가도 끝이 없을것 같으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거대한 변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루어놓은것이 무엇보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우시었다.

벌써 논판들에는 지난해 가을에 심은 밀보리들이 싹하게 자랐고 푸르른 창공높이 종다리가 즐겁게 우짚었다.

토지정리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두벌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려는것은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시었다. 그 의도에 맞게 한응진이가 대자연개조의 거창한 전투를 밀고나가면서도 두벌농사를 놓치지 않은것이 대견스러우시었다.

승용차는 일매지게 다듬어놓은 도로로 쏘살같이 달리였다.

길가에는 아침이슬을 머금은 코스모스들이 한창 자라고 그 아래 채송화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금시 망울을 터질듯 연연한 꽃잎을 한껏 물었다.

누구인가가 길양옆을 자기 집 꽃밭처럼 알뜰하게 가꾸고 날이 밝기도전에 짙검불 한오리없이 깨끗하게 쓸어놓았다.

차를 대고 줄을 친듯 곧게 뻗은 길가에서 웬 로인이 꽃밭 김을 매고있었다.

로인을 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시었다.

《최재복로인이 아닙니까?》

김정일 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엉거주춤 일어서던 로인은 호미자루를 집어던지고 얼어질듯 달려왔다.

《장군님!》

로인은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이러지 마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급히 다가가 로인을 일으켜 주시었다.

《난 로인님을 보는 순간 세상에 꼭같이 생긴 사람도 있는가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꽃을 가꾸고계십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옷섶에 문지르는 로인의 손을 그당겨 꼭 감싸쥐시었다.

《얼마전에 여기 관리위원장을 하는 아들을 따라 왔습니다.》

《그렇구만요.》

고개를 끄덕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평양에서 전국씨름경기가 한창인 때에 로인이 꽃밭을 가꾸고있는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시었다.

《지금 모란봉에서는 씨름경기가 한창인데 씨름로장인 로인님이 왜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기력이 쇠진하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로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언뜻 서글픈 빛이 스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두해사이에 펴 늙어보이는 로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시었다. 쇠몽치처럼 단단하던 로인의 몸이 탱개가 풀린듯 해보이였다.

《어디 편치 않은데라도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새 고장에 오니 서먹하기도 하고 며늘애랑 있는데 그냥 놀기가 뭣해서 도로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제이제는 눈을 감아도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군님을 만나뵈웠으니...》

로인은 뜨거움에 젖어드는 마음을 견잡지 못하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로인님이야 젊어서부터 장사로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이는 속일수 없는가 봅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로인님은 100살도 문제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매년에는 씨름경기에 꼭 출전하십시오.》

《장군님, 고맙습니다.》

최재복은 또다시 눈물을 쏟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이였다.

차에 오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로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후사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왜서인지 마음이 허전하시였다.

최재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인조씨름경기에 참가하였었다. 체소하고 머리칼이 하얗게 센 로인이 맞다드는 상대들을 안걸이와 무릎치기로 채치있게 메치여 인기가 대단하였다.

로인의 씨름특기로 하여 최재복을 알게 되신 그이께서는 텔레비죤화면에서 그의 경기를 보실

때마다 은근히 원심을 쓰게 됨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올해에도 로인조에 출전하였으리라고 생각하시었는데 이렇게 길가에서 호미질을 하는 그를 만나고보니 서운하기 그지없으시었다.

(나이는 속일수 없다더니...)

김정일 동지께서는 로인의 몸에서 단단한 기운이 빠져나간듯 한 인상이 마음에 걸리시여 기분이 좋지 않으시었다. 얼마나 건강하고 팔팔하던 로인인가.

언제인가 군부대시찰을 하시고 돌아오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샘터마을이라고 부르는 동네앞에서 하늘땅을 들었다놓는 북소리, 팽파리소리에 잠간 차를 세우게 하시었다.

알고보니 그날이 추석날이어서 몇개 마을이 모여 체육경기를 한다는것이였다. 향나무가 운치를 돋구는 샘터를 지나 능수버들이 휘늘어진 나지막한 등판에 오르시니 마침 씨름경기가 마지막결승을 다투고있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두 선수의 육체나 나이가 너무도 차이가 심한것이였다. 황소같이 뚱뚱하고 장대한 젊은이와 체소하고 머리칼이 희숙한 중늙은이가 승부를 겨루고있는것이였다.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숨소리마저 죽었다. 경기장에는 팽팽한 긴장이 어려있었다.

장대한 젊은이는 중늙은이를 공기돌처럼 돌려메치려고 버쩍 들어올리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몸이 뒤로 쏠리는 틈을 리용하여 한쪽 다리를 앞으로 건 중늙은이가 《앗-》소리를 치자 젊은이는 모래판에 광하고 나가넘어졌다. 눈깜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관중석에서는 환성이 터져오르고 북소리, 팽파리소리에 귀가 멍멍해졌다. 처녀들이 달려나가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목걸이를 걸어주자 중늙은이는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히 웃었다. 그가 바로 바늘들어갈 틈도 없이 땅땅 여문 최재복이었다.

이 아근에서는 씨름에서 그를 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씨름솜씨가 하도 신통하여 어디서 배웠는가고 물으시었다.

최재복은 아버지한테서 배웠다고 하면서 나라 없던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겪은 수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다하는 씨름선수를 납작하게 만들어놓는것을 본 왜놈들은 아버지를 꼬여 일본으로 끌고가 가라데를 배우라고 강요하였다. 놈들의 민족적멸시와 구타를 참을수 없었던 아버지는 끝내 그곳에서 뛰쳐나오고말았다.

마음씨 고운 조선사람을 만나 몸을 어느 정도 추세운 아버지는 죽어도 고향땅에 묻히리라 결심하고 왜놈의 짐배속에 숨어서 현해탄을 건너왔다.

나라가 해방되자 아버지는 씨름터를 더 번듯하게 꾸려놓고 추석날이면 주변마을까지 다 모여 체육경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전통화되였다는것이 다.

최재복은 기력이 좋은만큼 정신력도 좋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재복에게 전국씨름경기에 참가해보는것이 어떤가고 권해보시었다. 그후부터 최재복은 중앙경기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가끔 우승도 하였다.

차가 떠난 뒤에도 눈물이 글썽하여 서있던 로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으시여 **김정일** 동지께서는 길게 숨을 내쉬시었다.

3

김정일 동지께서 형제별에 도착하자 한응진이가 체일 먼저 달려와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응진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해빛에 타고 별바람에 거칠어진 한응진의 검실검실한 얼굴이 한결 촉가보이시었다.

《응진동무가 수고하누만.》

《장군님, 이렇게 채 끝내지 못한 토지정리장에 모시여 죄송합니다.》

《오늘이면 끝낼것 같구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응진동무가 토지정리에서는 으뜸이요.》

김정일 동지께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시자 한응진의 얼굴에는 씩스러움과 동시에 행복의 미소가 피여올랐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기계화군단의 장엄한 행렬이 포위진이라도 치듯 마지막계선을 누비고있는 벌을 바라보시었다.

불도젤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울망줄망한 땀기 눈들과 오불꼬불한 논둑들 그리고 웅덩이들이 다 리미질이라도 한듯 번듯해졌다.

바다기슭까지 거칠데 없이 활짝 열린 드넓은 벌을 대하시니 최재복으로 하여 그늘졌던 가슴이 한결 열리는것 같으시었다.

《2단계 토지정리 역시 규모있고 쓸모있게 한것이 마음에 듭니다. 멋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팔을 엇걸으시고 오래도록 벌을 바라보시었다.

《이제는 영농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게 된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황해남도땅이 때벗이를 하였습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토지정리를 강원도나 평안북도처럼 통이 크게 해제진것이 마음에 드시었다.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알곡증산의 예비는 토지정리와 두벌농사에 있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토지정리사업은 위대한 수령님

게서 찾아주신 이 땅을 진정한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하고 봉건적토지소유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하나의 혁명입니다. 토지정리를 50년, 100년이 지나도 손색이 없게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해제깎것은 잘한 일입니다.》

한동안 불도젤들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도의 책임일군을 돌아보시였다.

《토지정리가 끝나면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토지정리를 하여 천지개벽이 되었다고 만세만 부르지 말고 알곡생산을 늘여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도 높아질수있고 토지를 정리한 보람도 있게 됩니다. 그러자면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여 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도의 책임일군은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넣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산기슭 아늑한 골안에 들어앉은 농촌문화주택들을 바라보시였다. 최근년간 형제별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지난날 별가운데 자리잡고있던 마을들이 다 없어지고 양지바른 산기슭에 새 마을들이 생겼었다.

《벌에 널려있던 집들을 모두 옮겼구만.》

《예. 이왕이면 살림집들까지 혁명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책임일군의 음성에는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마을들이 차지하고있던 토지면적도 적지 않았다. 더 많은 농토를 얻어내는것과 동시에 살림집까지 번듯하게 꾸리자고 마음먹은 이들의 일본새가 마음에 드시였다.

《농장원들이 좋아합니까?》

《예. 세찬 벌바람을 피해 양지바른 곳에서 살게 되어 좋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멋들어지게 지은 문화주택들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위를 찬찬히 살피시였다. 여기 어디에 샘물터가 자리잡고있던 생각이 드시였던것이다. 풍치수려한 향나무가 서있는 샘물터에서는 수정같이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구쳐올랐었다.

《한응진동무, 여기 어디 샘물터가 있지 않았소?》

《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곳이 샘물터자리입니다.》

《그렇소? 천지개벽이 사실이로구만. 인상깊던 샘물터자리도 찾아볼수 없으니... 옛날 지주가 아무리 토지문서장을 들고와도 제땅을 어떻게 찾겠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그런데 팔팔 솟구치던 샘물이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행해피해를 없애기 위해 암거를 묻어 뽑아버렸습니다.》

한응진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쪽을 손으로 가리켜드리었다.

《암거를 묻었던 말이지...》

생각에 잠기시였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도의 책임일군을 돌아보시였다.

《샘터마을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말썽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말썽이 있었다...》

김정일 동지의 음성에 서운한 기색이 어리자 책임일군은 잠시 주저하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였다.

《한 로인이 자기는 죽어도 샘물터를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마을이 다 철수한 다음에도 버티기를 하여 애를 먹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갑자기 가슴이 허전해지시였다.

《어떤 로인입니까?》

《최재복이라구 이 아근에서는 한다하는 상씨를 군인데...》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그이의 가슴에 그토록 아픔을 주던 최재복의 갑작스러운 로쇠가 어디에서 온것인가 하는것을 비로소 깨달으신것이였다. 씨름경기에 나서지 못한것은 나이들어 기력이 쇠진해진데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떠옮기는것이 생리인 벼모도 모내기하면 며칠씩 모살이를 하느라 앓는데 하물며 샘물터와 씨름터를 잃고 타고장으로 간 로인이야 오죽하겠는가.

《웅진동무, 로인이 왜 버티기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까?》

《예. 토지정리가 좋다는것은 알면서도 샘물터와 씨름터가 아까와 못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칸짜리 새집에 수도까지 제일먼저 놓아주었는데도 싫다면서 쌍계리 관리위원장인 아들네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성질이 몹시 까다로운 로인이였습니다.》

한응진은 고집스럽고 성깔지던 로인과 맞다들어 싱갱이질을 하던 일이 되새겨지는듯 얼굴을 붉혔다.

《다른 농장원들은 더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동안 갈매기가 날아에는 바다가를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작업반원들의 목이 마를세라 강냉이밭 최쪽에 딸기를 놓아주고 삼복더위때 얼음이 떠도는 오이랭국을 타다주던 한응진이 아닌가. 그런데 그 인정미가 다 사라진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큰일을 맡아하니 그쫘한것은 무시해버리여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에 생각을 덧놓으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로인의 말은 진실입니다. 여기 샘물은 맑고

시원할뿐 아니라 약효도 있습니다. 삼복철에 오이랭국을 타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속달까지 낫기 때문에 10리밖에서도 여기 샘물을 길어간다고 합니다. 해방전에 읍에 살던 지주놈이 이 샘물터를 독차지하려고 왜놈경찰까지 끌고왔었으나 온 마을이 떨쳐나서 기어이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고로 되어 여기에 첫 기둥을 박고 샘물터를 꾸리었는데 그후부터 샘터마을이 더 번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좋은 샘물터를 버리고 훌쩍 떠날수 있겠습니까.

이 마을에는 장수자가 많고 이름난 씨름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샘물덕이라고 합니다. 동무들도 들었겠지만 최재복로인도 그의 아버지도 소문난 씨름꾼이었습니다. 해방전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각지 씨름꾼들이 이 샘터마을로 모여들어 경기를 하였습니다. 해방후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최재복로인이 탄 황소만도 여섯마리나 됩니다. 그러나 샘물터를 잃은 최재복로인은 올해의 씨름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웅진동무,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

자기의 실책을 깨달은 한웅진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최재복로인이 찾아와 집은 다 이사를 가더라도 샘물터만은 남겨달라고 사정할 때 자신은 시끄럽게 여기며 모내기에 지장이 없게 공사를 내밀 생각만 하였던것이다.

자책이 어린 한웅진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었다.

그처럼 새까맣고 윤기가 흐르던 한웅진의 머리칼속에 흰 오리들이 드문히 섞여있었던것이다. 그러고보니 검실검실한것만 같던 그의 얼굴에는 연한 살개미가 돋고 물집이 터진 입술에는 빨간 반점이 남아있었다.

김정일 동지의 가슴속에는 뜨거운련민의 정이 솟구치시었다. 생각각아서는 한웅진을 위로해주고싶으시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웅진동무, 우리가 토지정리를 하고 새집을 짓는것도 다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잘 살게 하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인데 그걸 잊은것 같습니다.

물론 거창한 토지정리에 비하면 샘물터 하나는 자그마한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민들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할 때 결코 소홀히 스칠 일이 아닙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세심해야 합니다. 웅진동무의 가슴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 인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인민의 목소리를 듣는 귀가 멀어진것이 아닙니까. 양명농장때의 인정미가 사라진것같아 근심스럽고 섭섭합니다.》

《장군님, 제가... 그만...》

한웅진은 자신의 파오가 무겁게 안겨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이제는 어쩌면 종단 말인가. 모

내기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벌판가운데 묻어 버린 샘물터를 어떻게 하겠는가.

《장군님, 토지정리계획도에는 샘물터가 무시되었기에...》

한웅진은 저도 모르게 외람된 말을 터놓았다.

《동무야 일군이 아닙니까. 계획도는 그렇다치더라도 동무는 거기에서 선과 점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감정, 민족의 숨결을 마땅히 느껴야 할것이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슴아프신듯 새로 꾸린 은정마을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한동안 걸으시던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기도 하고 거리도 가늠해보시며 생각에 잠기곤 하시었다. 마을앞에까지 당도하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었다.

《어떻게 하면 저 논벌가운데 묻힌 샘물을 여기에 끌어올수 있겠습니까?》

《양수기를 놓아 마을로 끌어다 수도에 련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도의 책임일군이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일군들은 서로 얼굴들을 마주볼뿐 누구도 선풂 입을 열지 못하였다.

《양수기까지 놓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샘물터가 논벌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샘물터자리가 좀 높은 곳이므로 새 마을까지 관을 묻으면 샘물이 저절로 흘러올것입니다.》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듣고서야 샘물터자리와 은정마을을 가늠해보는 일군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샘물을 끌어다 마을앞 공지에 샘물터를 잘 꾸리고 옛대로 씨름터와 빨래터도 꾸려줍시다. 능수버들이 없어 아쉬운데 그네줄까지 매주면 마을녀인들과 처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장군님 말씀대로 모내기철전에 다 꾸려놓겠습니다.》

가슴을 옥죄이기만 하던 한웅진은 새로운 용기가 솟구쳐올라 말씀드렸다.

《좋습니다. 웅진동무가 결심하고 나섰으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을과 샘물터자리를 가늠해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있는 곳에 이르시었다. 차문을 여신 그이께서는 쌍계리쪽을 바라보시었다. 샘물터를 다시 살린다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러나 분초가 바쁘신 그이이시었다. 샘물터 문제로 하여 예정된 시간이 펍 지난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쉬운 마음을 누르시며 차에 오르시었다.

4

한응진은 답답한 가슴을 식히려고 밖으로 나왔다. 해당 일군들과 마주앉아 흙관을 생산할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실통한 방도가 나설지 않았다. 이제는 구조물공사까지 끝났으므로 세멘트예비를 짜낼 재간이 없었다. 설사 세멘트가 해결된다 하여도 모내기전에 끝낼수 있겠는지 걱정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응진은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세멘트부터 해결해야 하였다. 자칫하다가가는 샘물터공사때문에 모내기가 늦어질수 있었다. 모내기가 하루만 늦어도 떨어지게 될 수확량을 계산해보니 엄청났다.

《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담배를 붙여물던 한응진은 지휘부에서 일하는 청년의 말에 정문으로 나갔다. 뜻밖에도 최재복로인이 달구지를 한쪽에 세워놓고 기다리고있었다.

《로인님, 이른아침에 웬일이십니까?》

《그새 수고 많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샘물터를 되살려주라고 하셨다기에 너무 황송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로인은 지난날 한응진과 옥신각신한 일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였다.

《전번에 제가 로인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한응진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를 하자 최재복은 꺾쩍 뛰며 도리어 용서를 비는것이였다.

《주책없는 이 늙은이를 욕 많이 하시오.》

《로인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샘물터와 씨름터, 빨래터를 더 번듯하게 꾸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마울로 돌아와 살도록 하십시오.》

《고맙게다. 역시 큰 어른들은 도량이 넓구만요. 너무 마음쓰지 마시오.》

최재복은 한옆에 세워놓은 달구지를 끌고왔다. 달구지에는 100키로그램이 훨씬 넘는 돼지가 실려있었다.

《적은것이기는 하지만 집에서 기르던것이니 받아주시우. 샘물터를 옮기느라 수고하는 건설자들에게 대접해주시우.》

《로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응진은 로인의 두손을 그러쥐었다.

이튿날 한응진의 차가 발동을 걸고 세멘트공장으로 떠나려던 때였다. 뜻밖에도 큰길쪽에서 군대차들이 련속 꼬리를 물고 달려와 토지정리지휘부 마당에 정렬해 서는것이였다.

한응진은 웬일인가 하여 차에서 뛰어내리었다.

《책임자가 누구니까?》

상좌견장을 단 군관이 마당에 서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접니다.》

한응진은 의아하여 낮모를 군관을 바라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저희들을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지휘부성원들은 급히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샘물터를 옮기는데 필요한 관을 이제 생산해서 공사를 벌리려면 모내기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지원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왔습니다.》

적재함문을 열자 잘 양생된 흙관들이 아침햇빛에 번뜩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저도 모르게 달려가 관을 끌어안은 한응진은 눈물을 알각 쏟았다. 그토록 안타깝던 문제가 이렇게 풀릴줄 꿈에나 생각했던가.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에 감격하여 서로 얼싸안고 불을 비비며 눈물을 흘리었다. 흙관을 다 부리자 지휘부일군이 한응진의 옆으로 다가왔다.

《돼지를 군인동무들에게 보내줍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은 자기네 차에 돼지를 실으려고 하자 꺾쩍 뛰었다. 자기들은 관을 신고가서 도와주라는 명령을 받았지 돼지를 신고오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군민이 힘을 합쳐 모내기전에 공사를 와닥닥 끝내라고 자기들을 보내주시었다는것이다.

온 마을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돌격대원들은 물론 마을의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섰고 얼마후에는 이웃마을과 군에서 지원로력이 떼를 지어 들이닥치였다.

밤마다 공사장은 화불로 불바다를 이루었고 방송차의 격동적인 선동과 노래소리, 웃음소리로 격랑처럼 실려였다. 그리하여 샘물터의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는 며칠내에 끝났다.

5

김정일동지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들판을 유정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토지정리를 한 논에 모내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30프로 계산에 올라섰다고 한다. 농장원들의 열의가 대단하였다.

샘물터와 씨름터, 빨래터를 완성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형제별로 차머리를 돌려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은정마을 입구에 멎어섰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샘물터로 향하시였다. 오래전 추석날에 보시였던것과 똑같은 풍치수려한 향나무가 서있는 옆에 샘물터가 자리잡고있었다. 정

갈하게 꾸러놓은 샘물터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구쳐올라 맑알같이 하얀 조약돌들을 씻으며 흘러내리었다. 금시 한모금 마시고싶을 정도로 깨끗하였다.

샘물터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은 푸른 하늘을 떠이고 층층이 고여있는데 큼직큼직한 화강석관돌들을 네모나게 다듬어 깔아놓은 빨래터는 인민군부대들의 세목장처럼 규모있고 맵시났다. 비누물이 따로 흐르게 한 옆으로는 빨래를 널어 말리울 덕대도 나란히 세워주었고 그 뒤쪽 약간 둔덕진 곳에는 씨름터가 자리잡고있었다. 아이들의 물놀이장과 양어장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알뜰하게 꾸러져있었다.

두팔을 가슴에 엇걸으시고 샘물터를 중심으로 새로 꾸린 시설들을 둘러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도의 책임일군에게 물으시었다.

《농장원들이 좋아합니까?》

《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샘물을 마시며 일하니 건강해지고 씨름터와 빨래터에 나와 정도 나누고 마음도 합치니 마을이 더 화목해진다고 합니다.》

《정도 나누고 마음도 합친단 말이지요. 그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토지를 정리하는것도 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것인데 농장원들이 좋아한다니 뻘었습니다. 그런데 웅진동무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농수버들을 뜨러 갔습니다.》

《그네터를 꾸러주겠다는것이구만. 잘 생각했습니다. 올해농사나 지어놓고는 여기에 한증탕도 현대적으로 꾸러줍시다. 한증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했고 여러가지 병치료에도 좋습니다. 로인들에게는 한증이 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증탕을 꾸러놓으면 우리 농장원들이 겨울에도 목욕을 뜨뜻이 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장군님! 알겠습니다!》

너무도 감격하여 눈을 습벅이는 책임일군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서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감나무가 서있는 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앞으로 집집마다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어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집주변에 감이나 배, 대추나무들을 심어놓고 <감나무집>, <배나무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 새로 정리한 토지에 어울리게 마을을 더 잘 꾸러 전국 의 모범이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마을을 돌아보고 나오실 때 한웅진이가 농수버들을 떠시고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린 한웅진은 정중한 자세로 **김정일** 동지께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관으로 샘물터를 옮기었습니다.》

《이미 다 돌아보았습니다. 샘물터도 그렇고 씨름터와 빨래터도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농수버들까지 심어놓으면 운치도 좋고 먼 후날 후대들은 농수버들에 그네줄을 매고 즐길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구만.》

《장군님,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기장에 있는

그네대처럼 만들어놓자고 합니다.》

《평대신 닢이라. 허허, 그럴수밖에 없겠구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한웅진을 바라보시었다.

한웅진은 뜨거운 걱정이 치솟아 목이 꺾 메었다. 정녕 장군님의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농수버들을 어디에 심을 예정입니까?》

김정일 동지께서 한웅진을 돌아보시었다

《그전에 있던것처럼 샘물터옆에 심겠습니다.》

《모든걸 옛모양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생각에는 씨름터옆에 심고 그네터를 꾸러주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처녀들이 그네를 뛰면서 자기 애인이 씨름하는 모습을 볼게 아닙니까.》

《장군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웅진은 씨름과 그네뛰기를 하는 총각, 처녀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싱긋이 웃음을 지었다.

《가만... 최재복로인이 아직 이사오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끝난 이튿날에 이사집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뒤쪽에 보이는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쌍계리 관리원장이다보니 로인내외만 와서 좀 적적해하는것 같습니다.》

이때 마을 뒤쪽에서 헐떡이며 달려나오는 로인이 있었다. 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여오는 최재복이었다. 감격에 목메여 무릎을 꿇으려는 그를 **김정일** 동지께서 부축해주시었다.

《장군님 덕분에 청춘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얼굴에 비끼였던 그늘이 가셔지고 혈기가 뻗친 로인의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대하시었다.

《로인님, 씨름터옆에 그네터를 꾸러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이니 더 이룰데 있습니다. 마을녀인들이 춤을 줄것입니다.》

《로인님이 좋다니 뻘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그네터를 잡읍시다.》

김정일 동지께서 앞서시자 모두 따라섰다. 씨름터와 그 주변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그네터로서는 명당입니다. 내 마음에 듭니다. 로인님이 씨름을 할 때 안로인이 그네를 뛰며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겠습니다.》

《우리 로친은 그네를 뿔출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년에는 어떻게 하나 씨름경기에 꼭 출전하겠습니다.》

《로인님의 결심이 좋습니다. 출전할바에야 1등을 해야지요. 로인님의 안다리걸기와 무릎치기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 믿어주시니 자신이 생깁니다.》

《씨름경기에서 1등을 하고 세상에 소리치십시오. 내가 샘골의 장수 최재복이라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웃으시며 최재복의 손을 잡으시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젠 모든것이 만족합니까?》

《예.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젠 부러운것이 없습니다.》

최재복이 련속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거듭 손을 저으시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로인님께서 자꾸 이러시면 제가 오히려 웅색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진정하시고 한가지 문제를 더 의논해봅시다.》

최재복의 마음속에 서린 시름을 풀어주시느라 애쓰시는 **김정일** 동지를 뜨겁게 우리르던 한응진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응진동무가 들어도 일없습니다. 로인님, 마을 이름이 어떻습니까?》

《은정이라는 이름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로인님이 다른것은 모두 결괏있게 대하였는데 이번만은 솔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물론 당의 은정속에 마을이 개변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곳 농장원들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는 은정이라는 말보다도 샘터라는 말이 더 가깝게 들릴것입니다. 그러니 마을이름도 원래대로 부르는것이 어떻습니까? 샘터마을이라고...》

《장군님...》

최재복은 목이 메어 또다시 눈굽을 적시었다.

그 순간 한응진은 자기의 가슴속을 찢 열어제끼며 샘터의 물줄기가 새로운 의미, 새로운 뜻을 담고 흘러드는것을 느끼었다.

사회주의땅답게 변모된 현대적이며 대규모적인 규격포전들, 그 대지의 한복판으로 줄기차게 흐르는 샘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의 력사, 민족의 풍속과 전통을 실고 더 빛나게, 더 거세차게 흐르는 민족성의 줄기찬 흐름이었다.

정녕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의 이 대지우에 유구하고 찬란한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더 높이고, 더 찬란히 꽃피우고계시는 위대한 애국자이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그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를 실고 세세년년 샘터의 물줄기는 사회주의대지를 적시며 흐르고 흐르리라!

걱정으로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는 한응진의 손을 굳게 잡아주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유쾌하게 떠들썩 웃으며 샘물터로, 빨래터로 나오는 마을녀인들의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다가 차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땅크병자랑

리일섭

세 아들을 룡해공군에 다 보냈다고
동네방네 자랑도 많은 감나무집에
오늘은 새벽까지 깉-깉 울더니
땅크병된 막내아들 소식 날아왔네

어느새 이렇게 컸담
군대생활이 좋긴 좋아
이손저손 옮겨가는 병사의 영예사진
군기앞에서 찍은 그 사진 보며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도 웃음이 병글췌

어서 읽으라구
그래 편지엔 또 뭐라고 썼나
생활에서 모범, 훈련에서 우를 맞아
부대장 감사받고 초급병사 되였다고
그 소리에 앞벌의 랑상모도 우줄우줄 키쫘구는듯
바람처럼 날아든 새 소식에
막내또래 처녀들도 달려와 어깨성 쌓고
땅크라고 락동강까지 갔다왔다 자랑많은
웃마을 로병아바이 무릎을 철썩 치며
아무렴, 군종병종 많아도 땅크병이상 없지

제사 이 집 막내부대 로병이라며
엮어대는 근위땅크사단의 연혁사-
땅크포탑우에 공화국기 휘날리며
서울과 대전시가로 남먼저 돌입한 부대
우리 수령님 선군령도의 자욱어린 군공많은
부대라고...

령감님 신바람에 해넘기겠다

그 소린 후에 듣고
이 집 막내소식 마저 듣자 독촉하는
로친네의 핀잔은 듣는등마는등
영예사진 들고 화선시절 제 모습 찾아보는 로병

또다시 읽는 편지 가슴울리는 그 목소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45년전 여름날
여기에 선군령도의 첫자욱 새기셨다고
전화의 포연서린 땅크물도 돌아보시며
우리 군대를 혁명강군으로 만들 넓은 길
열어주셨다고

언제나 땅크병들 그리도 믿어 내세워주며
오늘도 찾고 또 찾으시여 베푸시는 사랑
땅우에 넘쳐 하늘에 닿는 그 사랑 안고
결사옹위의 제일성벽 무쇠방탄벽이 되겠다는
사내썩 맹세엔 프락프르소리도 목메여
화답하는듯

아, 기쁨에 젖고 사랑에 젖는 그 소식
감나무집 자랑이자 온 마을 경사라고
너도나도 마음속에 보답의 로적거리 쌓으며
장군님 오늘도 가고가시는 전선길 우리러
우리러 뜨거움에 젖고 감사에 젖는데

좌중을 둘러보며 로병아바이 하는 말
봄들판이 설레네 마음들이 설레네
-아무렴,
땅크병자랑 끝이 있을라구
암, 그렇구말구!

철 령

사공일금

나는 지금 봄빛 따사로운 철령의 령길을 오르 고있다. 몇번이나 경적을 울리는 고마운 운전사 에게 손저어 사양의 뜻을 알리고 내쳐 걷고있다. 걸어서 오르고싶다. 백두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 길의 한걸음한걸음을 뜨거운 심장으로 더듬고싶다. 벌써 두번째로 오르는 이 령길이다.

오래전의 일이다. 중학교시절 화판을 메고 모 란봉이며 대동강유보도를 찾기에 여념없던 아들 애가 돌연 인민군대로 탄원하여 나가더니 몇해후 에는 인민군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로부터 또 몇해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내 어느 한 기관 에서 일을 하던 인물값고 몸가짐새가 단정한 이 웃 고층살림집 처녀가 내 아들을 따라 철령넘어 최전연초소로 떠나갔다. 참으로 우리 시대가 키 운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다.

결혼식을 하고 부대로 떠나는 아들, 머느리를 역두에서 바래우면서 또 그들이 초소마을에 새로 지은 살림집에 자리를 폈다는 소식이 왔을 때도 꼭 한번 그곳에 다녀오리라 마음다졌었다.

그러나 제 뜻대로만 되지 않는것이 생활인가 싶 다. 이런저런 기회를 만들어보다가 끝내 소망을 이루지 못하였다. 번마다 무슨 긴한 사정이 제기 되어서는 아니었다. 한번은 마음먹고 려장을 꾸 러보았으나 또 포기하고말았다.

한겨울에 그 높고 험한 철령의 눈길을 어떻게 헤치랴싶어서였다. 어쨌든 좋은 날을 택하여 길 을 떠나리라는 생각만은 마음속에 남겼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나는 뜻밖에도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아침보도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겨울의 찬바람을 헤치며 눈덮인 철령 을 넘어 최전연의 군인들을 찾아주셨다는것이다.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가슴속에서는 뜨 거운것이 가득차오르고 이름할수 없는 걱정이 온 몸을 사로잡았다.

친혈육의 정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 그 높고 험 한 철령의 눈보라길을 헤쳐 우리 장군님께서 우 리 병사들을, 나의 아들을 찾아가신것이다.

심장의 박동소리가 귀가에 들릴듯싶게 높뛰고 마음은 끝없이 설레었다.

최전연군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생 활구석구석까지 보살피주시며 또 그들이 부르는 소박한 노래까지 다 들어주시며 잘한다고 치하해 주신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러면서 최전연의 고지마다에 불어칠 겨울의 찬바람이 급방 피부에 와닿는듯 한 감각 을 느끼었다.

가슴속에서는 그저 (경애하는 장군님, 이런 날 에 그 험한 령을 넘으십니까?) 하는 목메임소리 만이 고래칠뿐이었다.

하늘에 수리개 한마리가 유유히 원을 그리며 날고있었다.

저만치 또 저만치에 철쭉꽃이 무리져 피어나

나를 반긴다. 둘러보면 멀고 가까운 산릉선과 계곡마다에 그리고 굽이굽이 뻗어오른 령길에 연분홍 철쭉꽃이 천천, 만천으로 떨기져 설레인다.

어느해 봄 철령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때 이르게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기뻐하신 그 꽃들이 다. 그 꽃 한송이한송이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녕 을 지켜 총잡고 초소에 선 수천수만의 인민군장 병들의 모습을 그려보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의 길에 이 꽃을 보시며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셨으면 하는 소원을 담아 최전연군인들이 애지중지 가꿔간다는 철령의 철쭉꽃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철령의 철쭉을 두고 사랑과 그리움의 꽃이라 부른다.

철령을 찾을때마다 그 뜻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치곤 한다. 그래서 더욱 이 길을 오르고싶은 마음이 동하곤 한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산, 가까운 산을 태울듯이 붉게 물들인 철쭉꽃을 둘러본다.

그저 아름답다기에는 그 표현이 뭔가 부족해보 이는 심정이다.

그대신 숨넘한 감정이 마음속을 채운다.

정녕 철령의 철쭉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사랑과 은정을 길이 전하는 꽃중의 꽃으로, 어 버이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한없는 그리움과 충성의 한마음을 그대로 담아안고 피어 난 꽃으로 천만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하여 선군시대의 이름높은 《선군8경》의 하나 인 철령의 철쭉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 에 사랑과 충정의 절경, 은정과 보답의 절경으로 활짝 피어난것이 아니라.

나는 후더워오르는 마음을 안고 령아래를 굽어 보았다. 계곡을 옆에 끼고 산릉선을 타고넘으며 아득히 령아래로 굽이쳐내린 령길이 눈뿌리를 자극한다.

일찌기 40여년전 어느 한 인민군팡크부대를 찾 으신 때로부터 우리 장군님께서 견고걸으신 선군 혁명령도의 천만리길과 잇닿아있는 뜻깊은 령길 이다. 선군혁명의 빛나는 전통을 창시하시여 우 리 당 선군정치외 귀중한 밑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군건설위업을 높이 받들 고 우리 장군님께서 수습성상 이어오신 선군령도 의 천만리길...

그 길과 이어진 철령의 령길은 우리 장군님 걸 으신 선군장정의 그 멀고먼 길들과 더불어 우리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여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준엄한 나날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 시고 사랑하는 최전연의 군인들을 찾아 비가 와 도 넘으시고 눈이 와도 넘으시고 낮에도 넘으시 고 밤에도 넘으신 우리 장군님.

그 길에 새겨진 우리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그 얼마이며 그 사랑 속에 용맹을 키워온 병사들이 바친 충성의 이야기는 또 그 얼마이라.

내 마음에는 그 하많은 가슴뜨거운 사연을 철령의 철쭉꽃이 다 안은듯싶다.

그래서 이 세상 산과 들에 피어나는 온갖 꽃보다 더 아름답고 송엄하게 내 가슴에 안겨지는 것이다.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온통 철쭉꽃에 싸인 령마루를 바라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나어린 병사를 한품에 안아 몸소 기념사진을 찍으신 뜻깊은 령마루이다.

아버이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목매여 우리 병사들이, 나의 아들이 영원히 우리 장군님과 운명을 같이할 불같은 맹세를 다져가는 충성의 령마루이다. 그 사랑, 그 맹세를 길이 전하며 철쭉꽃이 설레인다.

나는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디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 나도 순결하고 열렬한 한송이의 철쭉꽃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로 삶을 빛내이리라 마음 다지며...

신군시대의 《신군8경》의 하나로 이름높은 철령의 철쭉이여! 설레이라, 설레이라...

☆혁명설화☆

금로수

주체36(1947)년 9월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고성군 온정리에 도착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곳에 머무르시는 기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현지지도사업을 더 잘 보장해드릴까 하는데 언제나 마음을 쓰시였다.

숙소를 정하신 김정숙동지께서 몸소 위대한 수령님의 식사준비를 하실 때였다.

주변을 돌아보고 온 한 일군으로부터 멀지 않은 산기슭에 《금로수》라는 좋은 샘물이 있다는 것을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샘물을 장군님의 식사보장에 리용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샘물터에 가시여 물맛도 보시고 그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시였다.

샘물은 수정처럼 맑고 정갈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샘물을 길어다 밥도 짓고 위대한 수령님께 정히 떠서 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정히 떠드린 시원한 금로수를 드시면서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금로수와 같은 약수들이 많다고 하시며 어디 가보아도 우리 나라처럼 아름답고 물 좋은 곳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점심식사가 끝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금강산을 향해 숙소를 떠나시였다.

9월이라 하지만 한낮의 해빛은 뜨거웠다.

만물상구역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함석집 한채가 나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좀 쉬어가자고 하시며 그 집 퇴마루우에 걸터앉으시였다.

더위를 참아오던 일행도 함석집의 그늘아래에 앉았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찬물을 찾으시였다. 수행한 일군이 준비해가지고 다니던 물병을 드리려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잠깐 기다리게 하시고 급히 주인집아주머니를 찾아가

까운 곳에 샘물터가 없는가고 물으시더니 물동이를 빌려가지고 샘물터에 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신 다음 자신께서 먼저 물을 떠서 마셔보신 후에야 물동이에 샘물을 퍼담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떠오시여 정히 떠드린 물을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맛이 참 좋다고 하시며 수행한 일군들에게도 권하도록 하시였다.

말그대로 물맛은 이를데없이 좋은 금강산의 샘물이었다.

시원한 물 한그릇을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려고 순간의 다리침도 없이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으시는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다시 길을 떠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삼선암으로 오르는 험한 길을 앞질러 나가시며 돌출계도 살펴보시고 란간의 손잡이들도 든든한가 하나하나 확인해보시며 수령님의 신변안전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삼선암에 오르니 만물상이 한눈에 안겨오고 천태만상의 황홀경이 펼쳐졌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녁때가 다가오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저녁식사가 걱정되시여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신변 안전을 부탁하시고 숙소를 향해 산을 내리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그렇게도 보고싶어하시던 만물상인데 마저 올라가보고 내려가시라고 거듭 말씀드리였다.

항일의 나날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전설처럼 들어오시던 금강산이였지만 오직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날 천하절경을 앞에 두고 오르시던 길을 되돌아내려가시였다.

50여년전 그날에 보여주신 친위전사의 빛나는 모범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것 같다.

수령결사옹위에 우리 혁명의 궁지높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휘황찬란한 강성대국의 래일이 있다.

철령척촉련가

리창식

찬 눈비 모진 바람 모두 맞으며
장장세월 곳곳이 서있는 철령

높은 령 험하다 생각지 마오
그 품속엔 어여쁜 철쭉이 있소

×

꽃잎이 고와서 정이 든 꽃이나
그 향기 하도 짙어 못잇는 꽃이나
만단사연 안겨있는 최전연 동구길에
다름아닌 네 피여 정도 깊은 철쭉이로다

×

붉고붉은 그 모습 얼마나 더 붉으려나
떨기떨기 붉다못해 령이 온통 붉었네

붉고붉은 그 모습 어디까지 붉으려나
령이 온통 붉다못해 내 맘마저 붉었네

×

철쭉이 피는 뜻을 초병이 알고
철령병사 그 마음을 철쭉이 아네

봄을 불러 오늘도 철령에 핀 철쭉이고
장군님을 지켜선 철령의 병사런듯

붉은 꽃 붉은 령

신문경

봄하늘의 해살을 여기 다 쏜듯
철쭉꽃 무리지어 흐르는 철령
그래도 더 붉게 하려는듯
태양도 빛과 열을 끝없이 뿌려주는
아, 붉은 꽃 붉은 철령

한밤을 달려 수백리
야전차 질풍처가던 동녘의 붉은 노을
유난히 눈부시던 그 빛같이
지지 않고 여기에 비낀진 아닌가

발동소리 울려도 우리 장군님 생각
경적소리 울리면 한밤에도 일어난다는
최전연병사들 붉은 마음들이
그리움의 령마루에 젖은것은 아닌지

조국의 운명을 안고
한순간도 멎은적 없는 령장의 걸음앞에
소리없는 그 붉은 빛갈로
조국의 봄을 알려드린 철쭉꽃

영원히 지지 않는 이 땅의 봄을 불러

눈덮인 산과 들을 달려오신 장군님께
헌신의 보람을
더해드린 꽃이여

어느 산 어느 골에
내 마음도 함께 피우라
어느 굽이 어느 길센에
내 진정도 함께 묻으라

불타라
이 나라 평범한 사람들
그 누구의 마음이 여기서 함께 피지 않고
그 누구의 소원이
여기에 함께 타지 않으랴

봄이 가도 이 마음속에 너는 붉은 꽃
눈이 덮여도 우리 마음에 너는 붉은 령
애국의 큰뜻에 한 빛으로 뭉쳐지는
아, 너의 붉은 빛갈속에
나도 한떨기로 피련다
붉은 꽃 붉은 철령이여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김승남

화창한 이 봄날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릅니다
사연많은 두자루의 권총
아드님께 소중히 넘겨주시는
강반석어머님의 소중한 모습을

너무도 짧으신 생애에
크나큰 업적을 쌓으신 어머니
별처럼 빛나는 하많은 이야기중에서도
어찌하여 이 화폭이
이 가슴에 진하게 새겨집니까

두자루 저 권총에서
시작된것 아십니까
아드님을 도와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기를 운반해오신
말리허의 그 밤길이

두자루 권총에서
이어진것입니다
혁명적무장력의 첫 탄생을 알리던 그 시절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언덕에서
수령님과 함께
반일인민유격대 대오를 사열하시던
어머님의 감격에 찬 그 발걸음은

아, 무장으로만 찾아야 할 조국이기에
만경대가문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긴 권총

나라의 독립도 후손만대 행복도
총대가 강해야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수령님께 이르시던 어머니의 그 당부
오늘도 우리 귀전에 들려오나니

그 두자루의 권총이
오늘은 천만의 어깨우에서 번쩍입니다
장군님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도
총대가 있어 강하게 펼쳐집니다

주체혁명무력의 첫 자욱처럼
소중히도 새겨진 두자루의 권총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혁명의 첫 가슴에
오, 두자루의 권총은
기발처럼 나뭇집니다

그날의 수령님께
넘겨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오늘은 온 나라 군민이 받아안았습니다
김정일장군님 이끄시는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보검으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 줄기차게 이어질
두자루의 권총

그 총대와 더불어
혁명의 스승으로 영원할
아, 강반석어머님이시여

〈가사〉

수령님 찾아가는 길

김재룡

못잊어 사무치는 그 사랑 안고
금수산기념궁전 찾아갑니다
태양의 그 영상 우러러뵈는
이 마음 끝없이 설레입니다
아 수령님 찾아가는 길
그리움 그리움 넘치는 길이어

한평생 우릴 찾아오시던 길로
감사의 정을 안고 찾아갑니다
베푸신 그 은정 만대에 빛나

오늘도 감격에 목메입니다
아 수령님 찾아가는 길
눈시울 눈시울 뜨거운 길이어

조국과 인민위해 남기신 당부
심장에 새기며 찾아갑니다
김정일장군님 더잘 받들어
태양의 이 조선 펼치렵니다
아 수령님 찾아가는 길
맹세로 맹세로 불타는 길이어

《전호속의 나의 노래》가 창작되기까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을 지켜싸운 전사들의 위훈을 어제도 전해주고 오늘도 전해가는 전시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

이 노래가 창작된 때로부터 지나간 세월이 흘러갔어도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 언제나 즐겨부르게 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이 노래야말로 조국을 지켜싸운 병사들과 후방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담은 노래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가사에 <뺨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 팔로써 안기리>라는 대목이 있는데 얼마나 생동하고 생활적인 구절입니까.》

전쟁과 함께 종군의 길을 걸어 수천리 포연속을 헤쳐온 창작가들(시인 심봉원, 작곡가 김옥성)이 불타는 1211고지를 찾은것은 주체40(1951)년 6월 어느날이었다.

그 시각에도 전투는 가렬처절하여 1211고지는 말그대로 불타고있었다. 양갈진 폭음과 해빛을 가리우는 자욱한 포연, 하루에도 수십차례 전투가 벌어지는 고지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 불타는 고지우에서 우리의 믿음직한 영웅전사들이 싸우고있었다.

오직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영웅전사들, 탄알이 떨어지면 수류탄으로, 그것마저 떨어지면 공병삽과 부서진 바위로, 나중에는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원썬을 죽이는 그들은 말그대로 불사조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속에는 용감성만이 아닌 다감한 정서도 있었다. 원썬와의 싸움에서 용맹한 영웅전사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나서자란 고향산천과 부모처자에 대한 열렬한 사랑,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슴속깊이 간직한 다정한 인간들이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가 끝나면 불타는 고지의 전호속에서는 늘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자랑과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 남먼저 고향에 락원을 세우려는 전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꽃이 피어나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을 그러안고 눈물을 흘리던 일이며 사랑하는 처자를 거느리고 발갈이하던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는 아바이전사들, 동무들과 함께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 아버지의 배려움을 받으면서 총을 메고 집을 떠나오던 일을 생각하는 애젊은 병사들.

이런 아름다운 꿈을 지닌 병사들이 지켜선 포연 자욱한 전호가에 창작가들이 찾아왔으니 그들

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오라.

나어린 병사들은 저마다 가슴에 품고있는 훈장을 자랑삼아 꺼내보이기도 했고 자기 집에 꼭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지어 어떤 병사들은 자기는 외아들이라는것까지 덧붙여가면서 집주소를 적어주는것이였다.

일일이 다 들어줄수는 없었지만 거절할수도 없는 부탁을 한아름 받아안은 창작가들의 마음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전사들과 함께 승리한 조국의 래일로 내려쳐갔다.

그리하여 창작가들은 약속이나 한듯 전호속의 한모퉁이에 수류탄상자를 얹어놓고 땀에 젖고 화약내가 풍기는 오선지와 창작수첩을 펼쳐놓고 시조를 고르고 선물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노래는 이틀만에 완성되였다.

현지에서 직접 보고들은 전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소박한 꿈이 가사에 옮겨졌고 승리를 확신하는 전사들의 들끓는 랑만이 그대로 선물에 실려졌다.

세계의 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렬처절한 불길속에서 그것도 전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1211고지의 불바다속에서 이렇듯 아름다운 선물이 올릴수 있는것은 노래의 서정적주인공들인 인민군용사들의 내면세계가 그토록 깨끗하고 아름다웠기때문이며 또한 그것을 진실하게 반영하였기때문이었다.

사실 그때로 말하면 작곡가에게 있어서 크나큰 슬픔을 안고 괴로움속에서 창작활동을 벌리던 어려운 시기였다.

얼마전에 미제놈들의 폭격으로 그의 온 가족이 잘못되었던것이다.

미제가 남겨놓은 가슴아픈 상처를 가실길 없어 며칠동안 침식을 잊고 비운에 싸여 모대기던 작곡가는 다시금 마음을 억세게 다잡고 일어났다. 승리하고 고향에 돌아가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일싸 안고 기뻐할 인민군용사들의 뚝오르는 격정을 담은 주옥같은 선물을 거침없이 적어나갔다.

노래의 구절구절은 전사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노래는 곧 전호속의 전사들속에 널리 전해졌고 이사람, 저 사람의 입을 거쳐 고지에서 고지에도 힘있게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전사들은 물론 후방인민들도 즐겨부르며 전쟁승리의 그날을 앞당겨 싸웠던것이다.

노래는 창작된 때로부터 50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면서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 주고있다.



금대봉마루

류정옥

《위순길 동무, 이제 그만 마음을 돌리라구. 무슨 사내의 고민이 그리두 심한가.》

같은 직장 동료들이 저마다 하는 말들이 귀가에서 맴돌았다.

《벌써 해가 바뀌지 않았나.》

그랬다. 무르녹는 가을로부터 겨울이 지났고 지금은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다.

《그사이 처녀는 위동물 추억속에 묻어두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랬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결혼했다면 그것이 다행일가. 그가 결혼했다면 이 위순길의 마음이 가벼워질수 있을가. 어쨌든 그가 결혼했다면 더 바랄것이 없기도 하다.

《위동무로서야 더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야. 동무야 많은것을 희생할 결심을 하지 않았댔나. 그런 진실하고 참된 사랑도 받아들이수 없다는데야 어찌겠나.》

그 말도 부정할데가 없다.

서정님은 녀성으로, 안해로서는 커다란 약점과 제한성을 가진 녀자다.

처녀가 아무리 강의한 의지력과 정신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를 안해로 맞아들인다는것은 앞으로 걸게 될 인생길에서 커다란 희생성과 헌신성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것을 깨끗한 사랑이라는 감정속에 묻어버렸었다.

《동무가 그와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털어버리고 다른 처녀와 결혼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어. 동무로서야 할수 있는것을 다하지 않았나.》

좋은 자리에 소개를 하겠다고 나서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다.

그 말도 옳다.

나는 사랑에서 빚진것도 없고 의리를 저버린것

도 없다. 량심에 꺼리는것을 한것은 더욱 없다.

시내 거리거리는 사람들의 물결이 흐른다. 분주한 출근길과는 다른 한가롭고 즐거운 정서가 흐르는 퇴근길이다.

위순길도 퇴근하여 옥류교를 걷고있었다.

방긋방긋 웃는 애기와 《이야기》하며 야들야들한 불을 쪽쪽 빨아주는 젊은 어머니, 어깨동무내동무 책가방을 등에 진 소년단원들, 눈길과 눈길 표정으로만 말하며 걷는 처녀총각들, 뺨스들, 승용차들, 기쁨이 흐르는 거리, 행복이 가득찬 거리였다. 레사롭고 정상적인 생활이 흐른다.

이 위순길의 생활 역시 정상적이 아닌가. 웅당하고 정상적인 생활, 죄진 일도 의리를 저버린것도 량심없는것도 한것이 없는 인간, 하면서도 어째서 기쁨의 물결속에, 행복의 숨결속에서 기슭으로 밀리우는듯 걸음은 활기롭지 못한다.

머리를 수긋하고 발끝만 보며 걸던 위순길은 자기발앞에서 어떤 녀자의 구두발이 머뭇거리는 바람에 고개를 들었다.

까만 눈이 반짝반짝 웃으며 마주보고있었다.

영미였다.

천만뜻밖이었다.

《이게 누군가?! ... 내가 꿈을 꾸고있는건 아니겠지.》

《어마나?!》

영미 역시 너무도 반가와 위순길의 팔을 덥석 잡아흔들면서 소녀애처럼 모두 발뺨을 했다.

반년전 위순길이 제대휴가차로 지원을 나갔던 금대탄광 방송원이었다. 영미는 평양견학을 왔다는것이다. 모란봉이며 대동강구경을 나왔던 길이라고 했다.

《그래 아버지랑 다 건강하시오?》

영미를 알아본 첫순간 위순길의 뇌리를 번개처

럼 스친것은 서정님의 안부였다.

하지만 영미의 아버지인 봉화경 갱장 박대석의 안부부터 꺼냈다.

《예, 다들 편안해요.》

영미의 대답 역시 건성이었다. 그의 관심도 다 른데있는듯 하였다.

(이 사람이 이제 서정님언니를 다 잊어버렸겠지. 장가는 갔을가?)하고 엿보려는 기색이 그대로 그 눈길에 내비치고있었다.

위순길은 멀찍이 에둘러 말머리를 뺐다. 탄광 지원기간 친숙해졌던 탄부들에 대하여, 석탄생산 정형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며 마치 다치기 어려운 그 무슨 불발탄을 향하여 다가가듯이 조심히 정님의 곁으로 주춤주춤 좁혀들었다.

영미는 축기가 예민하였다. 그는 답답스레 바재는 위순길을 탁 밀쳐내기라도 하듯이 제멋저 말을 꺼냈다.

《정님언니도 잘 있어요. 여전하답니다.》

《그렇소.》

(여전하다?)

여전하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강직한 의지력, 생활을 사랑하고 창조하며 생활을 아름답게 감수하는 그 정신세계?… 그것이야 물론 여전할데지.

위순길이 알고싶으면서도 두려워지는것은 그것이 아니다. 두렵지만 알고싶다. 알아야 했다.

《정님동문 지금도 영미와 한방에 있소?》

《한방에 있잖음 어델 가겠어요.》

《…》 그것은 서정님이 아직 처녀로 갱장 박대석이네 집에 얹혀있다는것이다. 그래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에게 어서 새 생활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시름 놓일것 같기도 하다.

《언니와 나는 영영 같이 있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영?!》

《내가 시집가지 않는한 말이에요.》

《?…》

영미는 상글상글 웃고있지만 위순길은 부지중 가슴을 찢리운듯 하였다.

《언니에겐 그사이 여러 청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중엔 도에 있는 탄광기계공장 기사도 있었답니다. 그 기사는 정님언니가 탄광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걸 알고 우리 탄광으로 아주 오겠다고까지 했답니다.》

영미는 입술을 감쳐물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래서?》

위순길이 다그쳐 물었다.

《언니는 다 마다했습니다.》

《왜?》

《언니의 대답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이랍니다. 자기에겐 이미 정한 사람이 있다는겁니다.》

《정한 사람이 있다?!… 그거 정말이요?》

《?…》

영미의 눈빛엔 어쩐지 《그걸 몰라서 내게 묻습니까?》하는 질책이 어려있는듯 하였다.

그것은 지난해 가을에 있는 일이다.

1

금대탄광 외래자합숙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내가에 앉은 산듯한 2층집이었다.

위순길은 봉화경 갱장 박대석이 알려준대로 합숙접수실앞에 이르렀다.

접수원은 어디선가 오는 전화를 받는중이었다.

굽실한 머리를 뒤로 모아 단정히 빈침을 찌른 처녀였다.

《…평양에서 온 제대군인지원자라구요?…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려던 위순길은 접수원이 수화기를 놓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의혹과 놀람, 환희의 감정이 뒤바뀌며 가슴이 울렁이었다.

접수원은 틀림없는 같은 부대의 피콜새로 사랑받던 서정님이였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글쎄?!…》

처녀는 얼퍼름히 마주보며 머리를 기웃하였다.

위순길은 서운함을 느끼며 목소리를 쳐뜨렸다.

《저는 동무의 이름과 노래의 정서며 그 목소리 까지도 잊지 않고있었습니다.》

《예?…》

《3년전 발전소 물길공사장에서 받은 인상을 말입니다.》

그날 그는 노래를 아주 잘 불러서 재청을 받았다. 음색이 부드럽고 감정이 풍부할뿐만아니라 노래의 정서적색채를 잘 살려나가는 숨씨가 있었다.

위순길은 서정님의 그 재능을 대번에 간파할수 있었다. 학생시절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에서 음악적기초를 착실히 쌓은 그였던것이다.

서정님은 성악가로서의 재능이 옛보일뿐만아니라 그 얼굴생김새 또한 무척 눈길을 끄는 처녀였다. 숲속의 웅달샘같은 그윽한 눈, 상큼한 코, 어린애의 살결마냥 뽀얀 얼굴, 화가가 아름답게 다듬어놓은듯 한 모습이었다.

재청이 끝났을 때 옆에 앉은 분대 대원이 위순길에게 들쭉뭉음을 불쑥 내밀었다.

받아들긴 했으나 성큼 일어날수가 없었다. 그는 작업중에 웅덩이를 헛디더 발목을 굽쳤던것이 다.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던중이였는데 처녀앞에서 저도 모르게 절름발이걸음으로 나간다면 야단이 아닌가.

옆의 전사가 슬며시 옷자락을 당겼다.

(좋아. 병사의 의지가 그좁한 다리 하나 가누지 못하겠는가.)

그가 벌떡 일어섰을 때 요란한 박수소리와 함께 가수는 벌써 인사를 하고 돌아서고있었다.

아차, 기회를 놓칠판이었다. 급히 서둘러 걸음을 내짚던 그는 뜻밖에도 무엇엔가 걸채면서 비틀거리다가 어쩔수없이 주저앉고말았다.

와-웃음이 터졌다. 황급히 일어서려고 허둥거리는데 누군가의 손이 팔을 부축하고있었다. 서정님의 손이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서정님의 눈길은 부어오른 발목을 지켜보고있는듯 싶었다.

(이 무슨 망신이란.)

위순길은 창황중에 꽃다발을 넘겨주고 돌아섰다.

공연이 끝났을 때 서정님은 뜻밖에도 생무우춤을 비닐봉지에 싸들고 위순길을 찾아와 별경게 부어오른 발목에 싸매주었다.

《죽은 피가 삭고 부은게 내릴거예요.》

《?!...》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처방이랍니다. 마침 식당마당에 무우무지가 있길래.》

서정님은 생긋이 눈인사를 남기고 건설장을 떠나는 그들쪽으로 달려갔다.

신기한 일이었다. 아픔이 인차 멎었다. 그 혼하고 혼한 무우가 정말로 명약이였는지, 처녀의 손이 약손이였는지, 가혹한 마음이 아픔을 말끔히 걷어안고 갔는지, 어쨌든 위순길은 아픔을 싹 잊어버리게 되었다. 대신 그 발목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따금 자기 발목을 한참씩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마치 《죽은 피가 삭고 부은게 내릴거예요.》하던 랑랑한 그 목소리가 여전히 울려나오는 것 같기도 했고 손가락들이 살아움직이듯한 감각이 가슴에 스며들기도 했다.

그후 위순길의 가슴속에서는 처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점점 더 아름답게 리상화되어갔다.

어째서인지 그 녀자에게는 녀성이 갖추어야 할 그 모든것이 다 갖추어져있으며 그외에도 더 큰 것이 있을것만 같았다.

그 어떤 근거는 없었지만 그렇게 믿고싶었다.

그만한 용모에 남다른 예술적재능을 가진 그가 대학이나 예술단체에 가지 않고 군복을 입은것도 선군시대의 사명감을 바로 인식한때문이 아니겠는가.

지어는 때없이 기다려지기까지 하였다. 언젠가는 다시 불쑥 나타나 노래를 불러줄것 같기도 했다.

허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녀자는 이미 이 위순길을 잊어버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대되어 집에 오자 어머니가 마음속에 접적어두었다는 한 처녀에 대해 우점들을 말할 때에도 서정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가슴속에 간직되었던 처녀를 이처럼 뜻밖에 만나게 된것이다.

《그때 그 생무우춤찜질을 하던것을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그때 꽃다발을 들고 넘어질뻔 했던 그 동무가...》

처녀도 생각해낸듯이 반갑게 웃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위순길은 처녀가 권하는대로 접수실에 들어가 맞은편 결상에 앉았다.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이거 정말... 헌데 언제 제대되었습니까?》

《그때 부대에 경제선동을 나갔던 다음 몇달후였어요. 미처 몰라봐서 미안해요.》

《그럴수 있을겁니다. 별로 눈에 띄우는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처녀는 그 반대의 미소를 지었다. 그 눈길은 위순길의 넓은 이마, 술많은 눈썹, 응심깊은 호수처럼 일렁이는 눈빛, 순박하면서도 남성적인 모습을 여겨보고있었다.

《방금 갱장아저씨한테서 숙식조건을 잘 보장해드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동무일줄은 몰랐어요. 헌데 어떻게 이 산골탄광에까지 오셨어요.》

《지금 누구라없이 탄광들을 지원하고있는 때에 뭐 새삼스러울게 있습니까.》

문득 전화종이 울렸다.

서정님은 손님에게 랑해의 눈길을 보내며 수화기를 들었다.

후방과에서 오는 전화같았다. 모포니 세수소랭이니 하는 말들이 오고갔다.

전화를 받는 서정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부드러웠다.

한순간 흥분이 가라앉은 위순길의 가슴속에 불쑥 의혹이 갈마들었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녀자가 노래는 어데다 뒤두고 이 전화기앞에 앉았는가. 음색에서 자기의 특기를 가진 전망성 있던 성악가가 아니였는가. 그보다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때에 젊은 제대병사가 이렇게 뒤전에 앉아있다니... 아니, 저건 애기모자가 아닌가?! 전화기옆에 밀어놓은 뜨개질감이 위순길의 눈길을 확 그러잡았다. 빨간 털실모자에 꽃힌 뜨개바늘, 뾰족한 모자의 고깔이 눈을 찔렀다. 분명 애기모자였다.

하다면 이미 결혼한 애기어머니인가?!

위순길은 제풀에 가슴이 허전해졌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졌다.

때마침이라고 해야 할지 몸이 뚱뚱한 녀인이 들어왔다. 합숙책임자라고 했다.

정님은 그에게 위순길을 소개하고 박대석갱장의 부탁도 전달하였다.

《같은 부대 전우라니 이런 반가울데라구야.》

녀인은 대변에 호감을 표시했다.

《생김새역시 릉름하구만. 장가는 들었어요?》

《언제 그럴새가 있습니까.》

《그럼 휴가기간에 마련을 볼것이지. 처녀들이 줄을 섰겠는데.》

위순길은 빙긋이 웃고말았다.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는 마음에 두고있던 처녀와 만나자고 서둘렀다. 헌데 처녀도 휴가를 받고 집을 뜬 때여서 뒤로 미루었던것이다.

합숙책임자는 위순길을 호실에 안내하겠노라고 제먼저 위순길의 배낭을 들고 일어섰다.

위순길은 우울한 기색으로 묵묵히 따라섰다.

그처럼 아름답게, 고상하게 상상되던 처녀, 노래로써 시대의 가수가 될 창창한 앞날이 있던 그가 그것도 집어던지고 더우기는 한삽의 탄이라도 더 캐자고 들끓는 갱막장을 외면하고 전화통이나 지키면서 뜨개질따위로 날을 보내는 녀자로 되다니. 차라리 이런 상봉은 없었던것만 못하지 않는가.

위순길은 제대되어 어린시절부터 희망해온 예술활동의 무대인 청년중앙예술선전대(당시)에 배치를 받은 후 제대휴가를 받았다. 헌데 자신을 무료하게 내버려둘수가 없었다.

시시각각 듣고 느끼는것이 석탄문제였다.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지어는 아침저녁 밥짓는 어머니의 입에서까지 석탄걱정이었다.

때마침 예술선전대에서 금대탄광에 경제선동을 떠나게 되었다. 휴가라는 명분으로 빈둥거리던 그는 그 무슨 죄를 짓거나 한것처럼 급히 따라나섰다.

모두들 경제선동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위순길은 갱막장에 휴가를 바치고싶어 떨어진것이다.

헌데 뜻밖에 만나게 된 한 녀인에게서 받은 좋지 못한 인상으로 하여 그 열정과 흥이 처지게 되는것이 맹랑하였다.

2

위순길은 출결길에 올랐다. 봉화갱막장에서 익세고 결결한 탄부들과 함께 착암기를 틀어잡고 정력을 쏟아부은 그였다.

그는 제풀에 침울해졌던 어제의 감정을 허거프게 웃어버렸다. 서정님이 처녀이든 애기어머니이든 그를 탓하거나 원망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그가 노래를 집어던졌고 갱막장을 외면했다고 질시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썩-썩-인차는 굴바람을 일구며 기분 좋게 달렸다. 멀리 손바닥만 하게 보이던 갱구가 점점 커지면서 마치 앞으로 다가오는듯 했다.

어디선가 가늘게 들려오던 나팔소리, 북소리도 다가서는 갱구를 따라오듯 커지며 굴벽을 찌렁 찌렁 울렸다.

나팔소리, 북소리는 갱구마당에서 울리고있었다. 탄광기동예술선동대가 하루계획을 넘쳐하고 나오는 탄부들에게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고있었다.

맑고 부드러운 녀성중음이 랑랑하게 울렸다. 어딘가 귀에 익은듯 한 목소리였다.

방송차축에 눈길을 주던 위순길은 의혹속에 반신반의하다가 놀라움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삼륜차에 몸을 실은 서정님이였다.

《?...》

착각인가, 아니면 혹시 그에게 쌍둥이형제라도

있는것이 아닌가. 아니, 아니였다. 노래가 고조될수록 선물의 풍부한 감정세계를 특색있게 살려나가는 그 음악적재능이 서정님이라는것을 분명히 강조하고있었다.

먼발치로 위순길을 알아본 그도 노래와 함께 밝은 미소로 눈인사를 보냈다.

그는 알수 없는 불안과 무거운 마음에 눌러 굳어진채 서있었다.

누군가 어깨를 가버이 눌러잡았다. 박대석이었다. 눈썹이 수북하고 입술이 두툼한 50대의 듬직한 일꾼이었다.

《갱장동지, 저 정님동무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직 모르고있었구만. 정님에게서 들었네. 한 부대에 있었다면서. 반갑네.》

박대석은 대답을 서둘지 않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나서 서정님이 특류영예군인이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해주었다.

어느 건설장에 경제선동을 나갔을 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정황속에 귀중한 동지를 구원하다 두다리를 잃었다는것이다.

어느새인가 축하모임은 끝났다

《위동무,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저녁식사나 함께 하세.》

《...》

박대석이 청하는 말이였으나 위순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사람같았다. 그는 기동예술선동대원 처녀들이 밀고 자리를 뜨는 삼륜차에 앉은 서정님의 뒤모습을 킁킁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 어서 가세.》

위순길은 그제야 박대석에게로 의아한 눈길을 돌렸다.

《뭘 이상할건 없네. 정님인 량부모가 다 병으로 사망하고 홀몸이야. 그의 아버지 서만수는 나의 옛 탄부 소대장이였지. 정님인 그의 넷째딸이구. 그 앤 지금 우리 집에서 함께 산다네. 저런 몸이지만 무엇이든지 일손을 잡고싶어하기에 합숙접수실을 맡겼다네. 그걸로도 성차지 않아하면서 이따금 저렇게 탄부들앞에서 노래도 부른다네.》

위순길은 뭘라고 말할수 없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박대석을 따라섰다.

박대석이네 집은 마을 중간쯤에 있었다. 부엌에선 몸이 동식한 박대석의 마누라와 딸 영미가 달려나와 인사를 주고받았다.

정님은 어느새 벌써 부엌에서 만두를 빚고있었다.

넓직한 두칸방, 열려진 미닫이 사이문으로 옷방이 들여다보였다. 처녀들 방답게 아담하고 산뜻하게 꾸러진 방이었다.

커다란 경대앞에 나란히 앉은 눈이 울롱한 소박한 인형들, 앉은뱅이책상우에 주련이 꽂힌 책들, 무심히 방을 둘러보던 위순길은 무뚝히 쌓인 책을 보았다. 손재봉기옆에는 두툼해보이는 작

업장갑들이 겹쌓여있었다.

잠시후 몸이 날씬한 영미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음식상은 소박하였지만 정님의 밝고 명랑한 모습과 활발한 영미, 후더분한 박대석내외의 환대로 해서 즐겁게 보낸 저녁이었다.

3

검은금, 석탄매장량이 무진장하다고 해서 금대산이라 불리우는 높은 봉우리가 검스레하게 보이는 황혼길이다. 하루의 성과를 알리는 탄광 방송차에서 격조높은 목소리에 이어 노래가 울렸다.

출강하여 합숙으로 향하던 위순길은 방송차와 맞닿았다.

...

방송차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처녀는 서정님이였다. 방송원 영미가 그를 또 방송차에 태운 모양이다.

어느날 영미는 자랑스레 말했었다.

기동예술선동대에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어서 아니고 전문가수들의 록음테이프도 많지만 탄부들과 마을사람들이 정님의 노래를 더 좋아하기때문에 자주 방송차에 태운다고 했다.

...

심장을 틀어잡는 노래, 환희에 넘친 목소리가 온 탄광마을에 울려 퍼졌다. 서정님의 녀이 나래치는 것이었다.

서정님은 오늘 낮에도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갱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탄부들의 재청에 련속 세곡이나 불렀다. 탄부들은 눈을 습벽이며 박수를 보냈다.

위순길의 옆에 앉았던 아바이탄부는 말하었다.

《우리가 저 정님에게서 힘을 얻는건 단순히 그 노래에서보다도 한삽의 탄이라도 더 캐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이지. 노래뿐인가. 작업장갑이며 폭약주머니 같은것을 한보통이씩 기워다주기도 하고 보조금까지 모았다가는 우리 탄부들의 영양제식탁을 풍성하게 만든다네. 일꾼들은 물론 탄부들모두가 절대로 받지 않겠노라고 하면 그는 오히려 꺼꾸로 사정이라네. <비록 적은것이지만 저의 성의이고 그것이 기쁘이고 진심인데 그걸 거절하시니 전 막 섭섭해요.>하는데야 별수가 없지.》

영미의 입에서도 말끝마다 자랑이었다.

오늘 막장 경제선동은 방송차 방송원 영미의 선동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선동문은 호소성이 강하면서도 그 내용이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안겨왔다. 가슴이 들먹이고 힘이 솟구치게 하는 선동문이었다.

위순길은 진심으로 영미를 칭찬하였다.

《선동문이 아주 좋구만. 정말 잘 썼소. 랑독쫘 씨도 대단하구.》

영미는 생글생글 웃음을 앞세웠다.

《전 이렇게 폼 안들이고 공짜로 평가를 받는

때가 종종 있답니다.》

《예?》

《선동문은 우리 정님언니가 쓴거예요. 랑독쫘 이야 뭐 못할게 있어요.》

《그럼소?》

《우리 언니는 못하는게 없어요. 노래는 물론이구 뜨개질, 바느질, 글재간은 누가 또 따르겠어요. 방송원고도 자주 써내거든요.》

서정님이 째째이 뜨개질감을 쥐고있는것은 무엇이나 다 푼푼치 못한 때에 이웃아이들의 생일이나 명절날에 쥐여줄것이였다.

영미는 때를 바꿨던듯이 입을 다물줄 몰랐다.

《마음은 또 얼마나 굵구 락천적인줄 아세요. 제가 때로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찌뿌둥해하면 처녀라는데 찍하면 그렇게 골살을 찌프리니 널 데려가는 남자는 속깨나 썩겠다.... 일이 안되면 뚫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말이다.》

정말 그 어느때 보아도 서정님의 기색에서 그 어떤 비판이나 그늘을 찾아볼수 없었다. 그 눈빛은 언제나 밝고 웃음소리는 랑랑했다.

그의 책상에는 언제나 쓰다 밀어놓은 필기지들과 뜨개질감이 있었다.

위순길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고 하자 정님의 눈길에 우애의 빛이 그윽히 서리였다.

《고락을 같이한 부대의 동지들도 그렇고 우리 탄부들도 전선에서 화구를 막듯이 때로는 쏘아지는 석수를 몸으로 막는가 하면 전기가 멎으면 정대로 착암기를 대신하는 때에 저야 손이나 머리를 좀 쓸뿐인걸요.》하면서 오히려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있었다....

방송차에서는 서정님의 노래가 계속 울렸다.

저 처녀는 그야말로 강하며 생활을 아름답게 감수하는 처녀다. 끝없는 창조속에 삶을 즐기고 가꿀줄 아는 인간이다.

온 탄광마을 가는 곳마다에 그의 녀이 나래치고있다.

그 녀는 위순길의 심혼을 꼭 그러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정님이가 현실을 외면했다고 단정했을 때 실망과 함께 괴롭던 그 모든것은 순간의 악몽처럼 사라지고 눈앞에는 위순길이 그처럼 아름답게 상상했던 처녀보다 몇배나 더 훌륭하고 매력적인 처녀가 심장을 꼭 채우고있다. 하면서도 무언가 불안과 위구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다.

가슴을 채운 이 사랑이 일시적인 련정이 아닐가...

부모님들이 쉽게 머느리로 맞자고 하겠는지도 모른다.

중요한것은 서정님의 심장에 위순길 네가 들어설 자리가 있는지? 정님이 이 위순길을 놓아주지 못할만큼 사랑하겠는지.

허나 한가지만은 명백하다. 서정님은 순결한 내 심장에 찍힌 첫 자욱이다. 정님과 언약이

되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배신하지 않을것이다,
이제 며칠 안있으면 휴가를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는 물어둘수도 없고 그대로 안
고 돌아갈수도 없는 처녀였다.

4

위순길은 서정님이 역시 자기를 다만 전우로만
대하지 않는듯 한 느낌을 받곤 하였다. 위순길
을 대하는 그윽한 눈은 따뜻하고 정겹게 빛났었
다. 때로는 기다렸던듯이 한량없는 기쁨과 환희
가 비끼곤 했다.

위순길은 그것이 다름없는 사랑이라고 확신했
고 며칠전엔 직방 마음속을 내비쳤다.

《정님동무, 제 청을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꼭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시시오.》

처녀는 어딘가 비난조가 비낀 미소를 지었다.

《그런 강박은 실례가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병사들입
니다. 뭐 예돌것 있겠습니까. 평양 우리 집에 가
자는겁니다.》

《?...》

《수십년을 대학교단에 선 아버지와 유치원 아
이들속에서 한생을 보내는 어머니는 선량하고 인
정이 깊습니다... 그리고 영예군인들에 대한 존경
과 사랑, 관심이 각별한분들입니다.》

처녀는 당황함을 숨기려는듯 눈길을 내려뜨렸
다.

《믿음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갔다면 다시 쏘고 또 쏘겠습니다. 심장을
맞힐 때까지 말입니다.》

서정님의 눈빛엔 의외에도 침착한 미소가 어리
였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것과 같은 일은 애초에
그만두는것이 좋을겁니다.》

처녀의 그 미소엔 단념과 체념같은것이 비껴있
었다.

위순길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단순히 녀성과의 교제술이 서툰데서 오는 참
패인가, 아니면 진실로 움직여낼수 없는 허망한
짓인가.)

다음날 영미의 항의가 다시 신심을 주었다.

《위동지, 우리 언니를 괴롭히지 말고 당장 떠
나가셔야 하겠습니까.》

《그건 무슨 소립니까?》

《시침을 떼지 말란 말입니다.》

《?!...》

사연을 털거하는 영미의 어조와 눈길엔 자못
의문이 서리었다.

어제 밤 서정님에게 방송원고를 부탁한 영미는
먼저 잠들어버렸다. 초저녁엔 묶어가도 모르게
곤잡에 떨어지는 그였다. 대신 새벽에는 첫 닭울
음소리와 함께 눈이 또랑또랑해진다.

밤늦게야 방송원고를 끝냈을 서정님이곤하
게 자는 새벽에 일어난 영미는 원고를 읽어보려

고 책상을 마주하였다.

원고지를 겹쳐놓은 밑에 학습장이 있었다.

《...그 동무가 여기 다시 나타난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눈빛과 어조, 정중한 모습, 겸손한 모습은
이전그대로이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는 마음을 견잡기 수
월치 않다...

우리는 서로 만나지 말았으면...

시간이여 빨리 흘러가라. 그 사람이 하루속히
떠나가기를 바랄뿐이다...》

위순길은 부지중 영미의 손을 힘껏 움켜잡았
다.

《고맙소, 영미동무.》

《?!...》

《희소식을 물고 온 나의 비둘기.》

위순길은 벅글벅글 웃었다.

영미는 눈이 울롱해서 뺨히 쳐다보았다.

서정님의 가슴속에 일어난 파문, 불안, 그속엔
내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위순길은 신심과 용기, 환희를 안고 처녀를 찾
아 함숙접수실로 들어섰다.

서정님은 위순길에게 앉으라고 권하면서도 일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얼굴표정은 태연하고 지어
는 뻔뻔하기까지 하였다.

그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위순길은 용기를 가다듬으며 판전을 부렸다.

《이 방이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썰렁합니까?
마치 얼음덩어리라도 들어앉은것 같습니다.》

《...》

서정님은 소리없이 미소를 지을뿐 여전히 눈길
을 들지 않았다. 물어두려고 애쓰는 사랑의 빛이
그 눈길에 다소라도 드러날가보아 겁을 내는지
도 모를 일이다.

《탄불이라도 지펴야 할것 같습니다.》

그제야 처녀는 마음을 굳게 다잡은듯이 평온해
진 눈길을 들며 밝은 기색을 지었다.

《이 탄광에 석탄이야 없겠습니까. 허지만 사람
의 마음을 탄불로야 어떻게...》

《?!...》

롱담처럼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맞다든 정황을
덮어버리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 선제공격에 위
순길은 다소 놀랐다. 허나 이것은 자신을 위장하
려는 허세일것이다. 이 녀자에게는 불타는 사랑
앞에서도 그 누구에게나 사랑의 문을 함부로 열
어주지 말라는 뻔뻔한 리성이 가로놓였을것이다.
가정의 주부, 안해로서 허다한 약점이 있는 녀
자라고 자신을 얹어매놓았을것이다.

《정님동무, 자신을 너무 속박하지 마오. 혹시
자기를 인생의 흐름이나 생활의 법칙밖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게 아닙니까?》

《뭇가 저를 오해하시는것 같습니다. 위동무에
대한 저의 호의나 친절성이 색다르게 보이게 되
었다면 실례했습니다. 저는 녀자로서의 자기 생

활을 두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동무의 청에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을뿐입니다.》

이 녀자는 점점 더 두렵게 《갑옷》을 두르고 있다. 내가 아닌 다른 남자들앞에서도 저렇게 말하지 못한다.

《정님동무, 저는 며칠 안있어 떠납니다. 정님동무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저의 청에 우리 부모님들도 다 찬성해주셨습니다.》

위순길은 이미 장거리전화로 부모들과 합의를 보았던것이다.

《순길동무, 저는 이미 명백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사람의 심장은 죽은 나무가 아니요. 말씨름은 더 그만둡시다.》

위순길의 눈빛에선 절절하고 단호한 결심이 내비쳤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저로서도 어쩔수 없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 탄발을 떠난다면 저의 생활은 무의미해질것입니다. 저의 생활은 이 탄광에서만 생기를 떨것입니다.》

정님은 위순길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듯 눈길을 들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정님동문 지금도 자신을 초소에 선 병사라고 생각하는게 아닙니까. 정님동무는 금방석에 떠받들어야 할 영예군인입니다. 오늘밤 생각을 깊이 하고 래일아침 빠스정류소에 나와주는걸로 동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래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그들이었다.

위순길은 자리에서 움쑥 일어섰다.

5

어둠이 짙어가는 저녁이었다.

박대석은 정님과 마주 앉았다.

《아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정식으로 청혼을 하면서 너를 데리러 인차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 나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패히 승낙했다. 사람이 진국이야. 너를 마음 고생시키거나 욕되게 할 사람도 아니구.》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럴수록 그는 좋은 녀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저썬 이 마을을 떠나려 하지 않는 제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다.》

《거야 알지.》

정님이 영예군인이 되어 고향마을에 돌아왔을 때 외지로 시집간 언니들이 정님을 데리러왔었다. 허나 그는 따라서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잘 불러 탄부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고향이고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묻은 서정님이었다.

정님의 아버지 서만수는 군복을 입고 떠나는 딸에게 군사복무를 마치고 꼭 고향에 돌아와 노래를 불러도 탄부들을 위해 부르라고 당부했었다.

정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있는 박대석은 그의 언니들을 설복시켰다.

《우리 내외와 영미가 부모나 언니들을 대신해 줄테니 녀려말구 돌아들 가라구.》

박대석은 영미에게 정님의 잔시증을 들게 하며 친딸처럼 돌보아주고있는것이였다.

그는 파년한 딸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듯 그루를 박았다.

《이건 네가 언니들을 따라가느나, 마느나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아저썬, 이 문제는 제 결심에 맡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님의 눈길엔 진정과 애원의 빛이 어리였으나 박대석은 조금도 물려서지 않았다.

《결혼이란 인생의 중대사야. 이것저것 재면서 기회를 놓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하게 된다. 더구나 차례진 복을 차버리는 짓일랑 아예 그만둬야 한다.》

박대석은 더 말을 못하게 눌러놓았다.

《그사람 말대로 래일 아침 빠스정류소에 배웅나가는것으로 대답을 주자. 합숙접수엔 내 연락을 할테니 집에서 기다려라. 나도 생산조직사업이나 해놓고 잠깐 내려올테다.》

드디어 아침이 왔다.

서정님은 거의 뜬눈으로 밤을 밝히었다. 사랑의 정과 뿔뿔한 이성간의 격전에서 끝내 리성이 이긴 아침이다.

정님은 둔덕길에서는 무뎠던 밀차를 밀어놓고 지평이를 짊고 집을 나섰다. 박대석이 들어오기 전에 몸을 피해야 했다. 그는 무작정 정님을 밀차에 태워 정류소로 끌어갈것이였다.

정님은 집뒤뜰안과 잇닿은 평퍼짐한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둔덕에 올라서면 정류소가 뵈히 내려다보인다.

더는 보지 못할 사람을 먼발치에서라도 바래주고싶은 생각이 가슴에 짝 차올랐다. 떠나는 그의 마지막모습이라도 한번 더 보는것이 지금으로서 유일한 위안이고 하나의 소망처럼 여겨졌다.

등성이를 절반도 오르기전에 땀발로 등어리가 척척해났지만 정님은 힘들다거나 의족부위의 아픔같은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모습을 한번 더 보게 될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였다.

정류소엔 벌써 위순길이 나와있었다. 바지주머니에 한손을 지르고 꾹꾹이 서있는 그 모습은 암반처럼 든든해보였다.

틀림없이 정님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세 같았다. 이따금 박대석이네 집쪽을 살피기도 하였다.

이윽고 박대석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타났다. 뒤이어 꾸레미를 든 영미도 따라섰다. 세사람은 뭔가 손짓을 해가며 말을 주고 받았다.

드디어 위순길의 머리를 푹 떨어뜨렸다.

멀리서 발동소리가 울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위순길은 수첩같은것을 손바닥에 받쳐들고 뭔가 급히 적고있었다.

산굽인돌이에 《집삼》호 빠스가 하얀 동체를 나타내었다. 영영 다시 올 일이 없는 사람을 싣고 가버릴것이다.

빠스가 멎기 바쁘게 사람들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위순길은 길손들이 다 오른 뒤에도 인차 오르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살폈다.

서정님은 저도 모르게 《위동무!》하고 소리를 칠것만 같아 얼른 두손으로 입을 막았다.

《부르릉-》 빠스가 움틀 몸을 떨었다. 끝내 떠나가고있었다. 훌쩍 떠나기가 야속한듯 굽이굽이 산굽이를 따라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던 하얀 동체가 하나의 점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어느덧 아침해가 퍼그나 솟아올라 금대봉마루에 금빛 《모자》를 씌워놓았다. 털이 보르르한 뽕개암나무며 해바라기마냥 털이 발짝 뒤집힌 도토리다. 다닥다닥 열린 키낮은 나무잎들에서 이슬방울이 반짝거렸다.

바스락바스락 가랑이를 뒤흔던 다람쥐가 팔알같은 눈을 대륙거리며 정님을 바라보다가 딱갈나무사이로 숨어버렸다.

자연은 얼마나 무한하고 자유로운가. 날마다 해가 뜨고 지며 이 가을 역시 겨울, 봄, 여름이 지나 다시 온다. 인간은 어쩌서 한생밖에 없으며 그것도 이렇게 소중한것도 놓아버려야 하는것과 같은 스스로의 제약을 받는것인가

하긴 그래서 인생의 모든것이 귀중하고 값있는 것이다. 자신의 뜻을 지키며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할줄도 아는것으로 하여 인격도 더 고양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강하고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리라.

문득 발걸음소리가 들리었다. 점점 가까워지던 발자국소리가 불시에 멎어버렸다. 등뒤에 우뚝 서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박대석이었다.

그의 기색은 엄했다. 마치 바보짓을 한 딸을 어이없게 노려보는 그런 눈길이었다.

정님은 미안하였다. 그는 자기의 기분도 박대석의 마음도 돌리고싶어 밝게 웃음지으며 물었다.

《어마나, 제가 여기 있는줄 어떻게 아셨어요?》

《흠-》

《하긴 전 아이때부터 숨박꼭질같은것은 영 한심했으니까요.》

정님의 눈길엔 어리광, 장난기가 어렸다.

《략제다, 왜 저 금대봉꼭대기까지 올라갈게지고작 여기였냐?》

책망도 비난도 아닌 어조였다.

아까운 사람을 놓쳐버린 아쉬움이 가슴을 메웠지만 어쩔수 없는 정님의 마음을 무작정 탓할수는 없는 그였다.

박대석은 딱지형으로 접은 종이쪽지를 말없이

내밀었다.

정님은 무심중 받으려다가 손을 움츠렸다.

《팔떨어지겠다.》

정님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 펼치였다.

《정님동무, 정녕 심장이 가리키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나 지나친 사양이나 거절은 일종의 모욕일것입니다.》

방금 갱장동지를 통해서 정님동무의 립장을 간단히 알게 되었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영예군인이 된 딸의 지금의 정황을 아실수 있다면 땅속에서도 등을 떠밀며 어서 떠나라고 기뻐하실것입니다.

어쨌든 보다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안녕히 계시기를...

위순길》

정님은 눈길을 들어 위순길이 가고있을 산너머를 바라보았다. 그 눈길엔 애뜻한 정이 비끼였다. 그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쩔수 없고 원망이나 질시를 당해도 할수 없는 일이다. 어쨌면 그것이 위순길이 이 녀자를 잊게 하는데서는 다행일것이다. 다만 이 가슴에 가득 차있는 사람, 일생을 잊을수 없을듯 싶은 사람에게 커다란 실망과 아픔만을 안겨보낸것이 죄스러울뿐이다.

부디 이 녀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에 심취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

《영미동무, 좀 자세히 말해주오.》

위순길과 영미는 옥류교를 내려 유보도결상에 앉았다.

서정님이 탄광을 떠날수 없다는것이 위순길을 떠밀어버리려는 하나의 방패가 아닌지, 탄광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왜 마다했는지, 정말로 정한 사람이 있는지, 온통 의혹투성이였다.

영미는 눈길을 내려뜨리며 어딘가 서글픔이 어린 미소를 지었다. 명랑하고 발랄한 처녀답지 않게 그 어조는 가라앉았다.

...영미는 정님에게 비난조의 분을 터뜨렸다.

《언니 바보야. 그렇게 좋은 사람을, 다시 없을 그런 행운을 밀어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더구나 평양사람이 아니야. 품놓고 애쓰며 찾고 또 찾아도 그런 자리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거야.》

영미는 아쉽고 분해서 제김에 울먹거리었다.

정님은 사랑으로 파헤쳐진 가슴을 스스로 달래듯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과분하기에 나는 갈수가 없어.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해.》

《언니가 뭐 어떻다는거야. 당당한 영예군인이야.》

《그래서 더욱 못가는거다. 이 철부지야. 자기 일신의 안락이나 사랑이라는 행복에 도취되어 남에게 짐이 되고 부담을 줄수는 없어.》

《위순길 동진 언니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줄 사람이 아니야.》

《수양이 있고 도덕적의리가 있으니 그런 내색이나 표현을 안할뿐이겠지.》

《그만뒤요. 언닌 사람 볼줄도 몰라.》

《너 정말 이 가슴을 그냥 찌르겠냐?》

서정님은 가슴을 움켜잡으며 영미를 치며보았다.

그 눈곱엔 불시에 눈물이 가득 고여올랐다. 마음속의 불길, 놓아준 사랑, 가버린 사람, 다시는 볼줄수 없는 사랑의 애절함이 처녀의 가슴을 휘저으며 넘쳐나고있다는것을 다는 알수 없는 영미였지만 그도 몹시 가슴이 아팠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영미는 정님의 어깨를 그리안으며 목멘 소리를 했다.

정님은 잠시나마 자기 심중을 드러낸것이 민망스러웠다. 그는 태연스레 표정을 바꾸었다.

《영미야, 너자의 행복이란것이 남편의 사랑에만 있는것이 아니란다. 그 사랑만으로 만족할수 없는것이 생활일게다. 크나작으나 자기나름의 활동무대와 자기 생각으로 일관된 세계가 있어야 하는거다.》

서정님은 아버지 서만수의 당부에 대해 말했다.

해방전 소년탄부 서만수는 두더지처럼 무릎걸음으로 탄을 쫓고 버럭처럼 짓밟히며 굴러다녔다.

해방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하늘을 나는 비행사와도 같은 대우를 받는 탄부로 떠받들리었다.

탄광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탄가루 묻은 서만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탄밭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대를 이어가며 석탄으로 나라를 받들어가야 한다고 은정넘친 믿음을 주시었다.

서만수는 이제나저제나 탄부기동감 아들을 기다렸으나 늘그막에 본 넷째까지도 끝내 딸이였다.

실망속에 쓰겁게 입을 다시던 그였는데 넷째가 유치원때부터 노래를 썩 잘 불러서 꼬꼬리로 불리게 되었으며 소학교와 중학시절까지 그의 노래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따라 갱장들과 문화회관 무대에서 탄부들을 고무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정님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기대가 달라졌다. 《꼭 착암기를 잡아야 탄부겠나. 타고난 목소리로 한몫한다면 탄부 열에 비기겠나.》하면서 입귀가 느슨해지곤 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정님이 입대를 탄원했을 때 서만수는 《네가 비록 너자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 맞잡이로 여긴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답게 군사복무를 잘하고 돌아와 다시 우리 탄부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거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작별로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건강하던 서만수는 뇌출혈로 손쓸새없이 사망하였던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의 당부를 유언으로 받아들인 서정님이였다.

그 유언과 함께 그의 가슴속엔 또 하나의 움직임수 없는 의지가 자리잡았다.

영예군인들에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어버이사랑은 선군령도의 나날속에 더더욱 뜨거워진다. 조국의 력사에 새겨질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복된 생을 누리도록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면서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떠받들어주신다.

그 위대한 태양의 빛이 없다면 서정님은 한갓 부상자에 불과할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사랑, 마을탄부들의 사랑, 위순길의 사랑까지도 그 태양의 빛발로 이루어지는것 이리라. 나는 여전히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이다.

여기서 한삼의 석탄이라도 보태는것이 내나름으로 선군령도를 받드는것이고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다. 내 만일 사랑을 따라 여기를 떠난 생활은 무의미해지고 서글퍼질것이다...

영미는 흐르는듯 마는듯 잔잔하게 출렁이는 대동강물결에 눈길을 둔채 말을 이어갔다.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정말 하나뿐인지.》

《?...》

《그 탄광기계공장 기사도 참 좋은 사람이였어요. 하지만 스쳐지나는 바람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 랭담한 언니를 저는 보고만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언닌 정말 너무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행운아인지도 모르는것같애. 나서는 대상마다 다 멋있는 사람들인데도 그저 등을 돌려대니 말이야.>

언니의 눈길엔 뭔가 깊은 생각이 어리였습니다.

<행운아?!... 행운이야 행운이지. 그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영예군인에게 주신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번엔 그 행운의 복을 꼭 받아야 해. 그가 우리 탄광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뭘 더 바랄게 있어.>

언니는 철부지를 바라보듯 측은한 눈길이였습니다.

<너 좋은 사람은 많아도 사랑은 하나란걸 모르니?>

<거야 뭐...>

<결혼하고 살면서 진정한 사랑이 가지 않을 때 그건 한 남자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더구나 나야 남편에게 이모저모로 짐이 될 너자로서 말이야. 아마 내 자신이 무척 괴로울것이다.>

나는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언니는 일생을 혼자 살겠다는거냐>

<왜 혼자겠니.>

언니는 애ത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저에겐 어쩔지 그 미소가 서글프게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언니의 그 말속에 있는 뜻을 짐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순길은 급기야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며 고개를 떨구었다.

영미는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기가 너무 많은것을 말했다는 실책을 느낀듯했다.

그는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리우에서 그냥 기다리고있는 견학생들한테로 가버렸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놓았는가. 나때문에 정님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있을것인가.)

위순길은 마음을 진정할길 없어 벌떡 일어섰다.

싱그럽던 강바람이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는 집쪽을 향해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일생을 간직하려는 한 사나이의 사랑을 가슴깊이 안고서도 탄광을 떠나지 못하는 처녀의 결국한 지조앞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위순길이었다.

영예군인들에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사랑에 의리로 보답하려는 의지를 굽힐수 없는 정님이, 아버지의 당부를 어길수 없는 처녀, 그것이 인생의 전부로, 삶의 기쁨으로 되고있는 정님이다.

그 고결한 마음에 머리가 숙어진다. 위순길, 너는 자기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것이면서도 그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애, 어디로 가느냐?》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위순길은 생각에서 벗어나며 눈길을 들었다.

퇴근길인 어머니가 마주오고있었다.

《?...》

위순길은 어리둥절해서 둘러보았다. 자기집 현관을 지나쳐 그냥 가고있었던것이다.

《너 또 그 생각에 옴해있었구나.》

요즘 아들의 심중을 잘 알고있는 어머니였다.

위순길은 방금전에 뜻밖에도 영미를 만나 들은 소식을 죄다 전했다.

어머니는 눈빛을 흐렸다.

《처녀가 그 누구에게도 시집을 안가기로 독한 마음을 먹은것 같구나.》

《제가 그에게 죄를 지은것 같습니다.》

《...》

어머니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아보다 더 큰 고뇌를 느끼는듯싶은 눈빛이었다.

마침내 무거운 어조가 흘러나왔다.

《야야, 네가 진정 자책을 느낀다면 깊이 생각해보거라. 어미로서 나는 힘든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구나.》

《?...》

《너를 꼭 내곁에 붙들어둘 생각은 하지 않겠다. 네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리거라.》

《예?》

《아마도 그 처녀가 영예군인만 아니라면 이런 결심을 내릴수가 없을게다.》

위순길은 놀람과 걱정속에 머리를 숙였다.

아들을 먼 외지로, 그것도 영예군인처녀에게 일생을 맡기며 탄광으로 보낸다는것이 보통일인가.

그 어떤 사랑도 압도한다는 모성애를 초월한 어머니가 아닌가.

모성애도 인정도 사랑도 시대의 요구를 따라 가장 순결하고 값높은 곳에 오르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아닌가.

위순길은 여적 평범하게만 보아온 어머니를 감히 쳐다볼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아들로서 응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것이다.

이렇듯 크나큰 어머니의 도량앞에서도 어찌하여 선선히 결심이 서게 되지 않는것인가.

위순길은 어머니앞에 다시한번 부끄러움을 느꼈다. 바다처럼 웅심깊은 어머니의 세계가 가슴에 젖어들었다. 불시에 마음이 밝아지고 현현해졌다.

위순길은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인사를 드렸다.

박대석이네 집마당에 사람들이 하얗게 모였다. 그들모두의 얼굴엔 함박꽃이 피었다.

마당한가운데 박대석이 위순길을 부둥켜안고 온 탄광마을이 들썩하게 떠들어댔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장하이, 장해. 우리 정님에게야 더 말할것도 없고 우리 탄광에 큰 경사지, 경사야. 릉름한 신랑감에 끝끝한 탄부라. 꿈엔들 이런 복이 내리겠나. 임잔 정말 장한 걸음을 했어.》

《아닙니다, 갱장동지. 벌써 오지 못한것이 부끄럽습니다.》

《웬걸. 임자야말로 우리 장군님께 크게 기쁨을 드린셈이지... 그만큰 자네 인kompl이 움썽 높아졌어. 저 금대봉마루보다 더 높단 말이야.》

서정님은 밀차도 지팡이도 다 제껴놓고 두 의족으로 대문앞에 서있었다. 이 시각만이라도 녀인의 바른 자세로 위순길을 맞이하고싶었을것이다.

정님의 그윽한 눈엔 맑은것이 호수처럼 고여올랐다. 그 어떤 홀륭하고 아름다운 언어로도 수천마디의 말로도 대신할수 없는 그런 순간을 느끼는듯 하였다.

참되고 순결한 사랑이 생활을 환희롭게, 인간을 아름답게 크게 성장시키며 선군시대의 꽃밭을 다양하게 장식하고있는것이다



김교섭

1

오늘도 비는 물방울을 지으며 잔잔하게 내린다.

아들을 공장으로 떠나보낸 오필너는 설것이를 마치자 서둘러 집안거두매를 시작하였다.

먼저 아래방을 치운 다음 물걸레를 들고 옷방으로 올라갔다. 방안에는 화포들을 끼워넣은 버티개며 붓대들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물그릇이 널려있었다.

아들 김석은 공장에서 돌아오면 저녁술을 놓기 바쁘게 이 방에 들어박혀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일요일이면 읍내 미술애호가들과 립산마을의 곱살한 녀선생까지 한구들 모여 그림을 그리고 합평회를 하였다.

오필너가 하루에 어김없이 두번 닭아내군 하는 데도 방안에 뱀 안료냄새를 가셔버리지 못했다.

그림도구들을 주섬주섬 정리하던 오필너는 벽가에 기대놓은 한쪽의 그림에 눈길을 멈추었다.

언제 그리였는지 상당히 고심하며 품을 들여 그리었다는것이 단번에 알리었다.

처녀가 한손으로 버드나무를 짚고 오연한 자세로 서있는 그림이었다.

그는 흰 구름이 두둥실 뜬 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처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까?

그런데 크고 억실억실한 눈에서는 오연한 자세와 달리 심란해하는 서글픈 빛이 어려있었다.

장가들어야 할 젊은이를 끼고있어 그런지 처녀의 그림은 이상하게도 오필너를 기쁘게 하였다.

그는 그림속의 처녀곁에 아들을 나란히 세워보기까지 하였다.

길을 가다가도 마음드는 처녀가 있으면 그를 아들곁에 세워보곤 하는 오필너였으니 그림이긴 하여도 자기 집에 나타난 처녀일진데 왜 그러지 않으랴.

한동안 흘린듯이 그림을 들여다보던 그는 어머니의 그 어쩔수 없는 룽감으로 분명 어디서인가 살고있을 그림속의 처녀와 자기 아들이 범상치 않은 사연으로 얹혀진 사이라는것을 짐작하였다.

(우리 김석이한테 처녀가 생기었구나.)

김석은 오필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임무수행도중 뜻밖에 희생되었다.

오필너는 슬하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커다란 슬픔에 잠기었다.

아들을 잃은지 거의 1년이 되어오는 어느날 아들의 분대장이 제대되어 오필너를 찾아왔다.

분대장 김석은 이제부터 자기가 아들이 되어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였다.

알고보니 오필너의 아들은 김석을 형님처럼 따랐다고 한다. 밤에 잘 때에도 분대장의 곁에서 잤으며 희생된 그날에도 분대장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김석의 고향은 평양이었다.

부모형제들과 친척들은 모두 그곳에서 살고있었다.

김석은 부모들이 기다리고있는 평양으로 가지 않고 홀로 있는 전우의 어머니를 찾아 하루에 기차가 한번밖에 서지 않는 한적한 산골로 왔던것이다

패활하고 힘이 장사인 김석은 그대로 따스한 빛을 발산하는 신기한 발광체 같았다.

그가 와서 한자리 차지해버리자 집안에 드리웠던 그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였다.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난 후여서인지 오필너는 친자식한테 기울이던 정을 그대로 김석이한테 부어주었다.

헌데 그에게 정을 부을수록 오필너의 가슴속에서는 남모르는 불안이 자라오르고있었다.

김석을 계속 총각으로만 불렀고있을수 없다.

그도 장가보내고 며느리를 맞아들여야 한다.

어느때 가서든지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때면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할가?

아무튼 오필너는 아들 김석이 행복하기만을 바랐다. 그리고 아들을 굳게 믿고있었다.

오필너는 장농안에서 꽃보자기를 꺼내어 그림 위에 정성껏 띄워놓았다.

앞으로 머느리로 맞아들이게 될지도 모르는 처녀한테 정들이고 싶어하는 늙은이들의 그 어쩔수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방안을 거두고 난 오필너는 어제 저녁 아들이 벗어놓은 젖은 옷가지들을 빨려고 세면장으로 들어갔다.

빨래할 때마다 호주머니안에서 물건이 한두가지씩 나오더니 이번에도 옷옷 주머니안에서 편지 한통이 나왔다.

평양에서 최정옥이라는 녀자가 보내온 편지였다.

(편지 건사하는 꼴을 보지.)

오필너는 허를 차며 젖은 봉투안에서 조심스레 속지를 뽑아 따뜻한 아래목에 펼쳐놓았다.

처녀의 편지가 틀림없을것이라 생각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던 오필너는 속지가 마르자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늘 세번째로 되는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김석동무가 출품한 풍경화 <산촌의 저녁>을 보았어요. 참, 소개가 늦었군요. 전 지금 국가미술전람회에 동원되어 있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황홀감에 빠져버렸어요.

확실히 동무에게는 미술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어요. 제가 그 뛰어난 재능을 따르자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많은 세월이 걸릴거예요. 미술대학2학년때 조선인민군대로 탄원한 동무는 제대된 후 곧 대학으로 돌아왔어야 했어요.

대학의 선생님들도 동무를 기다리고있어요. 우리들이 존경하는 조형모교수는 동무가 대학과정을 제대로 마치면 보기드문 미술가로 될것이라고 늘 외우곤 한답니다.

어서 평양으로 돌아오세요. 동무는 자습으로 미술공부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돼요.

하루빨리 대학공부를 마치고 평양의 권위있는 창작기관에서 맘껏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야 해요.

물론 그곳으로 떠나간 동무의 소행은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무한테는 남들이 따를수 없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재능은 자기자신만의것이 아니라 모두의것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수 있는 수도로 돌아와 저와 함께 우리들의 리상을 맘껏 실현해봅시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정들인 수도의 거리, 생활적으로나 창작적으로 모든 조건이 그췌히 갖춰진 수도를 떠나 한적한 산골에서 일생을 보내다는것은 우리를 배워준 스승들과 더우기는 인재를 아끼는 나라에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편지의 글줄을 더듬어나갈수록 오필너는 숨이 차고 눈앞이 흐려왔다. 일요일마다 모이곤 하는 미술애호가들이 김석의 그림을 보고 감탄할 때면

그저 손님으로서 주인한테 귀맛좋은 인사치레로 그러는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김석은 찾아보기 드문 인재가 아닌가.

평양에서는 모두 그를 기다리고있다.

그가 제대되어 여기 산골로 온것은 그 자신에게도 큰 손실이였다.

오필너는 자기때문에 김석이 너무도 큰 희생을 당하고있음을 문득 깨달았다.

(그를 붙들고있으면 안되겠구나.)

취기와도 같은 행복속에 잠겨있던 오필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2

김석은 아침에 비옷을 입고나갔으나 몸이 폭 젖어들어왔다.

《오늘 공장에서 강쪽보수작업을 하였어요. 무슨 비가 그렇게도 많이 오는지...》

김석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문다지며 말했다.

《아이구, 감기걸리겠다.》

오필너는 걱정하며 그한테 마른 수건을 내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감기걸리였는걸요. 어머니, 좀 물려나주십시오. 옛취, 이놈의 재채기가 사람을 죽이는데.》

요란하게 재채기한 김석은 이마를 짚어보라며 아이들처럼 머리를 내밀었다.

감기소리에 놀란 오필너는 발돋움하며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그러자 김석은 요란하게 웃음을 뽐내며 말했다.

《다 나왔어요. 어머니 손은 정말 약손이군요.》

《원 녀석두. 그런 때면 꼭 세살난 아이같다니까.》

오필너도 웃고말았다.

어머니의 마음을 한바탕 즐겁게 해준 김석은 젖은 옷을 벗어 세면장에 들여놓고 마른 옷을 갈아입었다. 마지막으로 줄이 간 후렁한 덧옷을 걸치고 꼭지 달린 모자를 머리위에 얹어놓았다.

덧옷과 모자로 말하면 평양의 동무가 보내준것으로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가 착용하는 애용품이였다.

김석은 공장에 나가 더 많이 일하고 들어온 날이면 이상하게도 그림이 잘 그려지였다.

창작의욕으로 몸이 달아온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안타깝게 중얼거렸다.

《광선, 아, 언제면 해를 볼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벌써 여러날째나 해를 보지 못하고있었지만 김석은 누구보다 목마르게 해를 기다리였다.

《언제면 비가 걷히겠는지...》

오필너는 아들보다 더 안타까와하였다.

그는 아들을 따라 옷방으로 올라가려다가 감히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림속의 처녀이지만 방안에 아들과 잘 아는 처녀가 있다고 생각하자 자연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졌다.

일을 시작하려고 두손을 비비며 방안을 둘러보면 김석은 그림판에 띄워놓은 꽃보자기에 시선을 멈추었다.

《어머니가 보자기를 띄워놓았습니까?》

《먼지가 오를것 같아 띄워놓았다.》

《아까운 보자기가 뒹겼습니다.》

김석은 보자기를 벗기고 그림판을 벽쪽으로 돌려놓았다.

처녀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되자 오펔너는 여간만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대로 둘걸 그랬구나. 나는 정옥이가 좋은데.》

오펔너의 입에서 처녀의 이름이 불쑥 튀어나오자 김석은 흠칫 놀라며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조색판과 붓을 들었다.

오펔너는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김석이더러 아래방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였다.

이것저것 안료를 묻혀가며 색깔을 조합하던 김석은 조색판과 붓을 놓고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애야, 이제라도 평양에 올라가서 대학을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너는 대학을 마치면 나라에서 아끼는 큰 화가가 될게다.》

《가만.》

김석은 무엇을 찾기도 하듯 속주머니가 있는 가슴팍을 더듬었다.

《여기 있다.》

오펔너는 미술가처녀의 편지를 내놓았다.

김석은 몹시 당황해하며 열결에 편지를 와락 꾸겨쥐었다. 다음 순간 그것을 무릎에 대고 손바닥으로 펴고있었지만 그것 역시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채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자기로 돌아온 김석은 편지를 덧옷옆주머니에 재빨리 쑤셔넣으며 말했다.

《대학이 아니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런 산골에서도 미술가로 될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모두 너를 기다리고있지 않느냐? 기다리고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김석의 눈길은 허둥거리더니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다.

《나는 정옥이가 좋더라. 오늘 옷방에 올라가 그한테 몇번이나 말을 걸어보았다. 속이 깊고 참해보이더구나. 보던중 제일이야.》

《그는 한때 저의 동무였을뿐입니다.》

김석은 머리를 들지 못하며 자못 범상하게 대답하였다.

하지만 오펔너는 그의 어깨가 점점 처지는것을 보았다기보다 느끼었다.

《그래도 네가 처녀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느냐? 마음에 두고 있었길래 그랬을테지.》

《어머니, 그는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설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는 이 집 문턱을 자주 높이는데 그러다가 장가못가겠다.》

《나를 사랑하기전에 아들을 나라에 바친 어머니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집문턱을 넘어설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네가 가정을 이루고 평양에서 살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곁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때까지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던 김석은 문득 정신을 차리기도 한듯 머리를 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한것을 보고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입을 열었다.

《전 어머니곁에서 떠날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문제를 꺼내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흥분한 김석은 손을 어데다 건사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몸을 돌려보았다.

그러다가 덧옷주머니안의 편지가 짙이자 그것을 꺼내어 뿔뿔 찢어버렸다.

《내가 아직도 이 잘난것을 가지고있다니. 도깨비한테 홀리었지.》

그의 얼굴에는 피로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으며 타는듯 한련정도 있었다.

김석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집안에는 한동안 가슴 답답한 침묵이 깃들었다.

김석이 어머니를 찾아 이 집에 들어선 이래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다.

오펔너는 집안이 너무도 괴기하여 옷방을 들여다보았다.

김석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금시 방안에서 뛰쳐나가려는듯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고 어딘가 멀리 남쪽하늘을 쏘아보고있었다.

강냉이일사귀를 와스스 흔들며 이따금 바람질할 때면 락수물이 김석의 머리위에 뿌려지었다.

했으나 그는 머리를 적시는 락수물조차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오펔너는 김석을 인정과 쾌활성으로 빛어진 인간으로 여겨왔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같은것이 끼여들 짊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것처럼 쾌활한 김석이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던것이다.

오펔너는 지금 그것을 똑똑히 보고있었다.

(내가 여직껏 저애의 마음을 모르고있었구나.)

그는 김석을 친아들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한테 어머니 자격이 없음을 통절히 느끼었다.

3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면 머리가 희숙한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필녀를 찾아왔다.

그는 우산을 바깥에 세워놓고 집안으로 들어오며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개천에서 룡이 난다더니 우리 군에서 룡이 났수다. 평양에서 전화가 왔소. 아들의 작품이 미술전람회에 입선되었다고.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크게 속보를 써서 내붙이라고 방금 회관관장한테 파업을 주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구, 그래요!》

오필녀는 눈물이 나도록 기뻐했다.

그도 평양으로 올려보낸 아들의 작품 《산촌의 저녁》을 잘 알고있었다.

한평생 산골에서 늙어오는 그였지만 그림에서처럼 따스하고 포근하고 황홀한 산촌의 저녁풍경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교원출신인 부위원장은 김석이야말로 산골에 묻어두기 아까운 인재라고 한참 칭찬을 늘어놓고 가버렸다.

(그 말이 옳아.)

오필녀는 김석이를 곁에 붙들어두고있음으로 하여 자기가 사람들한테 죄를 짓고있음을 깨달았다.

그를 무조건 평양으로 올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성공도 하고 장가도 들고 만사는 좋게 해결될것이다

그가 보고싶을 때면 평양으로 찾아가자.

수매소집 늙은이도 그렇게 하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김석은 자기곁에서 떠나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그를 평양으로 보낼수 있을까?

오래동안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오필녀는 미술가처녀의 방조를 받기로 하고 아들 몰래 처녀한테 편지를 썼다.

장마는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간혹 구름이 벗겨지며 하늘은 개일듯 싶다가도 어디서 몰려오는지 검은 구름이 그 자리를 메워 버리며 비를 쏟아부었다.

편지를 보낸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다.

밖에서 주인을 찾는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계십니까?》

오필녀가 내다보니 비옷우에 우산을 받쳐든 웬 처녀가 처마밑에 서있었다.

눈이 역실역실한것이 분명 어디서 만나본 처녀였다. 그런데 어디서 보았던지 얼른 생각나지 않는다.

《누구더라?》

처녀는 소녀처럼 수집어하며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평양에서 오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옳지, 네가 정옥이구나 너를 기다렸다. 기다렸더니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오필녀는 처녀가 바깥에서 기다리고있는지 몇

시간 잘되기라도 한듯 수선을 떨었다.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턱을 조심스레 넘어서었다.

《어서 비옷을 벗어라. 이 집 문턱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느냐.》

처녀가 비옷을 벗자 오필녀는 그를 방안으로 안아올리다싶이 하였다.

《아래목에 앉아라. 여름이라 해도 장마철엔 아래목이 좋느니라.》

정옥이는 시키는대로 아래목에 앉으며 문이 반쯤 열려진 옷방쪽에 얼핏 눈길을 보냈다.

처녀가 김석을 찾고있다는것을 짐작한 오필녀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앤 저녁이 되여야 돌아온단다.》

처녀는 왜서인지 긴장을 풀며 안도의 긴 숨을 내쉬었다.

《그래, 우리 김석이하고는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지?》

오필녀는 처녀와 무릎을 마주하고 앉으며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소학교시절부터 소년궁전 미술소조에 함께 다니었어요.》

《그 다음엔? 어서 이야기하라우. 멈추지 말고.》

《미술대학에도 함께 입학하였어요.》

《한 책상에 앉아 공부하였겠지?》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 학급에서 공부한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갈라져 있으면 되겠느냐? 너는 평양에, 김석은 산골에, 안되고말구.》

오필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괴로움으로 되는지 정옥은 아래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오필녀는 제압당하고 자기 무릎을 철썩 소리나게 내리치며 머리를 저었다.

《나때문에 너희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너희들은 떨어져서는 안돼, 안되고 말구...》

《그렇게는 안될것입니다. 김석동무가 승인하지 않을거예요.》

《걱정할건 없다. 내가 있지 않느냐.》

오필녀는 어깨우로 물결쳐내린 처녀의 함치르른 머리를 정당게 쓰다듬어주었다.

울먹거리던 처녀는 끝내 참지 못하고 오필녀의 무릎우에 엎드리며 오열을 터뜨리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나라에 바친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김석이를 내놓으려 하고있다.

전사한 대원의 어머니를 모신 김석이도 훌륭한 인간이지만 어머니 또한 얼마나 고결한 분인가.

처녀의 어깨는 오래동안 오르내렸다.

4

점심때가 다가오자 오필녀는 자주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이웃 집 중학생한테 점심때 꼭 집으로 와달라는 쪽지편지를 주어 공장에 내보내면서 김석의 대답까지 받아오게 하였다.

그 김석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정각 12시가 되자 바깥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김석이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들었다.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속병이 도졌나요? 몇시에 그랬습니까?》

《애야, 누가 왔나 봐라!》

오필너는 놀란 사슴처럼 방구석에 가서 잠자코 서있는 정옥이를 가리켜보였다.

김석은 첫 순간 깜짝 놀라더니 다음 순간 얼굴이 붉어지었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약간 비칭거리며 방안으로 올라왔다.

두려운 눈길로 김석의 일거일동을 살피던 처녀도 구석에서 마주 걸어나왔다.

《찾아와주어 고맙소.》

김석은 처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처녀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며시 쳐들었다.

《뜻밖일테지요?》

처녀는 불타는 눈길로 김석을 마주보며 숫절개 웃었다.

젊은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오필너가 입을 열었다.

《벌써 이렇게 됐어야 했지!》

그의 말이 무슨 경종이기라도 한듯 젊은이들은 당황해하며 돌아섰다.

《정옥아, 밥상을 챙겨라. 김석이도 오래간만에 집으로 들어와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필너가 이르자 처녀는 재빨리 밥상을 차렸다.

세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오늘부터 한집안식구처럼 모여앉아 식사를 하자. 둘이 마주앉을 때도 좋았지만 셋이 둘러앉으니 밥맛이 또 다르구나.》

랑쪽에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앉아 식사하면서 오필너는 이처럼 오붓하고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식사해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흥이 난 그는 이야기거리가 수두룩하였지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는다. 식사때면 공장소식이며 밖에 나가서 들은 이야기를 곧잘 하던 김석은 오늘따라 통 말이 없다.

긴장하게 무엇을 생각하며 살피는 눈치였다.

거기에 위압당한듯 처녀도 부자연스러워하며 묵묵히 수저만 놀린다.

《김석의 그림이 어떻게 되었더냐?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들어보자꾸나.》

오필너는 미술가처녀에게 말을 던지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유화 <산촌의 저녁>을 국가 미술박물관에 소장하기로 했어요. 국보적가치가 있다고 높이 평가되었으니까요.》

《평양의 부모님도 알고있겠지?》

《제가 찾아가서 알려드렸어요.》

《네가 그곳에서 수고하는구나.》

처녀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끔 김석의 눈치를 살피던 오필너는 아들쪽에 얼굴을 돌리며 계속하였다.

《도리를 지키자면 너도 평양에 올라가 부모님들을 만나봐야 할것 같다. 교수선생들도 기다리고있다는데.》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것 같아요.》

정옥이가 조심스레 곁들어나섰다.

머리를 수긋하고 말없이 밥을 먹고있던 김석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서늘해진 그의 눈길은 처녀한테서 어머니한테로, 어머니한테서 다시 처녀한테 옮겨지었다.

《동무는 나를 데리러온것이 아니요?》

처녀는 당황해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김석은 저가락을 내려놓고 옷방으로 올라갔다. 아늑한 분위기속에 잠겨있던 집안에는 때안인 랑기가 돌았다.

밖에서 잔잔하게 내리는 비소리가 유별나게 톱 톱히 들려온다.

세상은 온통 비소리로 짙 차있는것 같았다.

《돌아가주오.》

옷방에서 김석의 목갈린 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어머니를 가르지 못하오. 동무는 이 집 문턱을 넘어설 자격이 없는것 같소. 이 집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들어설수 있소.》

정옥이는 어디가 쿡 아프기라도 한듯 몸을 흠칫 떨었다.

처녀를 피해 잠시 옷방으로 올라갔던 김석이 짜늘한 바람을 일으키며 아래방을 지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정옥동무. 곧 떠나주시오.》

그는 밖으로 나가며 조용히 재삼 부탁하였다.

처녀를 보내려는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가보아 한시각이라도 빨리 집에서 그를 내보내려 하는것 같았다.

밖에서 저벅저벅하는 발자국소리가 멀어져갔다.

그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앉아있던 처녀는 발자국소리가 사라지자 입을 열었다.

《가라면 가겠어요.》

당황해난것은 오필너였다.

《저렇게 우둘령거려도 속은 그렇지 않느니라. 달리 생각지 말아라.》

《전 떠나겠습니다.》

처녀는 오연한 태도로 일어섰다.

《네가 정말 이 늙은것을 울릴 작정이냐? 내가 눈물 흘리는것을 보아야 속이 시원하겠구나. 앓아라.》

눈물이 글썽해진 처녀는 한동안 오필너를 마주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

그날 밤 김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이 집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오필너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맺어주지 못하면 후날 자기가 편한 마음으로 눈을 감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있었다.

그런데 정옥이는 새벽차로 떠나겠다고 한다.

새벽차를 놓치면 집안에 들어박혀 웅근 하루를 기다려야 했기때문이었다.

오필너는 처녀를 하루라도 붙잡아두려 했지만 그는 바늘방석에 앉은것만 같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 사실 남자가 결별을 선언하고 뛰쳐나간 그런 집에서 하루 묵는다는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오필너는 가슴아팠다. 두사람 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고 딸이라면 가슴은 이다지도 아프지 않을것이다.

이들은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할것이다. 그러면서도 늙을 때까지 그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있을가 하고 생각하며 서로 그리워할것이다.

오필너는 아들이 모진 마음을 먹고 처녀의 사랑을 억지로 물리쳐버리긴 하였으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애정의 불꽃이 피어오르고있다는 것을 룩감으로 느끼고있었다.

김석이 처녀앞에 일부러 나타나지 않는것도 그 불꽃이 되살아나면 자기가 처녀한테 끌려갈수 있다는 두려운 생각때문에 그러는것이였다.

오필너는 온 읍내를 뒤져서라도 김석을 처녀의 곁에 끌어오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다오.》

그는 우산을 들고 나서며 처녀한테 일렀다.

밤이 되어 그런지 우산을 때리는 비발소리는 더 크게 들리였다.

어느 집 창문에서 네모난 불빛이 질벽거리는 길을 비쳐주고있었지만 불빛때문에 어둠은 한층 짙어보였다.

오필너는 먼저 아들이 다니는 제재공장으로 갔다가 함숙에 들리였다.

거기서 다시 아들의 동무네 집으로 찾아갔다.

김석은 그 집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기차소리를 기다리고있었다. 기차가 지나가면 집으로 돌아올 작정이었던것이다.

《가자.》

오필너는 엄하게 말했다.

《어머니, 들어와서 옷이나 말리워 입고 갑시다.》

《시간이 없다》

《저는 그 동무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못써. 걸어라.》

오필너는 발을 탕 굴렀다. 김석이앞에서 처음

으로 성을 내는 그였다.

오필너는 아들을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안은 텅 비어있었다.

차시간이 박두하자 처녀는 혼자 역으로 나갔던것이다. 아래목에 편지가 놓여있었다.

하얀 종이우에 얼룩점들이 점점이 찍혀있었다.

처녀는 편지를 쓰면서 울었던것이다.

오필너는 손에 들고있는 종이장에서 처녀의 숨결과 육체의 열기 그리고 흐느껴울 때의 가느다란 떨림마저 느끼고있었다.

편지를 볼 필요도 없었지만 그것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다.

《역으로 나가자.》

김석은 이번에도 어머니를 막아낼수없다는것을 깨닫고 묵묵히 따라나섰다.

《어머니, 피곤하실텐데 내 몸에 기대십시오.》

그는 목직한 한쪽팔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안고 다른 손으로 우산을 들어주었다.

오필너는 자기 몸에 닿은 아들의 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리는것을 느끼였다.

무슨 덩어리같은것을 삼키는듯 목에서 꿀꺽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두사람은 물에 신발을 적시며 서둘렀지만 끝내 기차를 놓치고말았다.

그들이 역에 도착하자 역구내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기차의 불빛이 산굼이로 연줄연줄 사라지고있었다. 가락맞게 울리던 차바퀴소리도 어둠속으로 찾아버렸다.

《이밤에 바래워주는 사람도 없이 떠나가다니.》

오필너는 닫고선 땅이 통채로 기우뚱거리는것 같았다.

김석의 억센 팔이 어깨를 제때에 껴안아주지 않았더라면 오필너는 기필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을것이다.

6

역기다림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날이 밝으면 떠나기로 하였다.

오필너는 맥없이 결상에 주저앉았다.

긴 나무결상 두개를 마주붙이고 가운데 등받이가 우뚝 솟은 어느 대합실에서나 볼수 있는 결상이었다.

(젊은이들의 사랑이 끝내 깨여지다니.)

죽어도 아깝지 않는 나이가 된 자기가 체신머리없이 젊은이들사이에 끼워있어 그들의 사랑이 깨여졌다고 생각하자 오필너의 심장은 비틀리우는것만 같았다. 밖에서 날아들어온 풍덩이 한마리가 젖은 날개를 털며 손등으로 기여다녔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기차가 하포역을 지나갔을테지.》

오필너는 앓는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하루동안에 폭삭 늙어버린것만 같았다.

김석이 다가오더니 어머니앞에 머리를 숙이고

부동의 자세로 서있었다.

처녀와 단호하게 결별하였지만 막상 그가 떠나
가자 허전하고 피로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피로움을 참지 못해 그러는것이 아니었
다. 김석은 숙였던 머리를 번쩍 들고 조용히 부
르짖었다.

《그때 용길(오필녀의 아들)은 한결음만 아니,
반결음만 물러섰어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내대였습니다. 자기자신의 생명보다 동지들의 생
명이 더 귀중하였기때문입니다. 그에게도 앞날의
꿈이 있었고 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지들을 위하여 그 모든것을
주저없이 바쳤습니다. 그는 영원히 저와 우리 전
우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을것이며 것처럼 살것입
니다. 이 집에는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려는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명예나
안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설 자리
가 없습니다. 정옥동무는 자기 갈길을 갔습니다.
그가 떠나갔다고 가슴아파하지 마십시오.》

김석은 가슴아파하지 말라고 대범하게 말하였
지만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보였다.

(네가 그래서 사랑하는 처녀와 결별하였구나.)

오필녀는 주먹으로 이마를 문지르고있는 김석
을 바라보며 저런 인간의 심장속에 깃들수 있는
처녀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김석의 심장속에 깃들수 있었던 미술가
처녀는 떠나가고말았다.

오필녀는 이제라도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싶었
다. 할수만 있다면 처녀를 실고가는 무정한 기차
를 돌려세우고싶었다.

어느새 역기다림칸 창문에는 새벽녘의 푸름한
빛이 어리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몸이 젖으셨는데
감기걸리겠습니다.》

김석이 걱정하였다.

오필녀는 노여운 눈길로 아들을 마주보았다.

《네가 한결음만, 아니 반결음만 양보하였어도
이렇듯 가슴아프게 헤어지지 않았을것이다.》

《전 어머니를 떠나서 살수 없는 몸입니다.》

《듣기 싫다. 너는 정옥이 말대로 평양에 올라
가 공부를 마쳐 하고 훌륭한 미술가가 되어야 좋
을것이다. 그래야 이 에미도 마음을 놓을것 같구
나. 내 이미 그런 생각을 한지 오래다.》

《그건 안됩니다. 전 어머니결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것입니다. 난 여기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부터 어머니에게 내가 큰 기쁨이 된다는것
을 잘 알고있습니다.》

오필녀는 저도 모르게 눈길을 떨구었다.

김석의 말이 옳았기때문이었다.

김석은 자기생활에 빛을 채워주는 존재였으며
그 빛이야말로 자기 녀의 호흠과도 같은것이였다.
하기에 오필녀는 자기 행복은 굳건하며 오래 계

속될것이라 믿어왔었다.

그런데 자기앞에 처녀가 나타났다.

처녀역시 자기생활에 새로운 빛을 채워주는 존
재였다.

헌데 새로운 빛을 안고온 처녀가 누구의 바래
움도 받지 못한채 쓸쓸하게 떠나가버리었다.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것이다.

《어머니, 날이 흰하게 밝았습니다.》

김석이 세번째로 알려주는 말이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있던 오필녀는 드디어
무거운 몸을 일으키었다.

7

오필녀의 눈앞에서는 때없이 처녀의 얼굴이 떠
오르곤 하였다.

그럴 때면 손에 쥐고있던 술가락을 저절로 떨
구기도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멍청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곤 하였다.

《어머니, 잊어버리십시오. 훌륭한 처녀들이 많
지 않습니다. 이 집문턱을 넘어서는 처녀는 마음
착하고 인물도 고운 처녀일것입니다. 두고보십
시오. 내 말이 틀리면 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
습니다.》

김석은 어머니를 위로하고나서 별로 웃을 일도
아닌데 요란하게 웃음을 내뿜었다.

오필녀는 아들의 입에서 웃음이 아니라 피로움
의 덩어리가 쏟아져나온다고 생각되였다.

그래서 하루빨리 김석을 떠나보내야겠다는 마
음을 곱씹곤 하였다.

그동안 비는 몇번 뿜을듯 한 기미를 보였으나
잔잔하게 물방울을 지으며 계속 쏟아져내렸다.

그날도 역시 날이 밝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이
였다.

나이 지속해보이는 남자와 여자손님이 비를 맞
으며 집으로 찾아왔다.

웃차림은 수수하였으나 그들을 보는 순간 오필
녀는 이곳 산골사람들이 아니라는것을 짐작하였
다. 왜서인지 오필녀의 가슴은 갑자기 두근거리
였다.

《뉘신지요?》

늙은이부부는 얼굴에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으
며 서로 마주 보지만 할뿐 대답하지 못했다.

오필녀는 자기뒤에서 아들의 이상한 거센 숨소
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김석은 어느새 자기방으로 자취를 감
추어버렸다.

《제가 정옥의 아버지입니다.》

남자손님이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정옥의 아버지라니? 그럼 평양의 정옥이의 부
모들이란 말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구, 이렇게 오시는 법이 어디 있수!》

오필녀는 두손으로 철썩 무릎을 쳤다.

《오신다는 전보라도 칠것이지. 그럼 우리가 역으로 마중가는것인데 이런 랑패라구야. 어서 들어오시우.》

오필너는 허둥지둥 달려나가 정옥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정옥 아버지의 가방을 앗아들며 집안으로 무작정 끌어당기였다.

《우리 정옥이는 이곳을 다녀온 후 통 말이 없고 밥맛조차 잃었답니다.》

정옥의 아버지는 자신이 죄라도 지은듯 오필너를 떼뗀이 마주보지 못하며 입을 열었다.

《고민에 빠진 그 애를 옆에서 보기가 민망스럽더군요. 하루는 우리 애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여기에 와서 어머니와 김석을 만나고 돌아온 날부터 왜선지 생각이 많아졌다더군요. 날이 갈수록 생각은 더 깊어지면서 자기자신에 대한 환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더군요. 자기의 하찮은 리기심때문에 자기 전우에게 의리를 다하려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김석이를 노엽히고 어머니를 놀래운 자기가 미워났다는거지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 시대와 이 시대를 빛내이는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도 깊이하게 되더라는거지요.

우리 시대, 선군시대에는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만이 살고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옥이는 몸부림쳤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어 이 시대에 살 자격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는가고 하면서 말입니다. 고스란히 나라의 혜택만을 받으며 자라온 애여서 아픔이 더 컸을테지요...》

정옥의 아버지의 무거운 음성이 몇자 정옥의 어머니가 한무릎 나앉으며 오필너의 두손을 모두 어잡았다.

《우리 정옥이는 자기 전우의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모시고있는 김석의 곁에 나란히 서고싶어합니다. 우리가 일찌기 이 집으로 왔어야 할터인데... 정말 안됐어요.》

오필너는 불시에 눈곱이 찌르르해나 고개를 숙였다.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뜨거운 불뭉치같은 것이 가슴속을 지저대였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혈육이라면 이보다 더하랴 하는 생각만이 마음속에 고괘칠뿐이다. 끝내 오필너의 눈곱에서는 맑은것이 줄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고...맙...수다.》

그러자 방안에 종전과 달리 화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정옥아, 너도 들어와야 할게 아니냐.》

처녀의 아버지가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일렀다.

《그럼 정옥이도 함께 왔단 말이요?》

오필너는 한순간 열나간 사람처럼 어쩔줄 몰라하다가 옷방에 대고 소리쳤다.

《김석아, 정옥이가 왔는데 뭘하고있느냐?》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김석이 가슴을 짚

펴며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그때 비옷을 입은 정옥이가 다소곳이 숙이고있던 머리를 도고하게 쳐들며 부엌문앞에 나타났다. 서로의 눈길이 바르르 떨다가 끝내 합쳐지면서 지그시 마주보았다.

《나가서 정옥의 비옷을 벗겨주어라.》

오필너는 아들의 등을 떠밀어 부엌으로 내보내었다.

웅글진 김석의 말소리가 낮게 들렸다.

《후회하지 않겠소?》

그러자 정옥이 허아래소리로, 그러나 푹푹한 발음으로 바르게 뇌이는 대답소리가 들렸다.

《후회할것 같으면 이 집문턱을 넘어섰겠나요?》

젊은이들의 격앙된 감정에 놀란 오필너가 손사래를 저으며 바쁜 소리를 내었다.

《아이고, 김석아. 그러면 못써. 먼길을 온 정옥에게 무슨 인사가 그러냐, 어서 정옥을 데리고 올라오렴.》

잠시후 얼굴이 붉게 상기된 김석과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 정옥이 조심스레 방안으로 올라섰다.

오필너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정옥의 손을 끄당겨 옆자리에 앉히며 흐뭇한 낮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가 언젠가 김석이 품들여 그린 정옥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안고 내려왔다.

《참 사둔님들. 우리 김석이가 정옥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시우... 김석아. 어서 그림에 씌운 보자기를 벗겨라, 어서...》

그바람에 얼굴이 더 붉게 상기된 김석이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어줍게 웃으며 다가와 보자기를 벗겼다. 그러자 버드나무옆에 서있는 정옥의 모습이 나타났다. 오필너는 제깁에 흥에 떠 자랑어린 어조로 정옥의 부모들에게 말을 붙였다.

《어떻습니까, 사둔님들 우리 아들이...》

정옥의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이어 웃음소리가 터졌다.

정이 담기고 가슴이 트이는 웃음소리였다.

오필너는 창문을 열어제꼈다. 멀리 안개를 두른 수리봉쪽 하늘이 흰하게 돌리었다. 좀 있으면 하늘은 개이고 아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해를 구경할수 있을것같았다. 가슴이 부풀어오른 오필너는 사람들이 많아진 자기네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는 남을 위하여 사는것을 무상의 기쁨으로 여기고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집에도 있고 방금 창문을 열고있는 이웃집에도 살고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나 살고싶은 나라, 인간중의 인간들만 사는 내 나라는 얼마나 좋은것인가!

습기찬 대기는 물결같은 느낌을 주며 오필너의 주름진 얼굴을 시원하게 어루만지면서 방안으로 밀려들었다.

언제밀에 눈보라가 잔다

서봉제

우리는 착공을 발파로 울렸다

고무풍선도 오르지 않았다
축포도 오르지 않았다
그날에 우리는 착공을 발파로 울렸다

허나
그 소식 인민은 들었어라
그 기쁨 조국은 새겼어라
우리 장군님의 원대하신 구상이
온 누리를 흔들던 그날의 메아리어

이 나라 들이라 심산의 골이라
북변의 한끝 이름없던 골짜기에
덧없이 흘러가던 강물을 모아
대호수를 펼쳐가는 여기 삼수발전소

일찌기 전기가 그토록 귀중하시여
언제와 철탑을 국장에 새겨주신
수령님의 뜻 꽃피워가시려
우리 장군님
그 옛날 버림받던 땅에
발전소를 보란듯이 세워가시거니

이제 산처럼 쌓아올릴 언젠는
또 하나의 선군시대 기념비로 솟아나고
취수장으로 쏟아질 드세찬 물소리는
얼마나 더 높은 북의령마루에
인민을 세워줄것이나

아, 허천강 너의 푸른 줄기우에
만년산악언제 틀고앉으면
별이 가까운 여기 산중바다에
우리는 돌격대자서전의 한구간을
무거운 닻으로 깊숙이 묻으리라!

잊지 못할 계절

불러 정다운

대대의 친구들아
오בות한 점심식탁을 그대로 두고
어서 나오라 빨리들 나오라
눈이 내린다 첫눈이 내린다

얼굴들고 치여다보니
량불에서 녹아내리는 눈
두손모아 소중히 잡고
공처럼 매만지는 하이얀 눈덩이
소리없이 가슴에 젖어드느냐

어찌 잊으랴 잊을수 있으랴
한해전 백설산악의 이 계절에
언땅 언바위를 허물며
언제기초의 청석바위를 찾아
불을 안고 번져가던 전투장의 낮과 밤

첫눈이 내리니 더더욱 삼삼타
가슴속 사연들은 그리도 많았는데
어이하여 단 한마디 말도 없느냐
땀으로 가꿔야 할 그 행복이 더 귀중했기에
언제와 함께 자라난 값높은 성장이며

하기에 우리는
푸른 싹 움트는 봄날보다
망울을 터치는 들꽃보다
눈의 계절, 서리꽃계절을 더 사랑하노라

가장 강한것을 남기고
가장 굳센것을 버려주는
백두의 정신과 기상을 닮아
우리는 건설의 멋도, 창조자의 긍지도
기어이 이기는 법도 여기서 배웠거니

아, 세월은 멀리 저 멀리 흘러가도
우리모두를 위훈으로 돌이켜보게 하는
잊지 못할 겨울의 그 장엄함
마음속에 순간도 잠들지 않으리라
성스러운 백두의 땅을
열과 빛으로 밝혀가던 돌격대의 전투담에
영원히 뜨지 않을 보금자리 퍼리라

어머니에게

떠나온 내 집 프락과 잇당은
백두의 하늘아래서
소대병실의 창력을 책상삼아
보고싶은 어머님께 편지를 쓰자 하니
생각은 왜 이리도 깊어질까요

이밤도 파스한 아래목
이 막내딸의 잠자리를 바라보며
저 멀리 북쪽하늘 바라보실
나의 어머니

함마치너로 소문난
그 사연 쓰자 하니 가슴 후덥고
언 바위돌의 산벼랑을 허물던
그 이야기 전하자 하니
그날의 설한풍소리 귀전에 울려오고

고난도 시련도 웃음으로 이겨낸
못잊을 그날이 눈앞에 젖어와
쓰고 지우고 보물진 종이는
벌써 그 몇장을 넘기고 넘겼던지

언땅에 천막기둥을 박고
지새운 첫 숙영의 허천강반의 밤
취사원의 밥버치에 폭우가 고여
《비물비빔밥》도 달게 들던
그 사연이 더더욱 목이 메여
펜을 달리지 못하는 이 마음

깊어가는 이밤 편지는 다 끝나지 못해도
언제건설장에서 자란 나의 키
어엿한 돌격대원으로 자란 나의 성장이
산너머 아득한 고향의 하늘아래
어머니의 꿈속에 이밤 보일거예요
아, 숙성한 이 딸의 모습이

아, 북두칠성

해빛안고 오시려나 별빛안고 오시려나
이렇게 기다림에 손꼽아보는 세월

한치한치 산악언제 하늘가에 닿을수록
날과 달에 이어지는 간절한 그리움아

지는 해도 우릴 위해 서산마루 못넘던가
뜨는 달도 우릴 도와 서둘러서 솟았던가

해와 달아 전해주렴 삼지연의 그날처럼
장군님 그 언제면 오시려나 전해주렴

아, 밤이면 언제우에 쌓이는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마음엔 낮에 북두칠성 내리네

내 고향 별동마을

-삼수군 돌격대원을 대신하여-

백암령 중턱에서
흘러내려 몇백리
두루봉 줄기따라
굽이굽이 몇천리
허천강과 운충강이 언제밀에 머물고파
이제는 고원우에 산중호수 되였는가

내 해종일 물장구치며
해별에 하얀 잔등 태우던
차돌바위 모래터는 그 어데 숨었느냐
해병될 잔뼈를 굳혀주며
엷은 가슴팍을 주무르던
물푸른 도래굽이는 그 어데 잠겼느냐

하지만, 아쉽지를 앓다
드넓은 호수를 둘러싸고
눈부시게 일떠설 리상촌의 새 마을 새 학교
밤이면 못별과 함께 불야경이 춤추고
낮이면 밝은 웃음, 아름다운 노래를 실어나르며
은물결 일렁일 발전소의 너 산중바다풍경이여

이 세상 만물이
해빛을 잊지 못하듯
대양의 일만창과가
내물을 잊지 못하듯
생의 끝까지 어린 꿈 실어다줄
나의 유년시절은

아, 숲에 묻혀 그늘 많던 삼수땅에
우리 장군님 눈부시게 펼쳐가실
내 고향의 별동마을이 다 말해주리
천지개벽 새 전설이 다 말해주리

언제밀에 눈보라가 잔다

저 멀리 저풍령에서
산악을 넘고 계곡을 밀며
몰아쳐오던 엄동의 눈보라
우리 쌓아올린 언제밀에서 길을 잃었다

눈의 광풍 옷섶을 쥐어뜯고
흰갈기는 대공에 타래쳐도
눈보라와는 너무도 깊은 인연을 맺은 우리
오늘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싶어라
발아래 아찔한 언제를 굽어보니
이제는 높이도 올라섰구나

백두성지에 사회주의리상촌 일떠세우고
여기 허천강변에 가설막을 짓던
눈덮인 계곡의 잊지 못할 그날이여

언제우에 뿌린 땅 없고
이겨낸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야
불길인양 펄럭이는 저 붉은기앞에
우리 어찌 심장의 말을 터칠수 있을것이나
흙마대를 지고 안고 달리며
아아한 바위벼랑을 허물어내며
비바람속에서도 우리 심장은 뜨거웠고

눈보라속에서도 우리의 땀은 식을줄 몰랐거니
하여 우리의 언제나
저렇듯 하늘가에 높이 치솟은것 아니던가

오, 우리 쌓은 언제말에 눈보라가 잔다
우리의 뜨거운 심장앞에 무릎꿇은
눈보라가 회오리친다
간고했던 발전소건설의 낮과 밤을 이야기하며
선군시대 인간들의 자랑스런 위훈을
이야기하며...

봄하늘

채동규

절세위인 우리 장군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날이어서
하늘조차 유난히 푸르청청 눈부십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철철 넘치고
태양의 밝은 빛이 가없이 비껴흐르는
아 봄하늘 봄하늘

바라보면 바라보면
내 마음 청신한 봄빛에 물들고
이 가슴 뜨거운 환희로 설레이나니
정녕
우리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장군님 품은
나를 후더웁게 품어주는 하늘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고 미래를 주는 봄하늘입니다

저 푸른 봄하늘아래
아름다운 선경으로 펼쳐진 강산
장군님의 거룩한 선군업적 노래하며
전호가마다엔 진달래가 꽃망울 터치고
두벌농사 포전들엔 새싹이 살지게 아지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그 중책을 지니시고
천만군민의 어버이 되시여
세기를 이끌어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5천년 력사우에 장군님 모시여
조선의 하늘은 영원한 봄하늘입니다

이 땅은 총대로 지켜선 꽃피는 봄동산입니다
오로지 장군님만
하늘처럼 봄하늘처럼 믿고사는 마음
전선길 굽이굽이 따라섭니다
선군의 천만리길우에

결사옹위 그 신념 불태워갑니다

아,
이 강산에 봄을 주신 장군님
일년 열두달 365일중에
우리 장군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신 이날은
어찌면 이리도
밝고 따스하고 감격스런 봄빛입니다

그늘 한점 없는 내 운명의 하늘
빛을 주고 열을 주고 희망을 안겨주며
우리의 머리우에 펼쳐진 봄하늘
장군님은 정녕
선군조선의 찬란한 봄하늘이시거니

봄하늘은
이 땅을 덮고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 봄하늘가로
주체의 강성대국은 드높이 치솟아오르고
그 봄하늘아래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원썩라 해도
눈독듯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일심단결의 선군혁명대오가 굽이치는 강토우에
김정일 열풍으로 후터워진 이 행성우에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 봄하늘!
오, 하늘처럼 믿고 사는 품
우리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장군님 우러러
4월의 이 봄날
흙모의 격찬을 드리웁니다!
최대의 영광을 드리웁니다!

《상봉》의 비극을 더 이상 지속해야 하는가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의 시세계를 논함-

최길상

1

우리 문학에서 조국통일주제의 시형상은 가사 《구국투쟁가》(리원우)에서와 같이 미제가 강요한 38도선에 의한 분렬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의 열정을 노래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전후시기에 이르러서는 《서운한 종점》(조벽암)에서와 같이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엄혹한 현실로 된 국토분렬의 안타까움을 노래하며 통일에 대한 절절한 지향을 토로하는데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그것은 시 《복수자의 선언》(오영재)에서와 같이 분렬의 장기화에서 오는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며 미제강점자들을 쳐몰아내 고야 말 투쟁의 격정을 터치는데로 승화되었다. 그것은 가요 《조선은 하나다》(안창만)와 《우리는 하나》(황진영)의 가사형상으로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시문학에서는 민족의 자주권이 외세에 의해 침해된 지난세기 100년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로정우에서 루적되어왔으며 우리 민족에게 미치고있는 불행과 고통의 거대한 폭을 안으면서 전민족의 생사운명이 극한점에 이른 현세기에 와서 더욱 절박성, 심각성을 띠게 되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끓고있는 조국통일의 열정, 그것은 국토분렬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력사에 류례없이 강렬하고 웅심깊은 전민족적, 공민적감정이다. 오늘의 통일의 열정은 이제 더는 참을길 없는 민족사의 극한점에서 터져오르는 걱정과 강렬한 지향, 불타는 열망과 의지력으로 특징지어진다.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의 시세계도 이러한 특징적인 기초에서 그 면모를 일괄시켜볼수 있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시대에 대한 시인의 반향, 그것은 곧 시인의 정서다. 시인의 정서는 시인의 세계관에서 흘러나오는 사색과 그의 심장에서 고동치는 감정의 총체이다. 그것은 시인의 객관세계에 대한 미학적평가이며 사회와 인간, 시대에 대한 시인의 사랑과 증오의 가장 고조되는 순간이다. 그것은 시인의 사회미학적리상과 밀접히 결부된다.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는 시대와 현실에 대한 이러한 정서가 낳은 산아라고 볼수 있다.

머나먼 인생의 길엔
작별과 상봉이 끝없다더라
작별뒤엔 상봉이 있고
상봉뒤엔 작별이 있어도
그 모든 작별은
즐거운 상봉을 위한것이라더라

하지만 조국아, 나의 조국아
하나인 조국을 둘로 가른
동서 저 룡백리 분계선으로 하여
작별아닌 작별이
이 땅우에 있나니
오호, 그 가슴아픈 이야기
여기에 적어 세상에 전하노라!

서사시의 머리시에 있는 이 두련은 분렬의 비극이 낳은 가슴아픈 사연을 예언해주고있다.

서사시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에 앞서 시인이 어째서 《그 가슴아픈 이야기》를 전하려고 서사시적형식을 취했겠는가를 살펴보자.

시는 산문에 비하여 정서의 가장 양양되고 집약된 형태의 문학이다. 바로 우리는 《산문적》이며 《시적》이라는 두개의 개념을 호상 상이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있다. 여기에는 운문과 산문의 관계 즉 《무운》과 《유운》의 관계와 같은 형식의 측면에서뿐만아니라 내용의 측면도 고려에 넣

고있다. 즉 정서의 직접적인 발현과 언어적표사의 화폭을 거쳐서 야기되는 미적정서와의 사이에는 본질적차이보다도 농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시라고 할 때 우리는 서정시를 두고 말하게 된다. 그것은 서정시가 시문학의 대표적인 형식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의 분렬이라는 수난사가 반세기가 넘게 오래 지속되어 혈육이 갈라져 세대가 교체되는 정상을 이루고있는 민족사의 아픔은 서사시적형식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분렬의 비극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서정시형식이 많은 제약을 가지고있다. 반면에 서사시는 가장 압축된 극적표사와 서정적인 주정의 토로를 요구하고있다. 여기에는 객관적이며 서사시적인 극적표사가 필요하며 또한 서정을 토로하는 내부적인 주정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사가 빚어내는 비장한 서사시적화폭을 압축된 극적박력과 심금을 울리는 서정의 시화로서 서사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3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에는 조국분렬로 인한 한가정의 비극적인 운명사가 비껴있다. 서사시는 한 가정의 운명을 통하여 분렬이 가져다주는 겨레의 고통과 비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그리하여 분렬은 비극이고 통일만이 민족이 살길이라는 주제사상적과제를 뜨거운 걱정속에 해명하고있다.

서사시의 예술적성과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분렬된 비극을 직접 체험하는 인간들의 호흡과 맥박이 이 서사시의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서사시에 일관하게 흐르는 감정-정서는 절절한 비장미와 걱정적인 흥분과 가슴저림의 아픔이다.

서사시의 주인공은 《내 어릴적 그날로부터/ 흰머리 없는/ 이날 이때껏 간직한 그 말을/ 나의 형제여 동포여 겨레여/ 분렬된 나의 민족이여/ 내 그대들에게 하노니/ 살아서 만나라》고 호소한다.

찬바람 스산한

저 남녘땅에서 마지막숨을 거두며

아버지가 어린 나에게 한 말이노라

할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에게 한 말이노

라!

이 말은 북반부에 계시던

나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남긴 말이노라

하지만 주인공이 어머니를 찾았을 때에는 그는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니였고 잔디덮인 봉분만이 아들을 맞이하였다.

《살아서 만나라》는 운명의 절규를 안고 고향을 찾은 주인공에게 어이하여 저세상의 어머니와 《상봉》하는 비극이 차례지게 되였는가.

서사시는 이러한 극적긴장감으로 독자들을 흥분시키면서 분렬의 비극이 빚어낸 민족의 아픔을 가슴저리게 감수하게 한다,

...주인공 순기는 높지 않은 집문턱을 제발로 겨우 넘어서던 그때 작은 트랙 울바자뼉을 혼자서 나서보기도 전에 어머니와 헤어졌다. 하기에 반백이 없혀진 이 날까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며 애써 어머니의 표상을 그렸으나 그때마다 림진강건너 북쪽나루가에서 자기를 부르던 애라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와 희끗희끗 움직이는 그 모습만이 희미하게 떠오를뿐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알고있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전부이다.

주인공 순기의 형상은 분렬세대의 정신적, 심리적고충이 집대성된 축도이다.

그의 어머니는 림진강건너 북쪽에 출가하는 너동생의 빚을 만들어주려고 강을 건너갔다가 분계선이 막혀 마흔해가 넘도록 헤어진 남편과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연고로 하여 주인공은 어머니의 얼굴도 익히지 못한채 남녘땅에서 아버지와 할머니마저 잃고 인생의 막바지에서 방랑생활, 이민생활 등 기막힌 생활고를 거쳐 삶의 저녁노을이 비낀, 머리에 반백을 엮고서야 조국을 찾은것인데 오호라, 절통하다, 살아서 꼭 어머니를 만나라고 운명의 당부를 한 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념원은 어찌한단 말인가. 마흔해가 넘도록 기나긴 세월 하루처럼 변함없이 헤어진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며 동리에서 차려주는 60뿔 생일상도 통일되는 날 받겠다고 뒤로 미루었다는 어머니마저 저세상에 간 것이다. 《상봉》의 비극이었다.

서사시는 주인공의 체험세계에 대한 정서적개방과 시적일반화를 통해 《살아서 만나라》는 작품의 총적주장을 강렬한 극적충동과 서정의 설레임으로 감동에 젖어 해명하고있다.

-나는 이제 못간다
너만은 너만은 죽지 말고 살아서
기어코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거라

이것은 분계선이 막힌 림진강을 건느려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밀선에 탔던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나운 풍랑과 태풍을 만나 남조선 《경비정》에
불잡혀 이 감옥, 저 감옥으로 옮겨가면서 옥고를
치르다가 분별의 원쑤들의 살인고문에 마지막숨
을 거두며 어린 주인공의 손을 부여잡고 남긴 마
지막말이다.

-장손아, 가자!
네 어머니한테로 가자!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서 가자!

이것은 운명한 아들의 시신을 부여안고 피의
절규를 하다가 실성한 할머니가 주인공인 손자
(순기)에게 남긴 말이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기
만 하면 정신이 드신듯 이 말을 외우곤 하셨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실성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온 남녘땅을 헤매이던 순기, 눈보라우는 다
리밑에서 온밤 떨기도 하고 남의 집 처마밑에서
해종일 비를 굶기도 하고 길가의 나무밑에서 잠
들기도 하면서 철부지 주인공은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정처없이 가고 또 갔다.

허나 세월은 너무나도 야속했다. 인생길의 가
지가지 고초를 겪으며 애오라지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려는 한가닥의 갈망을 안은 어린 인생에게
가혹한 현실은 그 소원마저 풀어주지 않았다.

장마에 물이 불어난 림진강, 북쪽에서는 한밤
중에 관리위원회의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수해를
막으려고 뚝방을 들고 뚝쳐나섰는데 어인일인가
남녘에서도 뚝방이 움직인다.

비
비
소낙비
술렁대는 강물

움직이고 움직이는 뚝방들
분계선이 강우로 지나갔어도
옛 풍속은 남아
그 누군가 강건너 향해 소리치노라
-거기는 어땡소?

그러자 강건너에서 마주오는 목소리
-거기는 어땡소?
서로 묻고 위하며 걱정하거니
분계선이 땅을 갈라놓았어도
이 땅 사람들의 마음이야 어찌 갈라놓으랴

서로 마주 부르는 낮익은 목소리
서로 마주 흔드는 뚝방
뚝방의 일이 벌어졌노라
림진강건너에서 나의 어머니를 찾는 소리
-순기 어머니가 있소?
순기 어머니가 있소?
나의 어머니는 강맞은편을 향해 힘껏
소리쳤노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때 또다시 낮익은 목소리가 울려왔어라
-순기가 왔다갔다네
순기가 어머니를 찾아왔다갔다네
하늘에서 내려터지는 우뢰소리도
이 소식보다 크랴

그래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뚝방이 흔들리는 강건너를 향해
나의 어머니는 웨쳤거니
-뭐라구요?
뭐라구요?

-순기가 왔다갔소
순기가 어머니를 찾아 왔다갔소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머니는 뚝방에 얼른거리는
강맞은편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노라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이 있을
비뿌리는 캄캄한 남녘땅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노라
이 기쁜 순간에도
이 즐거운 순간에도
가지 못하는, 달려갈수 없는
나의 어머니의 그 고통을
나의 어머니의 그 피로움을
그 무슨 말로 다 할수 있으랴

비
비
비
소낙비
어머니의 눈에는 비물인지 눈물인지
흘러내렸노라
찬비에 젖은 굳어진 어머니의 입술은
조용히 떨리고있었노라
(아들아, 내 아들이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우리는 살아서 기어코 만나야 한다)

북에서도 남에서도 살아서 만나기를 애타게 바라건만 무정한 세월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들은 하나도 살아서 만나지 못했다.

서사시는 이처럼 강한 극성을 야기시키면서 분렬의 비극이 한 가정의 비극일뿐아니라 온 겨레의 비극이라는것을 사람들의 가슴에 강렬한 충동으로 울려주면서 통일이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 엄숙한 과제라는것을 숭엄히 호소하고있다.

그렇다, 통일만이 이 세상에서의 상봉을 이룩하는 길이고 분렬은 저승에서의 《상봉》의 비극을 낳는 길이다.

이것이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의 총적주장이며 시대와 겨레앞에 고하는 엄숙한 선언이다.

4

문학은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만사람을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되어야 한다.

작품은 생활의 진실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시대적념원의 구현이다. 때문에 작품은 그 시대의 가장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적노력의 결실로 된다.

작가는 시대와 력사앞에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예술화하여야 한다. 그러되 그 하고싶은 말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우렁찬 합창속에서 조화의미를 이루는 개성적인 목소리로 되어야 한다. 철학적인 사색과 예술적예지, 작가의 독창적인 목소리가 없는 문학은 예술로서 가치를 상실한다.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는 서정적인 세계와 리성적인 예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독특한 격조를 보여주고있으며 통일의 원쑤인 미제를 비롯한 온갖 분렬세력을 규탄하는 민족적인 분노가 시적 화폭속에서 개성적인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서사시는 민족분렬의 비극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구성의 범위가 넓어졌을뿐아니라 작품의 주제에 맞게 격정적인 흥분과 열정, 뜨거운 심호흡으로 서사성과 서정성의 유기적인 통일과 시행의 장단, 말의 련속과 단절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로 력학적음계를 조성하였다.

서사시에서의 서정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체험에 철저히 의거하게 된다. 작품은 형상속에서 현실에 대한 반감과 공감을 직접 표현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다만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에 대한 미학적평가를 발전시킬수 있다. 이 경우 작품의 형상은 주인공의 마음속 깊이에서 태동하는 깊은 공감과 반감을 그의 사색과 감정의 선을 따라가며 천명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서정성과 서사성의 밀접한 결합이며 노래와 화목과의 유기적인 통일이며 노래는 화폭속에서 울려나오며 화폭은 노래의 배경을 형성시킨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형상은 주인공과 시인의 혼연일체를 실현한것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종래의 서사시들에서 주인공이 따로 있고 여기에 시인의 시정과 느낌으로 주정이 개입되는것과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 전편이 주인공 순기의 체험과 느낌, 사색과 감정으로 일관되어있으며 그 어느 경우를 물론하고 시인의 주정이 따로 주어지는 례가 전혀 없다. 이것은 독특한 형상수법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보여주기에는 그 체험자의 시점과 느낌으로 모든 형상을 줄기차게 엮어나가는것이 가장 절절하고 진실하며 합리적인 선택인것이다.

이러한 형상수법에 적응되게 서사시는 갈라진 가족의 비극을 원만히 표현할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아주 조리있게 맺어주고있다. 여기에서 주인공의 어머니의 너동생인 이모의 설정은 요령있는 형상기교의 발현이다. 이모는 주인공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지 못한 어머니의 한생, 북에서의 어머니의 생활을 전해주는 인물로 설정되었다. 하면서도 갈라진 아들을 그리는 언니(주인공의 어머니)의 절통한 심정을 직접 체험한 인물로, 언니의 심정을 대변한 인물로서 역시 자기의 형상적몹을 당당히 가지고있다.

여기에서 특히 이모가 주인공에게 들려준 열레빗에 대한 이야기는 서사시전반의 감정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은 열레빗에 중요한 형상적의도를 실어서 서사시의 제2장 3절에서 《열레빗의 노래》라는 유별난 제목을 달았다. …초생달이 열레빗을 닮았는가 열레빗을 닮아 초생달인가, 울어머니 꿈 많던 처녀시절에 빗 하나 살돈이 없어 앞뒤집 빗을 보고 열레빗을 만들었다. 머리없는 동생에게 새빗으로 머리를 단장해주고 싶어 밤배를 타고 이모를 찾아온 어머니… 그런데 어이하랴. 그 열레빗으로 하여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과 영영 헤어져 못만났으니 참으로 그 열레빗은 아들이 어머니를 그려볼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었다.

너 멈추라 세월이여
급제동하라 너 세월이여
분별로 하여
이 나라 어머니들이 겪는 고통을
더는 나르지 말라
너도 분계선가시철조망에 찢겨
피흐르며 지나가지 않느냐
이 땅에선 너도 저 콩크리트장벽에 부딪쳐
울며 흘러가지 않느냐

꺼어진 열레빗이여
어머니의 손에 놓였던 빗이여
너 지금 나의 손에 놓이듯
어머니의 손을 내 잡을수 없었던가
너 몇몇해 놓였더냐
이 아들의 손을 잡고싶어하던 어머니의 손에
너 세월이여 세월이여!

이처럼 작품의 발단에서 제시된 열레빗은 서사시의 제5장에서 조국을 찾아온 아들의 손에 놓이며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추억과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비통한 설움이 한데 엉켜 주정을 더치는 중요한 형상의 요소로 되고있다.

어머니가 한생 순기에게 준 사랑은 남다른 사랑이었다. 그것은 가까이 자식을 둔 여느 어머니들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헤어져 소식조차 알길없는 그런 아들에게 바친 사랑이었다. 남다른 운명, 남다른 생활은 그 사랑도 기이하고 류달랐다. 남쪽에 비구름이 드리워도 그 비구름이 마음속에 늘 얹혀있고 강추위가 닥쳐오면 그 추위에 떨고있을 아들을 자기의 체온으로 덮혀주지 못해 가슴앓우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것은 또한 향기로운 첫물 파일을 따도 아들을 생각하며 차마 들수 없었던 사랑이었고 아들이 저지른 잘못

으로 남들에게 말을 들을 때에도 자식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랑이었으니 실로 주인공의 어머니는 여느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줄수 없었던 그런 사랑을 아들에게 주었다. 허나 그 사랑은 가슴에 넘쳐 흘러도 아들에게 줄수 없어 마음속 깊이 갈피갈피 간직하던 그런 사랑이었다.

갈피갈피
마음속 속깊이 간직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산천에 뿌리면
엄동설한에도
움이 트고 망울지고
꽃들은 피리

마음속 속깊이 간직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머나멀리 날아가는
새들의 깃에 달아주면
쉬지 않고 단숨에
바다건너
천리를 날아가리
만리를 날아가리

얼마나 헤어져 알길없는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그 류다른 사랑을 노래한 눈물겨운 대목인가.

서사시에서는 이러한 격정의 터침이 바로 이모의 체험을 통하여 주인공에게 전달되어 그것이 주정화되고 토로되는것으로 형상하였으므로 마치 한편의 서정시를 대하듯이 모성애의 정서를 강하게 물결치게 하며 독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우리는 서사시의 요소요소에서 이런 정서적감흥을 많이 받는다.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에는 바탕에 랑만의 정서가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만일 서사시가 분별된 민족의 비극을 낳게 한 한 가정사에 대한 동정과 설움을 야기시키는데 머물렀다면 그것은 시대앞에 지닌 문학의 사명과 본분을 다했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서사시에서는 가슴저린 분별의 아픔과 설움이 결코 더는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 정서적주장이 랑만의 색조를 타고 세차게 일렁이고있다.

문학에서 랑만성구현은 객관적조건, 다시 말하여 랑만적인 현실과 그것을 예술적으로 재현하

여야 한다.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의 랑만성구현은 시대의 사회미학적리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다. 여기에서 제7장 3절의 《벼이삭들의 노래》는 매우 이채롭다. 우에서 이야기한 《얼레빗의 노래》가 애끓어 통절한 설분을 자아냈다면 그와 상반되게 《벼이삭들의 노래》는 환희로운 감정이 넘치고있다.

사시장철 일년열두달
이 벌을 가꾸셨네
60돛 생일맞는 긴긴평생
이 땅을 가꾸셨네
통일을 가꾸셨네
통일을 가꾸셨네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의 꿈을

금빛이삭 엮고엮어
통일을 엮으세
금빛나락 쌓고쌓아
통일을 이룩하세

동심이 넘치는듯 한 벼이삭들의 노래에는 모성애와도 같은 뜨거운 사랑을 안고 벌에서 벼이삭들을 가꾸어온 어머니의 그 로력과 정성이 통일으로 지향되고 통일을 위한것임을 동시와도 같은 정서로 정깊이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랑만적정서는 마침내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통일이라고 하시며 력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내놓으신 그 찬란한 미래로 더욱 승화된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줄 구호물자준비정형을 보고받으시는 한 협의회에서 분계선마을의 어느한 어머니가 자기의 쌀도 보내달라고 했다는 그 소행을 두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한알한알 정성들여 쌀을 골라 그 어머니의 남편과 아들에게 보내주자고, 어머니가 보내온 그 쌀은 하얗게 정미하여 도로 돌려주자고 하시며 분계선마을의 어머니를 비롯한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어머니의 심리를 통하여 절정을 이루고있다.

어머니는 온 나라가 받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서 분계선마을의 늙은이에게 인사를 전해주셨다는 이 꿈같은 사실에 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남에 있는 아들을 대신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무릎꿇고 엎디어 절하며 소리내어 울었다. 한없이 따사로운 그분의 품에 남에 있는 아들과 남편이 안기여있다. 남쪽을 향해 -순기야! 여보! 하고 목메어 불렀다.

오,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40여년전의 그날
림진강기슭을 오르내리며
애타게 아들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노라

그렇다. 통일의 주체, 민족대단결의 중심이시며 아버지이신 **김일성**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안으신 통일의 령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모신 대에 우리 조국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할것이니 《나의 형제여, 동포여, 겨레여/ 분렬된 나의 민족이여/ 들으라 저 목소리를/ 이세상이 아닌/ 저세상에서 들려오는/ 나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나의 어머니의 말을 들으라/ 죽어서 죽어서 만나기 전에/ 살아서 만나라!》. 서사시는 이렇게 매듭짓고 《맺지 못한 시》라는 종장에서 지금은 맺음시를 맺지 못하지만 통일의 그날 저 무너진 콘크리트장벽을 뚫고 림진강이 와와 소리치며 흐를적에 그리고 삼천리강산에 아름다운 꽃들이 필적에 이나라 7천만의 뜨거운 눈물에 붓을 적서 긴긴 맺음시를 눈물로 쓰리라 했다.

참으로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는 그것이 반영하는 분렬된 현실의 특질로 하여 격동적인 감정의 충격, 랑만적기백의 나래침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이 서사시에서는 해결하여야 할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그 대표적으로 중요한것은 주인공의 성격형상과 주관적인 서정토로와의 관계문제이다. 그것은 제6장 4절에서 주인공이 동요시절의 고향을 추억하는 생활세부들이 비사히 정서화되고 향수에 젖을수 있도록 토색질게 그려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사시점이 혼동된 감이 있어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진실성을 약화시키고있다는것이다.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는 이승과 저승의 《상봉》의 비극을 더는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정서적충격을 주는것으로써 조국통일열망을 더욱 뜨겁게 끓여주고있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꽃

리정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임이다.》

해빛 따사로운 4월의 명절 나는 온 가족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태양의 꽃 **김일성** 화축전으로 흥성이는 **김일성** 화 **김정일** 화전시판을 찾았다.

벌써부터 축전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그 누구의 얼굴에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한가득 어려있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고많다. 하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 화처럼 사람들에게 끝없이 숭엄하고 뜨거운 감정을 불러주는 꽃은 없을것이다.

나의 마음은 어느덧 꽃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예로부터 꽃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아름다운것으로 지향시키고 이끌어주는 생활의 길동무이며 벗으로도 되어왔다. 하기에 꽃에 대한 전설도 많고 노래와 미술작품들도 많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희망과 사랑, 청춘을 꽃에 비겨 즐겨 이야기하고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 자식들에게 꽃과 관련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다. 것처럼 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주는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꽃중에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아름답고 고상한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혁명을 위해 참담고 정의롭게 살도록 숭고한 자각과 신념, 불타는 충성심을 안겨주는 그런 꽃도 있다. 그꽃이 바로 **김일성** 화이다.

김일성 화, 이 꽃을 마주할 때면 마음은 끝없이 숭엄해지며 우리가 살고있는 이 모든것, 해빛 밝은 집이며 행복한 생활이 흘러가는 거리들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된다.

마치도 그 꽃이 오늘의 이 생활과 래일의 먼 미래까지도 굳건히 지켜주고 보살펴주는것 같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김일성 화, 그 꽃은 조국과 인민, 세계의 자주화 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여 피어난 꽃이다. 만물을 소생시킨 4월의 봄이 있어 오늘의 이 행복이 마련되었거늘 인민의 행복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어 수령님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과 소중한 그리움이 해빛밝은 축전장에 차고넘치는것이다.

그 숭엄하고 절절한 마음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뿐아니라 세계 수많은 외국의 벗들의 마음속에도 굵이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꽃을 피워온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넘어 수많은 **김일성** 화를 꽃피워 보내여왔다.

그들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운명과 자기 민족, 나라의 전도를 생각하여 이 꽃을 우러르며 꽃피웠을것이다. 온 세계가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수천수만의 꽃송이가 되어 이 드넓은 축전장에 가득차고 아름답고 황홀하게 피여났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애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심장속에,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꽃과 함께 더욱더 온 세상사람들의 삶을 행복과 미래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나는 축전장을 나와 대동강변을 거닐었다.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에서 붉은 봉화가 힘있게 타고르고있었다. 나의 가슴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존엄과 긍지로 한껏 높뛰었다.

불멸의 꽃 **김일성** 화, 흘러간 지난날뿐아니라 오늘도 미래도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꽃피워주는 **김일성** 화는 더욱 만발할것이다.

창조리

창조리는 고구려 봉상왕때의 재상이었다.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왕의 비위와 위엄에 주저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제때에 충언으로 간하여온 대바른 관리로 력사에 전해오고 있다.

한명의 관리로

창조리가 고구려의 국상으로 있을 때의 가을 어느날이었다.

이날 고구려 봉상왕은 여러 신하들을 궁실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외적들이 우리 변경에 자주 침입하므로 나라가 늘 불안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왕은 신하들에게 나라의 큰 걱정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고구려 서북쪽에 린접하고있던 외적들이 이때에 자주 고구려에 쳐들어와 백성들을 살해하고 재물들을 빼앗아가곤 하였다.

그 외적들이 바로 3년전에도 변경에 쳐들어왔는데 봉상왕이 그를 몰아내려고 신성에까지 출동하였다가 적의 우세로 말미암아 도리어 공격을 받고 곡림까지 피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때 신성의 성주인 북부소형 고노자가 기병 500여명을 거느리고 왕을 맞이하고 반격을 가하였으므로 봉상왕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외적의 침입을 물리칠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이 바로 며칠전에 또다시 침입하여와서는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때는 다행히도 무덤을 파던 외군들이 갑자기 저절로 죽어넘어지고 파헤친 무덤안에서 《풍악소리》가 울려나와 귀신이 있는것이라고 놀래여 모두 달아났으므로 더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놈들이 변경에서 이렇게 날치며 소요를 일으키고있으니 고구려의 걱정이 아닐수 없었다.

《외군들의 침노를 막아낼 방책에 대하여 생각되는것이 있다면 어서들 말해보아라.》

왕이 이렇게 독촉하자 한둘의 신하들이 의견을 내놓았다.

어떤 신하는 나라의 군사를 변경에다가 더 많이 상주시키자고 하였고 어떤 신하는 군사를 더 징발하여 강화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나라의 군사를 변경으로 집중시키면 수도를 비롯한 나라안의 방비가 허술하여져 나라가 더욱 위태로와질수 있는 일이라 취할수 없는 방책이라고 하였고 더 많은 군사를 징발하자는것은 당시 흉년이 거듭 들어 백성들이 기근에 빠지고 나라의 재정도 고갈되어있는 형편에서 나라에 속병이 더 들게 하는 일이므로 합당치 못하다고들 하였다.

《그럼 외군들을 막을 방도가 없단 말이나!》

왕은 한탄조로 여러 신하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때 국상 창조리가 한결을 나서며 입을 열었다.

《소신에게 한가지 생각이 있나이다.》

《어떤 생각이나?》

《국경에 군사를 더 보낼수 없고 나라형편으로 군사를 더 징발할수 없는 형편에서 오직 한가지 방도는 변경을 맡길만한 관리를 적합한 사람으로 뽑아 임명하는것이라고 생각하나이다.》

《한명의 관리로?…》

신하들은 어리둥절해서 창조리를 바라보았다. 나라의 위험을 어찌 한사람의 관리를 임명하는것으로 막을수 있는가 하는 의문의 눈길이었다.

왕도 리해되지 않는듯 창조리에게 물었다.

《나라의 위기를 어찌 한사람의 관리를 선발하는것으로 풀수 있겠느냐?…》

이때 창조리는 조리있게 대답하였다.

《지붕을 없으려면 서까래보다 적당한 대들보를 먼저 마련하여야 하는 법이옵니다. 군사를 아무리 늘이고 징발한다고 하여도 그를 맡아 거느릴 장수가 없이는 승산을 볼수 없나이다. 그러니 변경을 지켜낼만 한 지략과 담력을 가진 사람을 골라 맡기는것이 선차이라고 보나이다.》

《그렇지!》

왕이 이렇게 긍정하자 여러 신하들도 일리있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럼 그런 책임자로 누구를 천거했으면 좋겠느냐?》

왕이 묻자 창조리는 선뜻 대답했다.

《신성의 성주인 북부소형 고노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나이다.》

《고노자?》

왕도 지나간 일을 잊지 않는듯 대뜸 고노자를 상기하였다.

《예, 그에게 변방의 방어임무를 맡기고 돌보아 주면 자기의 지략과 담력을 다 발휘할테니 더 녀려될 일은 없을듯 하옵니다.》

여러 신하들도 모두 찬동하여 왕은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고 외적의 침입을 막을 임무를 주었다.

고노자는 원래 위풍과 명성이 있는지라 태수로 되어 지략을 펴가며 정사를 하고 변방의 방어를 강화하니 백성들이 따랐고 외적은 두려워 다시 침노하는 일이 없었다.

한명의 적임자를 임명하여 나라의 걱정이 덜어지자 여러 신하들과 나라 백성들은 국상인 창조리야말로 정사를 할줄 아는 지략을 갖춘 재상이라고 칭송하여 그 이름이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신하로서 후회없을 일

고구려 봉상왕이 왕위에 오른지 몇해가 지난 8월 어느날이었다.

왕의 정사가 잘못되어나가는것을 보고 신하의 본분으로 입을 다물고 가만있을수 없었던 창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번 생각을 거듭하면 끝에 이날 드디어 기어이 간언하리라 마음을 먹고 왕에게 접견을 청하였다.

봉상왕은 왕위에 오른지 여러해가 지나자 점점 안일하여져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만을 즐기려 하였다. 그리하여 몇해전부터 궁궐을 꾸리는데 나라의 재정을 탕진하기 시작하였고 15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남녀들을 동원하여 왔다. 그런데다가 이제 2월부터 7월까지 비 한방울 내리지 않아 백성들의 살길은 막연하였다.

부역에 지치고 먹을것이 떨어진 백성들의 원성은 날을 따라 높아갔다.

이에 대하여 여러 신하들이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여러 신하들을 내쫓았으며 형벌도 가하였다.

앞으로 나라와 백성들의 위기가 어느 정도에 이를것인가 하는것이 불보듯 명백한 시기였다. 이런 순간을 더 넘길수 없다고 생각한 창조리는 드디어 왕에게 접견을 청했던것이다.

《국상은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짐에게 접견을 청하였는고?...》

왕은 요즘에 와서 정상적으로 벌려오던 모임도 폐지하고 단지 나라에 급한 일이 있을 때에만

왕의 접견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창조리를 만나자부터 이렇게 물었던것이다.

《급한 일이옵니다.》

《무슨 일이고?》

《대왕님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하셔야 하리라 보나이다.》

《또 그런 소리이고? 그것이 어찌 급한 일이고?》

그런 소리를 하려면 돌아가라.》

《아니옵니다. 나라의 임금에게서 백성들에 대한 생각보다 더 급한것이 어디 있겠소이까. 예로부터 일러오기를 백성이 있어 임금이 있다고 하였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의 재앙이 거듭되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사방으로 방황하고있으니 그들이 이제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없어진다면 대왕님은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유지하시겠나이까. 나라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한번 생각을 고쳐하기 바라나이다. 그러니 우선 궁지에 빠진 백성들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나라의 재물을 소비하는 궁궐의 토목공사를 중지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보나이다.》

창조리가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궁궐공사에 대한 말이 나오자 왕은 발끈 성을 내었다.

《궁궐이란 백성들이 우리러보는바인데 궁궐이 웅장화려하지 않고서야 임금의 위엄과 무게를 보일수 있겠는고! 그대 바로 궁궐수축은 짐을 위한 일인데 어찌 그르다고만 생각하는고. 신하로서 그제 무슨 심보이고! 국상은 짐을 비방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칭찬을 구하자는 심보가 아닌가?!》

《임금의 잘못을 간하지 않는것은 신하로서 충성스럽지 못한것이고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것은 임금으로서 어질지 못한 일이옵니다.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어짐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하려는것이 소신의 마음이니 어찌 감히 칭찬을 구하겠나이까.》

왕은 그만 말문이 막혀 머뭇거리더니 호통쳤다.

《국상은 끝내 백성을 위해 죽으려는가? 후회치 말라!》

《대왕님을 바로 도우려다 죽는것이 어찌 후회 되겠나이까.》

《뭐라구?》

《임금을 바로 돕자고 간하다 죽음을 당한 신하를 두고 후세에 그 누가 탓하겠나이까.》

봉상왕은 더 말을 못하였다.